금주의 법구–〈증일아함경〉
길잡이 소가 바르게 가면
뒤따르는 소도 모두 바르게 가니
길잡이 소를 따라가기 때문이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59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3년 음력 8월 6일) 2019년 9월 4일 수요일

지성불교 산실 〈불교평론〉 20돌 맞다

'탈종교화 시대, 불교' 주제 20주년 심포지엄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계간 〈불교평론〉이 창간 20주년을 맞아 8월 30일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1999년 겨울 '용수나 세친, 원효나 의상이 해석한 불교에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그것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세계가 불교를 향해 끊임없이 던져오는 새로운 질문에 응답하겠다' 며 첫 발을 디딘지 20년이다.

〈불교평론〉은 그동안 기존 불교학계에서 다루지 않은 다양한 시대 조류와의 접점을 모색했다. 지금까지 다룬 기획만 150여개에 달할 정도로 매번 기획과 특집을 통해 불교에 대한 비판적 검토, 대안 제시 등을 고민했다.

'20세기 한국 불교의 회고와 반성' 을 주제로 창간호를 낸 후 〈불교평론〉은 '기복(祈福) 불교' '대승불교 정체성' 등 불교계 민감한 부분을 과감히 공론의 장으로 끌어냈다. 이와 함께 생명, 환경, 명상, 젠더 등 시사 이슈와 관련된 주제를 다루고, 불자 지식인뿐만 아니라 이웃종교계의 입장도 함께 실었다. 전통적인 불교에서 벗어난 지성불교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과 불교의 관계를 면밀히 살폈고, 재가불교 운동의 방향을 모색하는 특집도 진행했다.

이런 까닭에 과연 불교평론이 20주년을 맞아 여는 심포지엄의 주제인 '탈종교화 시대, 불교의 위상과 역할' 도 대중의 관심을 모았다. 홍사성 편집인은 이번 주제 선정에 대해 "현대사회는 과학의 진보와 물질문명의 발달, 지식정보의 대량유통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종교의 위상이 점점 축소되고 있다"며 "불교는 새로운 시대상황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며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각계 학자들이 한국불교가 나아갈 지점을 진단했다. 먼저 송현주 순천향대 교수는 '세계종교에서 세속화와 탈세속화의 동시적 전개' 발표를 통해 "근대사회의 변화는 더욱 더 합리적인 사회유형을 추구하게 되며 이는 초자연적인 것의 위축과 쇠퇴를 의미한다"며 "합리적 선택이론에 따르면 종교인구가 줄어든 것은 공급자와 수요자가 선호할 만한 다양한 종교상품을 개발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각 종교가 해야 할 일은 현대 종교성과 종교적 욕구에 맞게 종교 자신을 재구조화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경일 새길기독사회문화원 원장은 '탈종교 시대, 그리스도교의 탈-향 운동' 발표를 통해 기독교계의 움직임과 과제를 전했다. 정원장은 "시대정신을 분별하지 못한 채 역행하는 일부 한국교회는 사회서 배척될지도 모른다. 시대정신을 잃은 교회는 교인들의 마음도 사로잡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개신교 내에서는 탈성직, 탈성장, 탈성별의 가치를 추구하는 작은 교회 운동을 통해 새로운 개혁을 꿈꾸고 있다"고 전했다.

또 심포지엄에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불교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대안이 나왔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한국불교의 탈종교적 신행행태와 미래' 발표를 통해 "탈종교화 같은 변화는 큰 위기 요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새로운 발전 기회다. 현대인 관심사가 건강에 집중되며 음식과 명상에 대한 관심도 커져 사찰음식과 불교명상이 각광을 받는다. 탈종교화 시대에서 불교 미래는 신앙 중심의 다른 종교에 비해 매우 밝다"고 강조했다.

시대 이슈 불교계 과감히 접목
지식사회 불교 잇는 가교 역할
20주년 주제 '탈종교화 불교'

젊은 세대 인식 변화 지적
개신교계 대응 현황도 참조
"분야 맞춤형 포교 접근 필요"

김 교수는 무엇보다 새로운 불교신행 형태가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결국 불자들과 일반시민들이 불교를 접했을 때 매력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며 "각 분야별 전문포교사를 적극 양성하고, 연령별, 직능 포교프로그램과 교육, 조직, 복지, 문화, 수행 등 분야의 맞춤형 접근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명법 스님의 '탈세속화 시대, 붓다를 사유하기' , 이혜숙 금강대 교수의 '시민사회 공론장 확립을 위한 불교의 역할' , 이상헌 서강대 교수의 '포스트휴먼 시대의 도래와 불교' , 양형진 고려대 교수의 '현대과학기술문명과 불교의 역할' 등도 발표됐다.

홍사성 불교평론 편집인은 "시대가 불교에 요구한 다양한 문제를 주제로 선정해 불교계 안목을 새롭게 열고자 했다. 다양한 논쟁에서 항상 완벽한 대안을 제시한 것은 아니지만 그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국토 향한 출가수행 원력 다짐" 조계종 예비 스님들이 정규교육을 마치고 출가수행자로 거듭나 불국토 건설을 위해 매진하겠다는 서원을 세웠다. 조계종 제57기 사미 · 사미니계 수계교육이 8월 29일 김천 직지사 만덕전에서 회향했다. 이번 수계교육에는 총 76명(남53 · 여23)이 참가했으며, 사미 1명을 제외한 전원이 5급 승가고시에 합격했다. 사진은 수계교육에서 사미 · 사미니들이 합장호궤하고 각자의 발심을 되새기는 모습.
글=윤호섭 기자 · 사진=조계종 교육원

BBS불교방송 사장 공모로 재추천한다

선상신 · 최윤희 후보 사퇴… 공모 일정 추후 논의

BBS불교방송 사장 복수후보로 추천된 선상신 현 사장과 최윤희 라디오제작국장이 후보 사퇴함에 따라 차기사장은 공모를 거쳐 추천한다.

BBS사장의 후보추천권을 갖는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각범)은 8월 23일 서울 마포구 다보빌딩 재단사무실서 이사회를 열고, 불교방송 사장 추천에 관한 건을 다뤄 이 같이 결정했다. 이사회에는 이각범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6인이 참석했다.

진흥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사회는 불교방송 사무국을 통해 앞서 추천한 선상신 · 최윤희 후보의 사퇴 소식을 전해들었으며, 차기 사장후보는 공모를 거쳐 추천키로 했다. 아울러 공모는 본인뿐만 아니라 외부 추천인의 추천으로도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모 일정은 불교방송 측에서 사장 후보에 대한 재추천 요청을 받은 뒤 논의하기로 했다.

진흥원 관계자는 "보다 많은 인재들이 불교방송 사장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자격의 문호를 넓혔다"고 설명했다.

한편 진흥원 이각범 이사장은 불교방송 차기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경영계획서를 받지 않고, 기존 관례인 후보검증위원회 등을 따르지 않아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그러면서도 이 이사장은 "관례를 따랐다면 오해를 받진 않았을 것 같다"고 사실상 잘못을 일부 시인하면서도 "외부공모는 부정적"이라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조계종 불교대학 운영백서, 11월 발간

포교원 현장 청취 진행, 70여 불교대학 설문조사도 담겨

조계종 포교원이 신도전문교육기관 활성화를 위해 나섰다. 11월 신도전문교육기관(이하 불교대학) 운영방법을 비롯해 각 불교대학의 성공 노하우와 설문조사 결과 등을 담은 운영매뉴얼을 펴낼 계획이다.

조계종 포교원은 8월 22일 천안 각원사에서 간담회를 시작으로 서울 화계사, 울산 정토사, 김천 직지사, 진불선원, 참좋은우리절 등 7개 사찰을 대상으로 불교대학 운영 현황 파악과 활성화 비결을 청취를 실시했다.

조계종 신도 양성의 핵심역할을 담당하는 불교대학은 신도기본교육 다음단계로 연간 96시간 이상의 1년 또는 2년 과정으로 운영된다. 2011년 통계 집계 후 졸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평균 수강생도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다. 조계종 포교원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2017년 불교대학 설립 자격조건을 완화한 신행불교대학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도 했다.

이번 운영매뉴얼은 활성화된 불교대학 사례를 통해 전체 불교대학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매뉴얼에는 불교대학 70여 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운영현황, 교과목 선정, 강사 섭외, 수행과의 접목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함께 실린다.

조계종 포교원 관계자는 "9월 내 활성화 된 곳을 중심으로 사례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라며 "포교 전법, 신도교육의 중심역할을 담당하는 곳이 불교대학인 만큼 불교대학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2일 진행된 간담회서는 포교원 신도국장 혜안 스님과 이동선 신도팀장 등이 각원사 주지 대원 스님과 이영철 각원사 신도회장, 윤학명 불교대학 총동문회장을 만나 불교대학 운영 현황을 들었다.

각원사 불교대학은 2002년 조계종 인가 이후 올해 18기 신입생을 받는 등 불교세가 약한 천안지역에서 포교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소통하고, 실천하는 전국비구니회를 만들겠습니다



▶ 비구니스님들을 위한 현실적인 복지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비구니스님들의 인재육성과 활용방안에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 항상 열려있는 전국비구니회를 만들겠습니다.
▶ 사회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전국비구니회가 되겠습니다.
▶ 세계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전국비구니회로 거듭나겠습니다.

제12대 전국비구니회장 선거 입후보자 본각

■ 투표일시 및 장소 : 불기2563(2019)년 9월 18일(수) 오후 1시,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 ■ 준비물 : 가사, 장삼, 승려증

육문 스님 "비구니회 위상 강화" 공약

8월 27일 전국비구니회장 선거 출마의 변 발표

조계종 제12대 전국비구니회장 후보로 출마한 현 회장 육문 스님<사진>이 '전국비구니회 위상 강화'를 중심으로 한 공약을 발표했다.



육문 스님은 8월 27일 발표한 출마의 변을 통해 "50년 역사를 지닌 전국비구니회는 작은 강과 물결을 보듬어 안고 도약을 위해 큰 바다로 나아가야 한다. 전국비구니회 100년의 도약을 위한 막대한 원력은 한국불교와 사회를 이끌어 가는 찬연한 역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4년은 더 큰 도약을 위해 비구니스님들의 참여와 변화를 바탕으로 존경받

비구니 복지 확대 · 내실 강화
수행 및 전법활동 지원 기틀
장학사업 통해 교육활동 장려

는 승가의 화합된 모습을 실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육문 스님은 지난 임기동안 △비구니원로회 구성 △12년 만의 명사법계 품서 △교육 · 복지 · 회관불사 등을 성과로 꼽으면서 비구니 특별교구 설립을 통한 전국비구니회 위상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아울러 중앙종무기관과 종립학교, 복지기관 등에 비구니 소임이 확대되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육문 스님은 "종단에 비구니 전용 요양원 설립을 건의하고, 입원 및 수술의료비 지원과 무료 건강검진을 확대하겠다"면서 "수행과 지역사회 나눔활동을 비롯해 불교문화콘텐츠 포교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전국비구니회에서 개설하는 연수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템플스테이 및 호스피스 등 전문가과정을 정기교육하면서 비구니 인재불사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육문 스님은 "제11대 집행부는 제방에서 묵묵히 수행과 전법에 힘쓰시는 비구니스님들의 지지와 격려에 힘입어 다양한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뒀다"며 "비구니 수행자로서의 위상 정립과 안정된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육문 스님은 "세속의 정치적 논리가 비구니 승가에까지 파고들어 혼탁함을 드러내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지혜의 안목을 열어 멀리 보시고 깊이 생각해 비구니 승가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자"면서 "지난 4년의 운영 경험화 추진력에 전국 비구니스님들을 외호하는 정직한 공심의 원력이 더해진다면 이루지 못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봉선사 주지에 초격 · 성일 스님 입후보

주지 선출 산중총회 9월 6일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 주지선거에 前중앙종회 부의장 초격 스님과 前의정부 원각사 주지 성일 스님이 입후보하면서 경선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봉선사 주지 선출 산중총회를 앞두고 8월 25~27일 후보 등록 결과 초격 스님과 성일 스님이 등록했다. 앞서 초격 스님의 단독 출마가 예상됐지만 성일 스님이 입후보하면서 봉선사는 경선을 치러 차기 주지후보를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기호 1번 초격 스님은 경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7년 봉선사서 운경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98년 통도사서 청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한국문화연수원장과 총무원장 종



초격 스님



성일 스님

책특보, 파주 보광사 주지, 제13~17대 중앙종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기호 2번 성일 스님은 밀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4년 해인사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2003년 범어사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봉선사 총무국장과 재무국장, 포천 흥룡사 주지, 파주 보광사 도솔암 감원, 남양주 흥국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한편 주지 선출 산중총회는 6일 봉선사에서 열린다.

윤호섭 기자

日불교에 '한일갈등 해소' 성명 제안

종단협, 일본 측 회신 따라 방일특사단 파견 계획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로 발생한 한일 양국의 갈등상황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공동성명을 일본불교계에 제안키로 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원행, 조계종 총무원장)는 8월 27일 서울 견지동 협의회 사무실에서 상임이사회를 열고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한국불교대표단 일본불교 방문의 건'을 심도 있게 다뤄 이 같이 결정했다.

회의에서는 앞서 회장 원행 스님과 각 종단 대표들이 7월 26일 문재인 대통령 오찬에서 설명한 방일특사단 계획을 공유하고, 시기의 적정성과 방일의 취지 등을 논의했다. 종단협 사무총장 지민 스님은 안건을 설명하면서 "양국관계가 엄중한 분위기인 만큼 일본불교 방문이 필요한지부터 어떤 목적으로 할 것인지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부분의 상임이사들은 현재 국내 정서를 감안할 때 한국불교계의 일본 방문이 성과 없이 끝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역풍을 우려했다. 이는 앞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일본 자민당 간사를 만나기 위해 방일했다가 문전박대 당하면서 정치적 결례라는 여론이 인 것을 감안한 것이다. 또한 한일 양국 개신교와 천주교가 최근 공동담화문과 성명 등을 발표하면서 한일갈등을 야기한 아베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어 불교계 논의도 주요한 성과가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

과거사 대한 일본의 사과 등
성명 초안에 담아 日에 전달
일본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
"성과 없는 방문은 의미 없어"

이 다수 제기됐다.

천태종 총무부장 월장 스님은 "아무리 좋은 뜻을 갖고 일본불교계와 갈등해소를 논의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정서에 반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일본까지 찾아갔다가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한다면 차라리 가지 않는 게 낫다"고 견해를 피력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상임이사회는 8월 27일 회의에서 일본불교계에 한일갈등 해소를 위한 공동성명을 제안키로 했다.

반면 관음종 총무부장 도각 스님은 "국가 간의 외교와 종교계 화해 교류가 반드시 같이 가야하는 건 아니다"면서 "특사단 파견 계획을 청와대에서 설명한 만큼 파견부터 한 뒤에 성과의 유무를 보고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종단협은 일부 의견충돌이 발생하자 한국불교계가 공동성명의 초안을 작성해 일본불교계에 제안하고, 이를 일본 측이 받아들일 경우 특사단 파견을 구체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다만 한국 측 성명 초안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과 위안부 피해 등 과거사에 대한 일본정부의 진정한 사과를 요청하고 있어 일본 측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종단협은 이와 함께 일본불교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공동성명에 참여해야 양국 불교계의 격에 맞는다는 점에서 일한불교교류협의회뿐만 아니라 전일본불교회의 동참도 요청했다. 만약 일본불교계가 공동성명을 받아들일 경우 종단협은 이르면 9월 중으로 특사단을 파견해 성명 채택 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종단협은 일본불교계가 제안한 일제강점기 조선인 희생자 유골봉환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 보도된 9월 초 방일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앞서 구성한 위원회가 논의를 거쳐 일정을 조율할 것을 주문했다.

조계종, 11월 중 파키스탄 국빈 초청 방문

국빈 초청 방문은 이번이 최초
정부 핵심인사 · 종교대표 만나
불교와 이슬람교의 교류 기대

조계종이 파키스탄의 국빈 초청을 받아 오는 11월 중 파키스탄을 방문한다. 조계종이 파키스탄의 초청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8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서 라힘 하얏 쿠레쉬 주한 파키스탄 대사의 예방을 받고, 파키스탄의 국빈 초청에 화답했다. 원행 스님은 "마음속으로 파키스탄에 있는 부처님들을 보면 파키스탄이 위대한 나라라고 생각된다"며 "간다라불상부터 세계적인 불교문화재가 있는 것으로 안다. 훌륭한 문화재를 잘 보존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이에 쿠레쉬 대사는 "조계종의 방문은 파키스탄의 큰 영광이다. 정부에서도 기대가 크다"면서 "과거 8세기부터 혜초 스님이 간다라지역을 왕래하셨다. 이런 전통을 조계종이 되살려주셨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라힘 하얏 쿠레쉬 주한 파키스탄와 환한 얼굴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조계종 홍보국

쿠레쉬 대사는 또한 인도와의 카슈미르 분쟁 상황을 묻는 원행 스님 질문에 "카슈미르 지역은 전통적으로 불교세가 강했던 곳이다.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에 정부는 슬픔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예방은 비공개로 전환됐지만 총무원에 따르면 원행 스님과 쿠레쉬 대사는 구체적인 파키스탄 방문 일정과 순례지역 등을 논의했다. 현재까지는 11월 15~30일 사이에 작지 않은 규모로 조계종 대표단이 파키스탄을 방문키로 했으며, 정부 핵심인사와 이슬람교 대표 등을 만날 예정이다. 확정되진 않았으나 맘눈 후세인 대통령과 임란 칸 총리와의 만남도 성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예방에서 원행 스님은 384년 백제에 불교를 최초로 전한 마라난타 스님의 출생지역에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쿠레쉬 대사는 마라난타 스님 출생지뿐만 아니라 라호르박물관을 비롯해 파키스탄의 주요 불교유적지를 중심으로 순례일정을 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최근 발굴된 불교유적지를 조계종의 방문에 맞춰 공개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이에 원행 스님은 파키스탄 방문에서 학교나 유치원 등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곳에 지원금을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원행 스님은 "불교와 이슬람교, 한국과 파키스탄의 돈독한 우의를 다지고 지속적으로 왕래하며 발전적인 관계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계종을 향한 파키스탄의 이 같은 적극적인 초청은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키스탄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여행자제(황색경보) · 철수권고(적색경보) 등으로 분류돼 있다. 이에 간다라불상 등 세계적인 불교문화재를 보유한 파키스탄이 조계종을 중심으로 치안에 문제가 없음을 알리고, 성지순례 등 불자들의 파키스탄 유입을 늘리고자 한 것이다.

윤호섭 기자

"비누로 손·얼굴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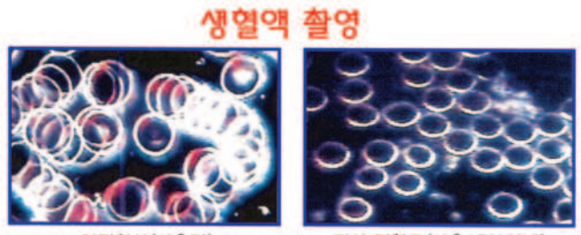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항균(대장균, 포도상구균) 99.9%가 아토피, 검버섯, 무좀, 사타구니 가려움증, 뽀루지, 비듬, 여드름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은 물론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 노인냄새 제거

BLOOD MATE®
CS137(세슘) 방사능 제거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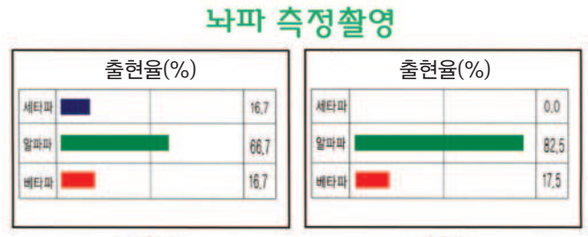
효과 : 8년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폭자(8개현 5,600만명)의 방사능 치유 목적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된 일본 정부의 예산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제품.

생혈액 촬영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탈모예방 발모촉진



사용전 사용6개월 후

피가 맑아져서 혈액순환이 정상화되고 뇌파가 안정되고 정신이 맑아진다면 혈액순환 장애로 일어나는 모든 질환과 뇌파의 불안정에 의한 정신 이상을 사전에 예방할 것입니다.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계면활성제가 없는 천연원료로만 제조된 제품입니다.

BLOOD MATE®의 인체에 미치는 유익한 영향들은어깨, 허리통증, 방사능 제거(세슘) 등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어 (약사법 등) 부득이 체험 (사용)에 의해 그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을 위하여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검버섯 제거 현상



㈜에이스 삼강 02)353-9692 010-2791-3696 |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

“명상은 보살도 걷는 자비의 가치”

2019 대한민국 명상포럼 개최… 혜거 스님 입제법문

명상열풍 발맞춰 수행법 접목
각 분야 전문가들 강연 나서
혜거 스님 명상의 가치 강조
“모두 잘 살기 위해 명상하자”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8월 29일 동국대 본관 중강당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명상포럼 개회식.

“우리가 지금 명상을 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명상을 통해 마음이 가라앉고 지혜가 열리면 삶을 대하는 자세가 변하기 때문이다. 나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길이 함께 열리기 때문에 명상은 곧 보살도로 이어진다.”

명상이 전 세계적으로 조명 받고, 이제는 하나의 산업군까지 형성한 현대사회. 서구에서 불어온 명상열풍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명상에 대한 관심은 아직 높지 않다. 이에 명상의 대중화를 위해 불교와 비불교에서 각각 명상수행을 보급하는 전문가들이 명상의 가치를 조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국명상총협회와 한국참선지도자협회는 8월 29~31일 서울 동국대에서 2019 대한민국 명상포럼을 개최했다. 명상포럼은 스님을 비롯해 일반사회 등 국내 명상계 석학으로 꼽히는 전문가들의 대규모 강연이다. 4차산업혁명으로 불리는 AI 인공지능을 넘어 IT 초지능 명상에 초점을 맞춘 명상과 인성교육법을 모색하고, 종교가 아닌 명상을 소재로 한국의 정신문화를 재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날 중강당서 열린 개회식에서는 서울 금강선원 조실 혜거 스님이 현 시대 명상의 필요성과 가치를 주제로 입제법문을 했다.

혜거 스님은 “인간이 아름다운 심성을 가지도록 하는 건 학문공부나 재주를 찾는 일로 할 수 없다. 마음을 가라앉히는 훈련이 필요하고, 그것이 곧 명상”이라며 “송나라의 자각 종색 선사는 참선 교재인 〈좌선의(坐禪儀)〉를 찬술하면서 명상 · 참선하는 이를 ‘학반야보살’, 즉 반야를 공부하는 보살이라고 칭했다”고 강조했다.

혜거 스님은 이어 “우리나라는 보고 듣고 배워 아는 것은 세계 제일이지만 창작하거나 깊게 연구하는 건 많이 뒤쳐져 있다. 이것을 명상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명상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명상포럼은 입제법문을 시작으로 3일간 분과별로 강연이 진행됐다. 30일에는 1분과서 △자비명상 이사장 마가 스님의 ‘잠깐멈춤 명상법’ △대흥사 유나 정찬 스님의 ‘시(詩)로 읽는 명상의 요체’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의 ‘선 명상 수행법의 길라잡이 〈선가귀감〉’이, 2분과는 △전현수 정신건강의학전문의의 ‘거시적, 미시적 관찰을 통해 본 존재의 본질’ △수도암선원 선현 종묵 스님의 ‘선수행 명상방법론의 역사’ △대승사 선승 정과 스님의 ‘깨달음이란 무엇인가’가 이어졌다. 3분과는 △김열권 위빠사나붓다선원장이 ‘붓다의 깨달음 호흡명상법’ △불교상담개발원장 선업 스님이 ‘마하화두선과 MTV통합명상’ △대해사 국제선원장 대해 스님이 ‘AI인공지능과 IT기업을 이끌고 갈 본질 알고리즘’을 발제했다.

마지막 날 종합토론에서는 명상총협회장 각산 스님과 조효남 한양대 명예교수, 이시형 한국자연의학종합연구원장, 마이크로소프트사 수석그룹장 킴킴의 발제에 종묵 스님과 정과 스님, 전현수 전문의, 백성호 중앙일보 기자가 패널로 참여해 ‘명상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현 시대에 맞는 명상의 의미를 짚었다.

각산 스님은 “우리사회에 불고 있는 명상열풍은 전통불교의 간화선 명상법을, 한국을 넘어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다양한 명상법, 수행법과 접목해 대중이 겪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으로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동국대 이사에 김기유, 민병덕 씨

동국대 8월 26일 이사회서 선임

동국대 신임 개방이사로 김기유 이사와 민병덕 전 KB국민은행장이 선임됐다.

학교법인 동국대(이사장 법산)는 8월 26일 동국대 본관 4층 로터스홀에서 322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회의서는 9월 15일 임기만료되는 김기유 이사 후임으로 김기유 이사를 유임했으며, 9월 24일 임기만료되는 김선근 이사 후임으로 민병덕 전 KB국민은행장을 선임했다. 민 전 행장은 동국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동국대 석좌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와 함께 320회 이사회서 이사로 선임된 우송 스님(신흥사 주지)이 교육부로부터 취임승인을 받았다. 우송 스님의 임기는 8월 2일부터 4년 동안이다. 또 동국대 약학대학 학제개편 및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 동국대 의료원 통합 HIS(병원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및 기채승인에 관한 사항 등이 원안 통과됐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교육원 필수교과 ‘대승불전’ 교재 발간

2학기부터 사용… 9월 4일 상주교수 교과 연찬회

조계종 학인 스님들이 반드시 배워야 하는 대승경전 관련 교재가 새로 발간됐다.

조계종 교육원(원장직무대행 진광)은 “사찰승가대학 2학기 필수교과목인 〈대승불전1〉, 〈대승불전2〉 합본 교재를 발간해 무료로 보급했다”고 8월 26일 밝혔다.

〈대승불전1〉은 △소품반야경 △대품반야경 △금강경 △반야심경 △유마경 △화엄경 △법화경이 수록됐으며, 〈대승불전2〉는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대승열반경(대승) △대승기신론으로 구성됐다.

또한 조계종 교육원은 〈불교상담〉 강의계획안도 제작 · 배포했다. 이번에 발행한 〈불교상담〉 강의계획안은 △불교상담의 이해 △경전에 나타난 붓다의 상담 △불교상담의 목표 · 요소 · 과정 · 기법 등 불교상담 전반에 대한 교안들이 수록됐다.

한편, 조계종 교육원은 오는 9월 4일 〈대승불전〉과 〈불교상담〉 과목을 강의할 상주교수를 대상으로 교과목 연찬회를 국제회의장에서 실시한다.

신성민 기자



“발우 비워내듯 번뇌도 깨끗이”

복잡다단한 현대인의 삶에서 번뇌는 매순간 우리를 괴롭힌다. 잠시나마 번뇌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면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서울 안국동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에서 매월 1회 진행하는 ‘발우공양 전통체험’을 해보자. 발우공양 체험은 9월 28일, 10월 26일, 11월 23일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운영된다. 선착순 15명 정원에 참가비는 1만원. 사진은 8월 28일 진행된 발우공양 체험에서 발우를 씻어내는 참가자들의 모습. (02)733-4650

글=윤호섭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템플스테이 심리효과 ‘과학적 증명’

불교문화사업단 · 서울대병원 공동연구 “불안감 낮춘다”

한국불교 주요 문화콘텐츠로 자리 잡은 템플스테이가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이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권준수 교수팀과 공동연구한 ‘템플스테이 심신치유 효과에 관한 연구보고서’ 결과 템플스테이가 성인과 청소년 모두에게 스트레시 대처 능력을 높이고, 우울감을 낮추는 등 긍정적 효과를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연구는 템플스테이의 긍정적 효과와 정신치료의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의 행동 · 심리학적 효과를 검증하고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됐다. 연구결과는 2018년과 2019년 〈마음챙김(Mindfulness)〉 〈정신건강&의학(Psychology Health & Medicine)〉 〈신경과학프론티어스(Frontiers in Human Neuroscience)〉 등의 학술지에 각각 게재됐다.

연구진은 직장인 총 50명에게 3박4일간 템플스테이에 참여하게 했다. 특히 명상과 예불 프로그램의 자체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체험형 프로그램에 33명, 산사에서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휴식형 프로그램에 17명을 배정했다. 템플스테이 전후로 MRI촬영 등 뇌기능을 분석하고 개선 효과를 관찰했다.

그 결과 단기적으로는 체험형과 휴식형 참여자 모두 현재에 집중하는 능력 및 일상생활 스트레스를 견디게 하는 회복탄력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체험형 참여자의 경우 3개월 후에도 이 같은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된 것이다. 이와 함께 정보처리능력, 주의기능, 인지능력 역시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도 비슷했다. 연구진이 체험형 템플스테이에 참여한 청소년 총 64명을 분석한 결과, 행복감이 상승하고 불안감 및 우울감, 스트레스는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진은 “체험형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은 정보처리능력과 관계된 뇌의 백질에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켜 뇌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마음챙김과 정신적인 회복력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다큐멘터리는 오는 11월 17일 KBS1TV ‘다큐공감’에서 방영될 예정이다.

윤호섭 기자

만해 탄신 140주년, 日규탄 성명 나와

홍성군 등 지자체協 29일 발표

홍성군 등 6개 지자체로 구성된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 행정협의회는 8월 29일 홍성군 결성면 한용운 생가지에서 일본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지방정부협의회는 “만해의 자유와 평화의 정신으로 미래로 함께 나아가기 위해 선행돼야 할 과거 청산과 정치, 경제적 자유와 협력을 일본에 강력히 요구한다”며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배상 집행,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만해 스님 탄생 140주년을 맞아 만해 스님 관련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동국대 만해연구소(소장 고재석)는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행정협의회와 함께 ‘3 · 1운동 100주년 및 만해 탄생 140주년 기념-2019 만해독립로드대장정’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8월 29~30일 서울 동국대 만해광장, 서울 성북구 심우장, 충청남도 홍성군 일대에서 만해문학체험관 및 윤봉길의사 기념관 · 독립기념관 · 김좌진장군 생가지 탐방, 한용운 추모 다례재 등으로 이뤄졌다.

노덕현 기자



조계사 불교대학 30년, 문화축전 연다

9월 28일 조계사 대웅전서 3부 행사로 개최

학번별 금강경 합송대회
30년 사진전 · 서원대회도
"역량 한데 모아 발전을"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사 불교대학이 창립 30년을 맞아 새 30년을 기획하는 문화대축전을 연다. 조계사 불교대학 총동문회(성해 장경태)는 9월 28일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조계사 불교대학 30년, 미래 30년'을 주제로 문화대축전을 개최한다.

조계사 불교대학은 1989년 설립 이후 3000여 졸업생을 배출해 온 불교계 대표 불교대학이다.

문화대축전은 총 3부로, 1부 문화마당, 2부 기념법회, 3부 어울림마당으로 구성돼 있다. 1부 문화마당에서는 불교대학 30년사를 살펴볼 수 있는 사진전시회를 비롯해 포토존, 페이스페인팅, 서원지 쓰기 등 참여부스와 공연 '연꽃이 피어오르다' 공양미 자비의탑 쌓기 행사 등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조계사 불교대학 학번별 금강경 합송 경연대회가 진행된다.

2부 기념법회서는 불교대학 30년 및 총동문회 발자취 영상 상영과 동국대 이사장 법산 스님의 법문, 금강경 합송 경연대회 시상식 및 장학금 수여식 등이 진행된다.

3부 어울림한마당에서는 불교대학 총동문회 찬불가 동아리의 공연과 마술사 신우주씨의 마술쇼, 사물놀이 한마당과 초청공연 등이 펼쳐진다.

조계사 불교대학 총동문회가 불교대학 30주년을 맞아 나선 것은 그동안 배출된 동문들의 역량을 결집할 필요성 때문이다.

조계사 불교대학 총동문회는 기획부, 교육부, 문화부, 포교부, 신행부, 봉사부, 재무부, 홍보부 등 총 8개 부서로 구성돼 있으며 소외되는 이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 불교대학 졸업 기수별로 부서장이 배정돼있다. 고문 10명을 포함해 전체 임원 수가 100여 명에 달한다.

보통 다른 사찰의 경우 불교대학 출신 동문들이 따로 뭉치기가 쉽지 않다. 동문조직이 활성화돼있지 않아 신도회 차원서 불교대학 출신들을 관리한다. 하지만 조계사 불교대학의 경우 불교대학 건물 내 사무실을 두고 회원 관리 등을 직접 하고 있다.



이런 역량을 바탕으로 조계사 불교대학 총동문회는 그동안 조계사 어린이집 건립불사 동참, 선재 어린이집 어린이놀이기구 불사 동참을 비롯해 다양한 미래 불자를 위한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

조계사 불교대학 동문들이 만든 장학회의 별칭은 사천왕상 장학회로 초기 장학기금 1000만원에 1000명의 동문이 월 1000원을 모연해 1000명의 학생들이 수혜를 받게 하는 것이다.

또 매월 넷째주 금요일 53선지식 구법여행을 비롯해 매월 한차례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봉사와 매월 둘째주 금요일 교육법회, 조계사 만발식당 봉사 등 사회기여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특히 53선지식 구법여행의 경우 2015년 11월 입재한 이후 매월 셋째주 금요일마다 출재가를 막론한 오피니언 리더를 초청해 신해행증의 새로운 기치를 높였다. 혜거, 지안, 혜국 스님 등 스님들뿐만 아니라 전현수 정신과 전문의, 우승택 교수, 가수 장미화 등 각계의 불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인문강좌로도 진행됐다.

장경태 총동문회장은 "총동문회가 출범한지 13년이 됐고 그동안 다양한 활동을 펼쳤지만 불교대학 졸업생과 불교대학원 졸업생 등이 함께 모이는 자리를 만든 것은 사실상 없었다"며 "불교대학 30년을 맞아 총동문대회를 문화축전 형태로 열고 향후 동문들이 화합하고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해 불교대학 발전과 조계사 발전을 함께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전국 포교사 '불교 중흥' 발원

포교사단 제17회 팔재계법회 8월 24일 개최


포교사 팔재계 수계대법회서 포교사들이 금강경을 독송하며 불교중흥을 발원하고 있다.

조계종 포교사단(사단장 방창덕)은 8월 24일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제17회 팔재계 수계대법회를 개최했다. 3500여 포교사들이 참여한 이번 대법회서는 일반 포교사와 전문 포교사 등 565명이 포교사로 품수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계율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드는 길"이라며 "포교사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의미를 마음에 새기시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정진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품수식에 앞서서는 총무원장과 포교원장상, 총재상 등 개인과 단체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으며, 수계에 이어 묵언 탑돌이와 '금강경' 독송 등 철야 정진이 이어졌다.

법회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과 방창덕 포교사단장 등 전국에서 모인 3200여 포교사가 동참해 한마음으로 금강경을 독송했다.

방창덕 조계종 포교사단장은 "종단으로부터 부여받은 포교사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선 · 후배가 한자리에 모여 이마를 맞대고 부처님 정법을 전하는 일을 신바람 나게 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팔재계법회 입재식에서는 조계종 디지털대학교에서 포교사단에 발전기금을 전달했으며 포교사단 방창덕 단장은 법회 활동비 등으로 호국연무사에 포교기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노덕현 기자

지구촌공생회, 인천에 16번째 지부 개설

인천지부장에 일지 스님

교계 최초 국제구호 NGO인 지구촌공생회가 인천에 16번째 지부를 개설했다.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는 8월 19일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인천불교회관에서 지구촌공생회 16번째 지부 · 지회 개설을 알리는 명판식을 진행했다.

이에 앞서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은 6월경 인천불교회관을 인천지부로 지정하고, 인천불교회관 주지 일지 스님을 지부장으로 임명한 바 있다.

이날 명판식에서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은 "국제구호 활동에서 지부 지회의 동참이 중요하다. 특히 불자들의 자비실천을 알리는데 지부의 역할이 크다"며 "지구촌 곳곳의 어려운 이들을 돕는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인천지부장으로 임명된 일지 스님은 "활동 방안 논의를 통해 향후 지속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사찰음식 숨은 고수는 바로 나!"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제3회 한국사찰음식 경연대회

재야의 사찰음식 고수는 누구일까? 사찰음식의 실력을 가리는 재야 고수들의 대결이 열렸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은 8월 23일 서울 안국동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에서 '제3회 한국사찰음식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에는 예선을 거친 총 12개 2인 1조 팀이 참가, 각자 준비한 주제에 맞는 사찰음식을 선보였다. 당초 대회는 학인스님부와 일반부로 나눠 기획됐지만 학인스님들이 승가대학 교육일정으로 인해 저조한 참여율을 보여 일반부만 개최됐다. 일반부에는 고등학생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참가자들이 사찰음식 실력을 뽐냈다.

심사위원 정관 스님과 조희숙 셰프의 심사에 따라 대상인 총무원장상에는 '마중물인연'팀이 선정됐다. 소원해진 친구사이를 사찰음식으로 풀고자 참여한 '마중물인연' 팀은 애호박과 가지, 유부와 밥, 된장소스와 유자즙을 활용한 '유자 된장 품은 채소말이'를 선보였다. 아울러 옥수수와 보리, 가지, 호박으로 화를 누그러뜨리는 '옥수수 따러 가 보리전'과 감자와 살구로 조화를 이룬 후식으로 호평을 받았다.


심사위원 정관 스님이 경연대회 참가자들의 조리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최우수상인 서울시장상에는 조계사에서 결혼식을 올렸다는 '22년차 부부' 팀이 '낭군 입맷상 차림'이라는 주제로 메밀국수말이와 곤약튀김 등을 선보여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같은 최우수상인 한식진흥원 이사장상에는 포두부 나물국수와 두부전 한쌈을 요리한 '갓밝이' 팀과 고추잡채 두부포말이 · 콩고기 꿔바로우를 만든 '신사임당' 팀이 선정됐다. 이외에도 사업단장상과 특별상 등의 시상이 이뤄졌다.

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은 "사찰음식은 무슨 음식을 먹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음식을 대해야 하는지에 관심을 갖는다"며 "이번 경연대회를 통해 사찰음식의 철학이 널리 알려져 모두의 심신건강 증진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2019서울노인영화제 9월 25일 개막

서울 충무로 대한극장서… 국내 31편 본선 진출

노년의 삶을 이해하고 청년세대와의 교감을 취지로 마련된 서울노인영화제가 올해로 12회째를 맞는다.

2019서울노인영화제는 오는 9월 25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충무로 대한극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영화제에는 단편공모에 국내부문 총 232편(청년감독 159편, 노인감독 73편)이 출품돼 역대 최다 출품을 기록했으며, 이 중 31편이 본선작으로 선정됐다. 또한 신설된 해외부문에 15개국 61편이 출품, 27편이 영화제에서 상영된다.

2019서울노인영화제는 한국영화 100주년을 맞아 숫자 '100'이 갖는 의미를 다양하게 해석해 '100白BACK, #100'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영화제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노년의 모습을 담은 영화, 노년의 과거 경험을 되돌아보는 영화를 상영해 노년세대와 청년세대가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白이 갖는 사전적 의미 중 '진솔하다'는 뜻을 살려 각 세대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소셜미디어의 해시태그(#)처럼 모두와 소통한다는 취지를 살린다는 목표다.

특히 한국영화 100주년 특별기획전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무성영화인 안종화 감독의 '청춘의 십자로(1934)', 한국영화 발전의 기폭제가 된 이장호 감독의 '별들의 고향(1973)' 등 한국영화사의 기념비적인 작품등을 상영한다.

이외에도 올해 서울노인영화제 홍보대사로 중년배우 이병준, 시니어모델 김칠두, 신예배우 신지이 씨가 8월 26일 위촉됐다.

서울노인영화제 집행위원장 희유 스님은 "한국영화 100년의 역사는 어르신들이 살아온 시대의 반영이자, 지난 100년간 향유해온 문화이기도 하다"며 "노인과 청년이 각각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미래를 상상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8월 25일 천태종 총본산 단양 구인사에서는 대조사전 앞서 마련된 특별무대에서 〈묘음으로 피어나는 하얀 연꽃〉 음악회가 열렸다. 사진은 작곡가 조원행의 지휘로 연주하는 마하연국악단과 반주에 맞춰 노래하는 1300여 천태합창단.



남도소리꾼 천주미 씨가 교성곡을 열창하고 있다.



음악회에 참석한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을 비롯한 종단 스님과 내빈들이 공연을 관람하는 모습.



남녀 솔리스트들이 무대서 열창하고 있다.

음표 하나마다 꾹 새겨진 '환희불심'

[리뷰] '묘음으로 피어나는 하얀 연꽃' 음악회를 보고

단양 구인사=글 김주일 · 사진 박재완 기자

8월 25일 오후 7시 30분, 코발트색 어둠이 내려앉자 소백산 연화지서 피어오른 것은 분명 거룩한 묘음(妙音)이었다.

충북 단양 구인사 대조사전 앞 특별무대에서는 천태종 소의경전인 〈묘법연화경〉을 교성곡으로 만든 '법화광명의 노래' 전품이 처음으로 선보였다. 이 작품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을 밝힌 〈묘법연화경〉의 수승한 가르침을 배우고 찬탄하며 불자들이 신행과 수행의 근간을 삼고자 창작됐다. 〈법화경〉 28품에 서곡과 회향 피날레를 넣어 총 30곡으로 구성됐다.

천태합창단 외에도 총무원 사회부 사회과장 문법 스님, 국악인, 소리꾼, 마하연국악단, 디렉터컴퍼니 이한(무용단) 등이 무대에 올라 조원행 작곡가의 지휘에 따라 '법화광명의 노래' 30곡을 연주했다. 이번 음악회 예술 감독은 성의신 천태예술단장, 총연출은 이재성 가천대 교수가 맡았다. '법화광명의 노래' 전곡 가사는 금강대 교수인 광도 스님과 금강승가대 교수 고우익 법사가 썼다. 또한 작곡가들도 파트를 나눠 곡을 만들었는데, 조원행(청주시립국악단 지휘자)씨가 '서곡'을 비롯한 12곡, 김백찬씨는 '제1서품' 등 9곡, 함현상씨도 '제16 여래수량품' 등 9곡을 각각 작곡했다.

이날 마련된 특설무대에는 웬만한 실내 공연장의 관객 규모인 1300여 천태합창단이 올랐고, 객석에는 1만여 명이 발디딜틈없이 꽉 메웠다. 인터미션(중간휴식)없이 환희심과 불심으로 한곡 한곡씩 정성스레 노래한 2시간 30분은 한마디로 음성공양 대법회였다. 조명이 꺼져 어두컴컴한 객석서 곡이 끝날때마다 흘러나오는 관객의 환호와 열렬한 박수는 서로의 감동을 확인시켜주는 촉매제였다. 장중한 합창의 묘음은 한여름밤 대자연의 숨소리결로 곱게 다듬어져 동참한 이들의 눈과 귀를 호사스럽게 만들어 주었다.

바리톤 김재일을 비롯한 테너 베이스 소프라노 명창 등 솔리스트들이 진격을 앞둔 장수처럼 힘차게 앞에서 이끌면, 1300여 합창단은 뒤에서 보조를 맞추며 사뿐사뿐 따라갔다. 30곡 전곡을 악보없이 모두 외워서 노래한 그간의 합창단 노고는 꼭 칭찬해 주고 싶다. 이번 공연에 참가한 합창단원은 전국 천태종 사찰 합창단원중에서 오디션을 통해 선발됐으며, 지역별 연습과 전체 연습을 수차례 반복하며 무대를 준비했다고 한다.



〈묘법연화경〉을 교성곡으로 만든 '법화광명의 노래' 공연에는 1만 여명이 동참했다.

> 세련된 지휘 비팅과 화현 메커니즘 환상
> 대조사전 앞 1만 관객 묘음에 눈귀 호사
> 8월 25일 '법화광명의 노래' 30곡 초연

이날 연주는 약하면서도 강하고, 강하면서도 약한 교성곡 특성을 섬세한 합창의 진수(眞髓)를 통해 여실히 펼쳐 보여 주었다. 한마디로 지휘자의 섬세하고 세련된 비팅 테크닉과 단원들의 완숙한 화현 메커니즘이 이어진 환상의 하모니 그 자체였다.

더욱이 이번에 연주된 30곡 모두는 청중의 귀에 익숙치 않을 초연 곡들이었다. 하지만 한국음악의 리듬과 선율적인 극적 요소를 통해 대중들이 음악의 친숙함을 접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조원행 작곡자 말처럼 리듬과 음정도 대중친화적으로 완벽히 빚어냈다.

우리가 평소 갖고 있던 합창의 선입견을 버리며, 씨실과 날실로 튼실히 기획해 짜 놓은 이번 공연은 귀만이 아니라 눈으로도 충분히 호소력 있는 무대였다.

피날레가 끝난 뒤 객석에서 피어난 1만여 작은 연꽃 등도 이날 대화합의 하모니에 한 몫을 톡톡히 거들었다. 다만 대조사전을 배경으로 쏜 레이저 영상이 조사전의 화려한 단청에 눌려 시선의 불편함만 가중시켜 제 역할을 못한 것은 옥에 티로 남았다.

이날 공연을 지켜본 천태종 신도 김지숙 보살(65)은 "음악은 잘 모르지만, 2시간 30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릴 정도로 박진감 있게 진행됐다"며 "집으로 돌아가 법화경을 한구절씩 가슴에 새기고 공부하겠다는 발심이 다시 생겼다"고 환희심을 피력했다.

함현상 작곡가도 "음표 하나하나를 새겨 나가는 과정조차도 내게는 기도의 시간이었고, 부처님 말씀을 접하는 기쁨의 순간들이었다"고 그간의 작업 과정을 회고했다.

이번 〈묘법연화경〉을 교성곡으로 만든 '법화광명의 노래'는 전품을 선보인 대장정을 마침으로써 향후 침체된 한국불교음악계에 신선한 새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교성곡은 아리아 · 레치타티보 · 중창 · 합창 등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성악곡의 형식이다. '칸타타(Cantata)'의 번역어인데, 어원은 17세기 이탈리아서 '노래부르다'라는 말에서 시작된 것이다. 불교계에서는 그동안 '용성' '보현행원송' '부모은중송' '혜초' 등 여러 곡들이 발표됐으며, 천태종은 2003년 11월 8일 여의도 KBS홀서 초연한 〈천태종 중창조 상월원각대조사〉에 이어 이번 작품이 두 번째다.

65세이상 승려 연금 지급 종단

불교조계종

계율청정종단

■ 종정 대행 : 혜 인
총무원장 대행 : 법 광 사서실장 : 천 산 율원장 : 혜일
중앙선원장 : 도일

■ 원로원 : 혜일, 혜정, 일봉, 혜경, 천불, 수원, 혜원, 지성
방 장 : 대련, 혜경, 혜정, 일봉 의산장[경기도무형문화재] : 수원

▣ 총무원
부 원 장: 동안, 도불, 서봉금산
총무부장: 법성
재무부장: 혜만
교무부장: 혜일
사회부장: 동오
문화부장: 태산
총무국장: 남산
재무국장: 정일
교무국장: 율조
사회국장: 법일
문화국장: 호산
문화재관리국장: 진각
교육원장: 무공
교육부원장: 덕산
교육부장: 법광
교육국장: 진산
포교원장: 정산
포교부장: 송산
포교국장: 영암
국제포교원장: 천산인월
기획원장: 혜타
기획실장: 대덕화
호계원장: 법철
호계부장: 태산
규정부장: 명원
규정국장: 지산
호법부장: 법안
호법국장: 지호
감찰원장: 정오
감차부장: 백산지견
감찰1국장: 금산
감찰2국장: 인산
비구니회장: 지성
비구니부장: 혜승
교수사: 덕산
총무: 금산
부회장: 혜산, 해원
재무: 도은, 정해
교무:본각, 수정
교육: 보림, 성담
문화: 남산, 진화
포교: 보명, 홍산
강원: 각원, 해인
복지: 화광, 무연
감찰: 서호, 보현
불화: 혜담, 인산
의식: 련성, 지해

▣ 지방교구 종무원장
서울종무원장: 현조
경기종무원장: 도불
경기서부종무원장: 자명
경기남부종무원장: 해인
인천종무원장: 혜원
강원종무원장: 광덕
충북종무원장: 학산
충남종무원장: 혜덕
경남종무원장: 백산지견
경남남부종무원장: 천산
경남창원종무원장: 지원
경북종무원장: 덕운
부산종무원장: 서봉금산
울산종무원장: 법철
광주종무원장: 지각
전남종무원장: 도명
전북종무원장: 법성
제주종무원장: 청호
일본오사카종무원장: 인해
일본동경종무원장:정대
미국뉴욕종무원장: 성산
중국남경종무원장: 해산
베트남종무원장: 청목

◆ 학교법인 삼화학원 ◆

▣ 불교조계종 대학림
학 장 : 혜일
교 수 : 해운, 진산, 태산, 덕산, 현조, 혜승
조 교 : 손정, 최정화
운영이사 : 성산, 원명, 본각, 일현, 정현, 지각, 탄공, 해남, 법해, 청오, 현덕, 일행, 동명, 무진, 만공, 무공, 가산, 진법, 용산, 여연, 도원, 대각, 법신, 혜능, 대산, 지성

▣ 불교조계종 대대학림
원 장 : 혜인
교 수 : 상산, 정수, 송암, 성민
운영이사 : 광운, 도의, 영봉, 성해, 성하, 지원, 혜법, 성공, 수원, 법우, 혜현, 지운, 지해, 도각, 동덕, 무량, 혜철, 정현, 철산, 덕산, 덕송, 진평, 동안, 진제, 연각, 성묵

▣ 중국남경중의약대학
교 장 : 혜인
부 교 장 : 손영진
한국총장 : 홍창석
교학처장 : 손 정
학생처장 : 지안영
운영이사 : 법정, 혜담, 보현, 본각, 수옥, 향인, 수정, 현조, 금산, 지해, 지성, 원산, 해월, 성담, 화광, 진화

▣ 불교조계종 신문사
발행인: 혜인
편집기자: 나윤하
사회부기자: 이근진
편집인: 문화부장 태산, 문화국장 황산, 사회국장 법산
이사: 혜원, 정산, 각원, 덕산, 금산, 해인, 정해, 지성, 보현, 법신, 도은, 수옥, 서호, 성화, 해월, 화광

▣ 종단법인
사단법인 불교조계종
학교법인 삼화학원
사단법인 천지무예도협회
사단법인 행복한사회
의료법인 효성
재단법인 가평그린공원
사회복지법인 정향
사회복지법인 인주

▣ 총 림
서울총림 해인사
경기총림 백화사
부산총림 흥국사
경남총림 백천사
강원총림 조주선관
충북총림 청룡사
경북총림 대국사

▣ 전국신도회
전국신도회장: 홍창석
고문: 설주성
수석부회장: 윤근
여신도회장: 김준자
서울신도회장: 서우연
부산신도회장: 허민
강원신도회장: 김현재

▣ 청년신도회
회 장: 손정일
홍보처장: 이근진
기획대리: 나윤하
기획실장: 홍의현

총무원 :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26가길 50-1 (돈암동 83-2)
총무국 : 02)511-2026~7 / 팩스 : 02)511-2028
종단사업부 : 02)549-1918
총무원장실 : 02)511-1080
불교조계종신문 : 02)511-2026~7
일간동국신문사 : 02)511-1080
홈페이지 : 불교조계종.kr (www.jogyebuddhism.or.kr)
불교조계종신문 : www.buddhijogyesm.co.kr
불교조계종학림 : www.njutcm.co.kr
남경중의약대학 : www.njutcm.co.kr
이메일 주소 : samhwade@naver.com
samhwade@hanmail.net

키워드로 보는 Green Buddhism

2. 일회용품 'ZERO'



백양사 천진암 정관 스님(사진 오른쪽)은 텀블러 캠페인을 통해 일회용품 안 쓰기 운동에 동참했다.



금륜사 신도들이 지난해 동지 팥죽을 나눠주기 위해 일회용기가 아닌 다회용기에 팥죽을 담는 모습.



불교환경연대가 지난해 텀블러 사용 캠페인 '자고 있는 텀블러를 깨워라'을 조계사 일주문에서 펼치는 모습.



최근에는 신도들이 이용하는 다실에서도 일회용컵 대신 머그컵을 사용하고 설거지하는 문화가 생겨나고 있다.



불교환경연대와 법장사가 지난 6월 녹색사찰 협약을 맺었다. 주지 퇴휴 스님도 일회용품 사용 자제를 약속했다.

일회용품 쓰레기는 '간접적 살생'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지난 2015년 여름, 코에 플라스틱 빨대가 꽂힌 바다거북 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됐다. 코스타리카 해안에서 발견된 바다거북의 코에서 해양학자들이 빨대를 뽑아내자 바다거북은 두 눈을 질끈 감은 채 고통을 호소하며 피를 흘렸다. 이 영상은 환경오염의 주범인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의 심각성을 전 세계에 알린 사례로 꼽힌다. 하지만 지구는 일회용품이라는 인간의 편의를 위해 제작된 도구로 여전히 몸살을 앓고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불자의 기본 계율인 오계(五戒) 중 불살생(不殺生)계를 첫 번째로 설했다. 다른 무엇보다 생명의 존엄함을 강조한 것이다. 문제는 대중이 불살생의 의미를 '내 손으로 직접 생명을 죽이는 행위'로 간과한다는 점이다. 내가 버린 일회용품 쓰레기가 결국엔 어느 생명을 위협한다는 문제의식을 갖지 못해 불살생이 좁은 의미로 해석되는 셈이다.

혹자는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다. 쓰레기로 누군가 죽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몰랐다고 말이다. 하지만 그리스왕 밀린다와 학승 나가세나의 대화를 엮은 경전 〈밀린다왕문경〉에서는 모르고 하는 살생이 알고 살생하는 것보다 더 중대한 악행이라고 평한다. 알고 저지르는 죄업은 스스로 참회의 여지가 있지만, 모르고 짓는 죄업은 잘못을 인지하지 못해 더 큰 죄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분명 대중이 흔히 사용하는 일회용품은 인간뿐만 아니라 지구의 모든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다. 이 때문에 불살생계를 따르는 불자들은 당연히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여나가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생활쓰레기를 줄이는 운동 '제로웨이스트(zero waste)'는 불교가 아닌 일반인들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실망하긴 이르다. 적지만 일부 녹색사찰들이 일회용품 사용금지와 쓰레기 줄이기에 나서면서 모범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찰서 할 수 있는 환경운동

일회용품 사용금지의 가장 선구적인 역할을 하는 사찰은 고양 금륜사(주지 본각)다. 금륜사는 평소 사중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장하는 게 입소문을 타며 지난해 7월 불교환경연대 녹색사찰 1호로 선정됐다.

금륜사는 신도들이 애용하는 다실에 그 흔한 종이컵조차 찾아볼 수 없다. 각자 머그컵을 사용하고 설거지한다. 신도들에게 떡을 나눠줄 때는 비닐 대신 뻥튀기 과자를 활용하기도 한다. 동지팥죽은 유리로 된 용기나 다회용기에 나눠주면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신도들도 각자 가방이나 빈 통을 들고 다니게 됐다.

일회용품뿐만 아니라 재사용 가능한 물품을 다시 쓰는 것에도 금륜사는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선보였다. 신도들이 가정에서 쓰고 남은 종이쇼핑백을 사찰로 가져오게 하고, 이 쇼핑백에 사찰 물건을 담아 돌려줬다. 대부분의 사찰들이 각 사명(寺名)이 적힌 쇼핑백을 제작해 배포하는 것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

금륜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어린이청소년법회 아이들이 환경운동을 실천했을 때 환경장학금도 제공한다. 빈 통을 가져오지 못한 신도에게 1000원을 받고 금륜사 용기를 빌려주며 모은 돈으로 마련한 장학금이다. 적은 금액이더라도 어린 아이들이 환경의 중요성을 몸소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이런 금륜사도 일회용품을 아예 사용하지 않는 건 아니다. 사찰 특성상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금륜사는 번거롭더라도 비닐을 사용하고 세척해서 재사용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

금륜사 총무 효욱 스님은 "사실 일회용품을 최대한 자제한다고 해서 당장 큰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니다. 하지만 사중에서 배출되는 쓰레기가 많이 줄어드는 게 느껴진다"며 "절에서 일회용품을 쓰지 않더라도 외부에서 선물이나 공양으로 들어오는 물건의 포장이 쓰레기가 된다. 지속적인 환경운동 홍보를 통해 이런 부분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 **불자 기본계율 오계 중 不殺生**
> **일회용품이 자연환경 악화시켜**
> **다른 생명 위협하는 인식 필요**
> **일반사회 '제로웨이스트' 바람**
> **생활쓰레기 줄이는 운동 펴져**
> **종교계가 먼저 나서 전개해야**

"종교인 먼저 솔선수범을"

사찰음식의 대가인 정관 스님이 주석하는 백양사 천진암은 건강한 식자재 수급을 위해 일회용품을 줄이기 시작했다. 정관 스님은 직접 밭에서 농사를 지으며 같은 씨앗을 뿌리더라도 환경에 따라 다른 결과물을 낳는 채소를 보며 자연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스님은 그 즉시 사찰에 있던 일회용 종이컵을 전부 없애고, 창고에 묵혀두던 스테인리스컵과 그릇들을 꺼냈다.

정관 스님은 "종이컵을 사찰에 두면 대중이 쉽게 쓰고 버리게 된다. 그런데 그 습성이 곧 낭비"라며 "마을주민들이 믹스커피는 종이컵에 먹어야 맛이 난다고 하기에 차라리 먹지 말고, 먹고 싶으면 밥그릇에 먹으라고 권유했다"고 말했다.

정관 스님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일회용 종이컵의 문제와 불필요성을 강조하자 사람들에게 조금씩 변화가 생겼다고 했다. 종이컵을 사지 않고 일회용품도 쓰지 않다 보니 의외로 돈이 절약된다는 후문을 전해들은 것이다. 그래서 스님은 지금도 주말 사찰음식 템플스테이에서 참가자들에게 개인전용 텀블러를 제공한다. 일회용품이 없으니 각자의 컵을 사용하고 관리하라는 뜻이다.

정관 스님은 일선사찰의 환경운동이 확산되기 위해선 종단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스님은 "요즘 가정에 장을 보기 위한 가방은 필수다. 그렇다면 종단에서 시장가방을 제작하고 보급하면서 환경캠페인을 전개한다면 좋은 반응을 얻을 것"이라며 "스님과 종교인들이 먼저 나서야 하는 일이다. 우리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외에도 의정부 석림사와 울산 백련사 등 녹색사찰들도 일회용품을 줄이는 데 앞장서며 '그린 부디즘' 확산에 일조하고 있다.

서로 함께 나누는 아이디어

사찰들이 자체적으로 환경운동을 실천한다면 시민단체인 불교환경연대는 텀블러 사용 캠페인을 통해 '환경보살'의 양성을 주도하고 있다. 불교환경연대는 지난해 본지와 함께 환경캠페인 '자고 있는 텀블러를 깨워라'를 전개, 총 401개의 텀블러를 기증받아 시민들에게 나누고 344명의 캠페인 동참서명을 받았다.

이 캠페인은 집에 두고 쓰지 않는 텀블러를 활용해 일회용품을 향한 시민들의 문제의식을 일깨우고, 직접적인 실천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특히 출근 시 텀블러를 챙겨가거나 일회용 대신 다회용 빨대를 사용하게 됐다는 등 캠페인 참가자들의 다양한 후기도 전해졌다.

이뿐만 아니라 불교환경연대는 녹색사찰들과 '일회용품 안 쓰는 사찰 만들기'라는 SNS 단체채팅방을 만들고, 각자의 활동과 환경운동실천 노하우를 공유했다. 이 과정에서 금륜사는 부처님오신날 불단에 올릴 생화 장엄에 물을 흡수해 공급하는 스폰지 '플로랄폼(일명 오아시스)'을 사용하지 않은 모습을 공유했다. 플로랄폼은 물을 흡수하는 합성수지로 꽃꽂이에 주로 사용되며, 꽃을 꽂는 수반역할을 담당하는 일회용품이다. 금륜사의 이런 모습에 다른 사찰 주지스님과 불자들은 지금껏 신경 쓰지 못한 일회용품을 알게 됐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소박하지만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면서 사회 변화에 앞장서는 사찰과 불교단체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이를 범불교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선 스님들의 의식 개선이 필수적이다.

녹색불교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서울 열린선원장 법현 스님은 "스님들이 환경의 중요성을 먼저 인식하고 꾸준히 불자들에게 교육하지 않으면, 숲의 종교로 불리는 불교는 그 이름의 무게에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부처님의 마음을 빚는 불상 불단 조성 전문업체
한국불상조성원
상담문의 010-3665-6696
정성과 신뢰로 짓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에서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전통불상제작 방법을 전수받아 한국 불상의 전통과 맥을 이어가고 색바램없이 영구적으로 모실 수 있는 기술적 자질을 보유하여 다양한 불상을 조성하며 전통적인 표현양식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상판매 뿐만 아니라 사찰에 관한 모든 필요한 것을 일체 컨설팅과 자문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 대표 이 인 규 합장
불단, 수미단 | 닫집, 운각 | 특수불, 동불, 목불 | 단청개금, 순금개금 | 도금, FRP, 수지
소불, 대불, 모든 탱화 | 위패제작 | 건 축 | 맞춤 조성 가능 | 사찰 관련 컨설팅 및 자문
TEL 031-536-6696 | FAX 0504-398-6696

GM SOFT since 2015 사찰신도 관리 프로그램
동종업계 최저가격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기본 19,800원 | 설치비 · 세팅비 전액무료
프로그램 주요 기능
❶ 연등표 출력
❷ 인등표 출력
❸ 위패출력
❹ 문자발송
❺ 기부금 영수증
❻ 사주팔자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지엠소프트 [지엠소프트]를 검색하세요
대표전화 070-7633-2525, 010-8588-2525
상담문의 평일 09:30 ~ 17: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www.gmst.co.kr

만발공양으로 여는 행복한 세상

부산 견강암, 9월 11일 고동바귀공원서 효 잔치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오직 자비나눔으로 부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찰, 부산 견강암이 지역민을 위한 만발공양을 펼친다. 부산 모라동에 위치한 견강암은 매월 2·4주 수요일 만발공양을 진행하고 있다. 차별 없는 마음으로 인연이 되는 모든 생명에게 자비를 나누는 만발공양은 신도들의 신행터이자 신심 증장의 밑거름이 됐다. 견강암 만발공양 나눔은 이후 장학금, 어르신 효 관광, 김장 등으로 나눔이 확장돼 지역 내 훈훈함을 전하고 있다.

부산 견강암(주지 향공)은 9월 11일 낮 12시 모라동 고동바위공원에서 지역 어르신을 위한 효(孝) 잔치를 개최한다.

효 잔치는 매월 진행하는 만발공양 때 찾아오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특식을 나누고 양말 등 선물을 전달하며 건강을 기원하는 행사다. 또 초청가수 공연과 무료이발 봉사를 진행하고, 모라행정복지센터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쌀 500㎏을 전달하며 풍요로운 한가위를 기원한다. 이뿐 아니라 지역 내 장학생을 선발해 장학금도 전달할 예정이다.

견강암 자비나눔은 주지 향공 스님의 원력으로 시작됐다. 향공 스님은 출가 당시 나눔과 회향의 삶을 발원하며 출가해 봉사단체 정각회를 조직했다.

향공 스님은 "출가 할때 오직 이웃을 위해 손을 내밀고 나눔으로 회향하는 삶을 발원했다. 모두가 나 자신과 하나이고, 서로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봉사"라며 "꾸준히 이어진 자비

매월 만발공양으로 자비나눔
지역 어르신 위해 행사 열어
봉사단체 정각회 창립하면서
지역 나눔활동 모범적 실천

나눔 활동은 저뿐 아니라 주변사람들도 함께 성장하는 신행 활동처가 됐다"고 설명했다.

나눔을 위해 향공 스님이 시작한 것은 만발공양이다. 2005년부터 굶주리고 배고픈 사람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고자 스님은 국수를 삶아 고동바위공원으로 향했다. 매월 정기적으로 공양을 나누자 찾아오는 어르신들의 수가 늘어났고 점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해졌다. 신도들이


부산 견강암은 지역 어르신을 위해 9월 11일 모라동 고동바위공원에서 지역 어르신을 위한 효(孝) 잔치를 개최한다. 사진은 주지 향공 스님이 만발공양 당시 봉사하는 모습.

하나둘 스님의 원력에 동참하기 시작해 스님은 봉사단체 정각회를 구성했다. 현재 정기 봉사자 20여 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스님과 뜻을 함께하는 정기 후원자도 생겨났다.

정각회의 봉사활동 도움으로 스님의 만발공양은 더욱 확장돼 2010년부터 차상위 계층 및 조손가정, 독거노인을 위한 찾아가는 나눔활동도 이어졌다. 신도들은 부처님께 공양 올린 쌀이 어려운 이웃에게 회향되는 것을 보고 더 신심이 깊어졌고, 기도비는 장학금이 되어 마음이 뿌듯해졌다고 했다.

견강암은 매년 쌀을 1500㎏을 나누고 있으며 장학금은 매년 300만원씩 전달하고 있다. 특히 견강암에서 주도하고 있는 효 관광은 지역 어르신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행사가 됐다. 여행을 다녀온 어르신들의 입소문으로 참가자 수가 점점 늘어나 800여 명이 이미 여행 등록을 한 상태이다. 효 관광은 10월 3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향공 스님은 "꾸준한 나눔활동을 이어 온 것은 관심을 가져 준 모든 신도들과 봉사자들의 정성 덕분"이라며 "나눔을 통해 행복하고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성장하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마음 도량을 넓히는 일주문 되길"

진주 한마음선원 일주문 준공
호랑이·까치 등 장엄물 눈길

"일주문을 들어가고 나오며 마음 도량 넓혀가고, 각자의 마음 도량도 함께 살피고 지켜가길 바랍니다."

한마음선원 진주지원(지원장 혜근)은 8월 24일 일주문 준공식을 진주지원 일주문 앞에서 봉행했다. 이날 승·재가 내빈이 제막천을 잡아당기자 호랑이와 까치 형상으로 조각된 장엄물이 정겨운 모습을 드러냈고, 새로운 양식의 일주문이 대중 앞에 선보였다.

한마음선원 진주지원 일주문은 모든 생명과 하나가 돼 일주문을 나고 들며 마음 도량을 넓혀 나갈 것을 다짐하자는 취지로 새롭게 조성됐다. 호랑이 장엄물은 불법을 수호하고, 까치 장엄물은 항상 법계를 살피며 좋은 인연을 인도하란 의미로, 큰 나무 위에 위치한 까치 형상으로 조성됐다. 또 일주문 아래 바닥에는 대행 선사의 가르침이 널리 전파되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 둥근 파장이 점진적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중심부에 조각했다. 밤에도 조명을 비춰 지혜광명이 빛나도록 7개의 조명을 설치해 밝게 빛나는 지혜의 가르침을 상징화했다.


한마음선원 진주지원은 8월 24일 새 일주문 준공식을 봉행했다.

일주문 준공식은 개식사와 삼귀의로 시작해 참석한 내빈을 소개했다. 일주문 준공식을 위해 한마음선원 재단이사장 혜수 스님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주지 혜솔 스님,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 진주지원장 혜근 스님을 비롯해 각 지원의 스님들이 참석했으며, 박종수 한마음선원 신도회장, 최용호 진주지원 신도회장, 조경래 부회장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내빈들은 인사말과 격려사로 불사에 힘 모은 모든 불자들을 치하하고 격려했다. 또 한마음선원 진주지원 신도들은 일주문 장엄물 및 불사에 앞장선 김동철 석주조각원 명장과 이정훈 소장에게 선물을 전달했다.

이사장 혜수 스님은 "여기 일주문 보개는 대행 스님 동산에 맞춰 제작됐지만 이곳 진주지원에 인연이 되어 왔다. 그래서 더욱 더 정성이 많이 들어갔고 의미가 있다"며 "신도님들이 더욱 열심히 정진해주길 바라며 마음의 문을 넓혀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용호 진주지원 신도회장은 "아름다운 일주문이 이곳 생명도량을 장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며 "일주문이 서기까지 지극한 마음을 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진주=하성미 기자


영축총림 통도사는 8월 24일 통도사 경내 설법전에서 영축학원 해동고등학교 이사장 취임 고불식을 봉행했다.

"소통 중심 전인적 교육환경 마련"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 해동고교 이사장 취임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이 해동고등학교 이사장으로 취임하며 소통으로 발전을 꾀하고 균형 잡힌 교육행정으로 인재불사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문)는 8월 24일 통도사 경내 설법전에서 영축학원 해동고등학교 이사장 취임 고불식을 봉행했다. 고불식은 이사장 현문 스님의 취임 고불문 봉독 및 수행이력 소개와 취임사, 방장 성파 스님의 격려사가 이어졌다. 이사장 현문 스님은 교육을 전통과 미래를 위한 중요 불사라고 강조하며 인재불사에 매진할 것을 약속했다.

현문 스님은 "교육은 전통문화를 보전하는 벗이며 미래문화를 창조하는 마중물"이라며 "개인주의화 된 사회 속에 목적 공동체를 구성하는 소통을 바탕으로, 전인적이고 균형감 있는 인재를 키우기 위해 끊임없는 독려와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취임사를 전했다.

방장 성파 스님은 격려사에서 "새로 취임한 이사장님은 여러 가지 덕목을 두로 갖추고, 능력도 출중하기 때문에 큰 횃불이 되어 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이사장님의 원력에 발맞춰 교육문화 불사에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취임 고불식에는 통도사 방장 성파 스님, 이사장 현문 스님, 해동고등학교 임직원 및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한국·대만불교 승가 학술교류

태고종 중앙승가강원 동문회, 불광산사서 세미나

태고종 중앙승가강원 동문회(회장 인성)가 대만 불광산사를 방문해 국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사진〉

8월 18~22일 대만 불광산사에서 열린 이번 국제학술세미나는 '대만불교와 한국불교의 차별성과 미래지향점'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국제학술세미나를 추진한 인성 스님은 "부처님 법을 세계에 펼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수행자로서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방불교대학 학장 수암 스님은 주제 발표를 통해 대만불교의 성공요인을 스님들의 철저한 계율 수호와 투명한 사찰 운영으로 신도들의 신뢰가 두터운 점, 인간불교, 탄탄한 신도조직 등을 꼽아 강조했다. 반면 대중공의의 실종과 종단의 난립으로 승가자질 저하에 따른 사회적 병폐를 한국불교의 한계점으로 지적했다.

대만 불광산사 부주지 혜개 스님은 대만불교의 특징으로 사찰운영 회의를



통한 의사결정과 부처님 가르침이 아닌 것은 행하지 않는 비불부작을 들었다.

학술세미나에는 태고종 중앙승가강원 동문스님들과 제주 금봉사 나유타 합창단원 등 107명이 참석했으며, 불광산사에서 열린 공승재에도 동참했다. 또 불광산사 불타기념관에서는 한국의 불교전통문화인 영산작법 시연이 열렸으며 나유타 합창단의 찬불가 공연이 펼쳐졌다.

태고종 중앙승가강원과 대만불광산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 포교 불교전통문화 인적교류를 이어가기로 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분한신고 및 입종모집 공고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총무원은 민족의 평화적 통일과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본종을 창종하신 **일붕 서경보 큰스님의 크신 원력을 계승**하여 재단법인 일붕선교종을 재정비하고 더욱 발전시키고자 일붕 큰스님의 뜻을 따르는 승려 및 법사들을 영입, 입종하고자 분한신고 및 입종모집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불교중흥의 원력을 갖고 계신 승려 및 법사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본 종단에 입종하시길 희망하는 모든 승려, 법사님들께서는 입종서류를 작성하여 본 종단 각 교구 및 총무원에 접수 바랍니다.
2.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소속으로 있다가 제적, 탈종된 승려도 분한신고 후 심사하여 선별 복권토록 합니다. (멸빈은 제외)
3. 이번에 새로 입종하신 스님 및 법사님들에게는 입종비가 면제되는 특혜를 드립니다.

실시기간 2019년 9월 1일 ~ 12월 31일
대 상 • 본 종단 입종을 희망하는 모든 승려, 법사 • 본 종단에 있다가 제적, 탈종된 승려, 법사
제출서류 입종 서류 및 분한신고 서류 참조
접수장소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 각 교구 및 총무원 사무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총무원 전화 02)991-81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원 주소
서울 종로구 세검정로 6길 76-9

불기 2563(2019)년 9월 1일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경 원

포토리얼리즘 속 내면 美 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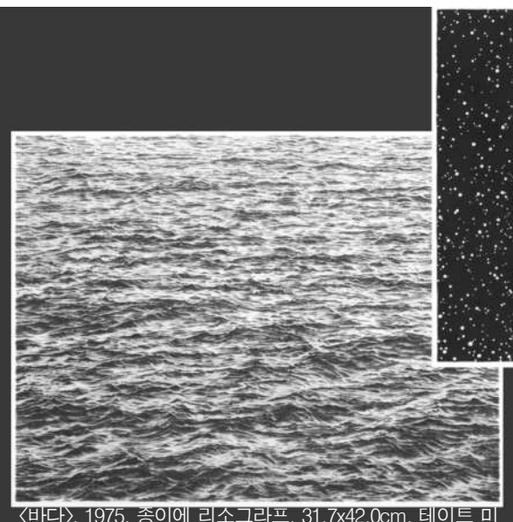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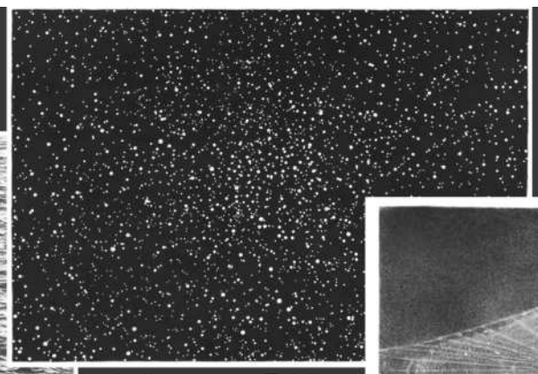
김원숙의
불교와 미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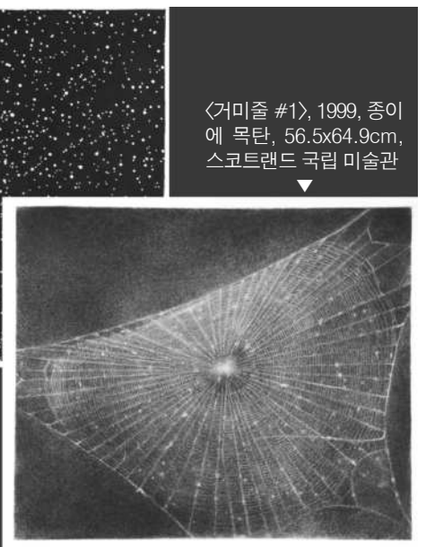
⑯ 비야 셀민스



비야 셀민스


〈바다〉, 1975, 종이에 리소그라프, 31.7x42.0cm, 테이트 미술관 (연필 드로잉 후 리소그라프 기법으로 종이에 인쇄)


〈별 하늘〉, 1981~2, 종이에 흑연, 48.2x68.5cm, 뉴욕 데이비드 맥키 미술관


〈거미줄 #1〉, 1999, 종이에 목탄, 56.5x64.9cm, 스코트랜드 국립 미술관

이 그림을 마주하고 있노라면, 조금 전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먹이를 찾아 선회하며 날던 갈매기 떼의 울음소리마저 잦아든, 어느 연안의 조용한 뱃전에서 어두운 바다 물결을 바라보는 듯하다. '긴 외다리로 서 있는 물새가 졸리운 옆 눈으로/ 맹하게 바라보네, 저물면서 더 빛나는 바다를' 어느 시인의 시가 절로 떠오른다. 종이에 그려진 크지 않은 이 그림에서 사람들은 가없는 바다의 넘실거리는 파도, 일렁이는 검은 물결, 깊어지는 어둠과 고요 그리고 물결과 마주한 자기 자신의 내면을 발견한다.

먼 발치에서 얼핏 사진처럼 보이는 이 작품은 연필로 그린 소묘작업이다. 굳이 분류하자면 이 그림은 풍경화이다. 일반적으로 풍경화는 전경, 중경, 그리고 후경의 요소를 지닌다. 바다 풍경을 예로 들자면 가까운 곳의 사람이나 해변의 사물들은 근경, 그리고 점점이 바다에 떠 있는 작은 배들이 중경이 될 것이고, 먼 곳의 수평선과 지는 노을 그리고 노을이 물든 구름 등은 후경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 그림은 전통적 풍경화는 아니다. 그녀는 단지 검은 바다의 물결만을 화폭에 담아 무채색으로 표현하였다.

발트해 연안에서 태어난 비야 셀민스(Vija Celmins, 1939~, 미국)는 라트비아 말로는 여성인 그녀를 '비야 첼미냐(Vija Celmiņa)'로 쓰는 것이 맞지만, 작가로서 생애의 대부분을 미국을 근거로 활동하였고 세미나, 인터뷰 등을 담은 대부분의 영상자료에서는 미국식 발음을 따라 '비야 셀민스' 또는 '비자 셀민스'로 불린다. 보통의 서유럽 국가나 우리 나라에서는 독특하게 생각되지만, 라트비아에서는 남성형 성씨와 여성형 성씨가 다르다. 같은 집안 사람이라도 남성은 '첼민스(Celmins)'로 표기하는 반면, 여성은 '첼미냐(Celmiņa)'로 표기한다. 이는 러시아도 마찬가지인데, 아버지의 성씨가 '파블로프'라면 딸의 경우 '파블로바'가 된다.

관객들은 사진보다 더 사실적으로 그린 이런 그림들을 보면서 감탄한다. 사람의 손으로 그렸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사실적인 인물화나 풍경화의 경우, 복잡한 현대 미술 이론을 늘어놓지 않더라도 즉각적으로 사람들에게 경탄은 물론 일종의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유형의 그림을 '포토 리얼리즘(Photorealism)'이라고 하여 미국에서는 1960년대 이후 새로운 미술 사조로 널리 알려졌다.

혹자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것이다. "실물과 똑같이 정확하게 그려내는 것이 그렇게 대단하다면, 그냥 카메라로 촬영하면 될 것 아닌가? 어차피 결과는 똑같은데." 이것은 정당한 질문이다. 또 이 질문 속에 바로 '포토 리얼리즘'이라는 미술 사조의 가능성에 대한 답이 들어 있기도 하다.

서양 미술사에서 17세기 이후 등장하는 네덜란드 초상화의 경우, 사실주의적 기법은 높은 수준에 달하여 기계로 촬영한 사진에 비해 거의 차이가 없는 정확한 비례, 음영, 세부묘사를 보여 주는 작품들도 적지 않다. 예술 작품의 평가 기준은 그 시대의 정신성을 반영하는 것이기에 당시의 그림들은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기법으로 높이 평가 받았다. 게다가 종교적, 정치적, 문화적, 역사적인 다양한 요소를 포함한 의미 내용을 담고 있어야 좋은 작품으로 평가 받을 수 있었다.

근대 이전에는 도제수업으로 상당한 테크닉을 익힌 화가들에게 조차, 실제 인물과 사물의 닮음을 구현하는 일은 고단한 작업이었다. 그러기에 19세기 카메라의 발명 이후 회화는 닮음을 목적으로 하는 재현과 사건의 꼼꼼한 기록의 기능을 사진에게 넘겨 주었다. 사물을 눈으로 보는 것과 흡사히 닮게 묘사하는 것은 이제 사진술의 영역이 됨으로써, 화가들은 다른 길을 모색하기로 결심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인상주의, 후기인상주의를 비롯한 현대 미술의 사조들이 나왔고, 그 흐름은 20세기 이후 동시대 미술의 다양한 실험적 모색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포토리얼리즘 회화는 또 다시 사진적 사실성을 담보로 우리의 시선에 충격을 준다. 사실상 관객의 놀라움은 닮음에 대한 것이라기 보다는 이토록 닮게 만들기 위해 가해진 손의 수고로움과 소요된 시간의 양 때문일 것이다. 포토리얼리즘의 표현은 극 사실주의를 따르는 듯하나, 그들이 의도하는 세계는 전혀 다른 것이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진의 기능을 일반 관객들이 무시하듯, 포토리얼리즘은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진 기능을 역설적으로 철저히 비웃으며, 그 너머의 다른 지점으로 관객들을 유도하고 있다. 그들은 눈에 비치는 사실성이 아니라, 보다 깊은 곳에 있는 의식의 출렁임을 보여 주고 싶은 것이다.

1938년 라트비아의 수도 리가(Riga)에서 태어난 셀민스는 어린 시절 내내 세계 2차대전의 참화를 겪었다. 1940년 소련이 라트비아를 침공하자, 그녀의 일가족은 소련군의 박해를 피해 독일로 피난을 가서 여러 난민 캠프들을 전전해야 했다. 2차대전이 끝난 후, 일가족은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아 미국의 인디애나폴리스로 이주한다. 최근 그녀의 인터뷰를 보면, 그 당시의 기억은 매우 오래 전 일이라 흐릿한 파편의 조각으로만 남아 있는 듯 하다. 그녀는 그저 날아 다니는 비행기들과 포탄이 떨어져 폭발하는 장면을 기억할 뿐이다. 기억은 흐려지나 상흔은 쉽게 아물지 않는 법이다.

셀민스는 2004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이 예술에 대해 지나치게 기대하는 것들 중 하나는 그 작품의 의미이고, 내 생각보다 사람들이 훨씬 더 빨리 작품에 대해 의미를 찾는 것 같다. 만약 내가 독재자라면, 그들을 묶어놓은 다음에 '이것을 눈으로 보세요, 그리고 다시 보세요, 그리고 또다시 보세요'라고 말하고 싶다." 그녀는 자신의 작품을 머리가 아닌, 감각과 가슴으로 보아주기를 바라고 있다. 감각을 통해 이성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존재의 저 깊은 곳에 직접 닿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이, 그녀로 하여금 작품을 위한 작업에서 오는 육체적 수고로움과 기나긴 시간을 감내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 그녀는 짧은 시간에 가능한 모든 것을 파악하여 붙잡으려는 현대인들이 가진 조급한 시선의 욕망에 대해 말하고 싶었는지 모른다.

어떤 관객들은 한 작품에 대해 합리적으로 설득력 있는 그럴듯한 설명을 구한다. 무엇을 표현한 것인가,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등, 논리적으로 설명 가능한 그 무엇을 원하며, 그것이 자신의 가치관, 세계관 그리고 심지어 사회적 위치와 정치적 입장을 통과한 '바른', '참다운', 그리고 '아름다운' 작품이기를 원한다.

그러나 하나의 예술작품이 바르고, 참다우며, 아름다운 것인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히틀러는 게르만 민족의 영광을 찬양하는 예술 외에는 '퇴폐 예술'이란 꼬리표를 달았다. 키르히너, 베크만처럼 오늘날 독일 현대미술의 대가로 칭송받는 예술가들도 당시에는 '퇴폐 예술'로 낙인 찍혀 비난 받던 시대였다.

평단에서 셀민스의 작품은 종종 독일을 대표하는 작가이자 포스트모더니즘의 거장 게르하르트 리히터(Gerhard Richter 1932~)의 '사진적 그림(The photographic painting)'과 더불어 언급되기도 한다. 리히터는 해골과 촛불이 그려진 희미한 작품으로 많은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그는 사물의 뚜렷한 경계선을 지움으로써 사진매체가 제시하는 단순한 재현성을 넘어 사진과 회화, 현실과 비현실, 재현과 표현, 복제와 재복제 간의 관계에 대한 사유를 이끌어낸다. 리히터의 작품세계는 사람들에게 알려진 몇몇 유명한 회화 작품 이외에도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참으로 다양하다. 근래에는 마치 5~60년대 미국 추상표현주의 미술을 연상시키는 액션 페인팅에 몰입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회화라는 매체를 재해석하고 확장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리히터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어떤 목표도, 어떤 체계도, 어떤 경향도 추구하지 않는다. 나는 어떤 강령도, 어떤 양식도, 어떤 방향도 갖고 있지 않다 …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일관성이 없고, 충성심도 없고, 수동적이다. 나는 무 규정적인 것을, 무 제약적인 것을 좋아한다. 나는 끝없는 불확실성을 좋아한다."

같은 시대에 비슷한 경험을 가진 예술가들은 유사한 공포와 혐오를 공유한다. 리히터와 셀민스는 동일한 시대를 살았던 예술가로, 둘 다 소련 공산주의와 독일의 나찌즘에 대한 불편한 기억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 리히터는 비록 작품에서는 표현하지 않지만 노골적으로 나찌 히틀러와 공산주의 스탈린을 비판했던 반면, 셀민스는 오롯이 예술에 몰입했다.

셀민스가 자신의 작품 세계를 표출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소묘(Drawing, 드로잉)는 전통적으로는 회화(Painting), 즉 칠을 해서 작품을 완성하기 위한 준비 단계의 부차적인 작업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 포토 리얼리즘이 예술 세계의 한 사조로 무대에 오른 이후, 소묘는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부차적 작업이 아니라 작가의 예술정신을 완성하기 위한 주된 도구 중 하나가 되었다.

소묘 작업에서는 연필 또는 목탄이 주로 사용되지만, 평면에 사람의 손길이 지나간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그 어떤 재료라도 무방하다. 미술에서 사용되는 가장 단순한 최소한의 도구이며 기법이 바로 소묘이다. 셀민스는 이 단순한 도구를 사용하여 무한한 밤하늘의 반짝이는 별들과 혜성을 그렸으며, 낯선 땅 미국 인디애나폴리스의 고독한 소녀 시절을 연상시키는 숲 속의 거미줄을 그렸고, 난민으로서 가족과 함께 대서양을 가로질러 미국으로 향하는 유년 시절인 어두운 바다의 물결을 그렸다.

셀민스의 그림은 조형적으로는 갇힌 평면과 열린 공간의 미묘한 긴장이다. 이를 통해서 그는 현존과 부재 사이에서의 역동적인 흔들림을 표현한다. 셀민스의 그림은 보는 이로 하여금, 인간은 무한한 실재로 채워진 현실과 종잇장처럼 가벼운 비현실의 경계에 놓여 있는 불확실한 존재임을 일깨워 준다.

흔들리는 뱃머리에서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두운 바다의 굽이치는 파도를 바라보는 나그네처럼, 사막에 두 발을 딛고 서서 가없는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는 조난자처럼, 거미가 떠나고 없는 낡은 거미줄과 같은 덧없는 인간의 삶을 되돌아보게 만든다. 더불어 어떠한 물결에도 휩쓸리지 않고 매번 솟구쳐 오르는 생에 대한 무한한 긍정을 발견하게 된다.

"지금은 가져오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 있는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해."

〈노인과 바다〉에 등장하는 늙은 어부 산티아고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봉우리와 골짜기가 없다면 산이 아니고, 바람에 이는 파도가 없다면 바다가 아닐 것이다. 천 개의 기쁨과 만 개의 슬픔이 없다면 살아있는 삶이 아닐 것이다. 삶이라는 바다에도 상처와 고통의 풍랑이 매 순간 일렁인다. 살면서 시련의 파도가 몰아칠 때면, 셀민스의 그림들을 그저 고요히 바라보고 마음 깊은 곳의 침묵을 마주하고 싶어진다.

사진촬영에 밀린 현대 리얼리즘 사조
내면 의식의 변화 조명하며 다시 부각

양 끝 어디에도 머물지 않으리니 중도(中道)엔들 어찌 안주하랴.
물이면 물, 산이면 산, 마음대로 쥐고 펴면서 저 물결 위 흰 갈매기의 한가로움 웃는다. 태고 보우(1301~1382) 선사 '어디에 머물리요(何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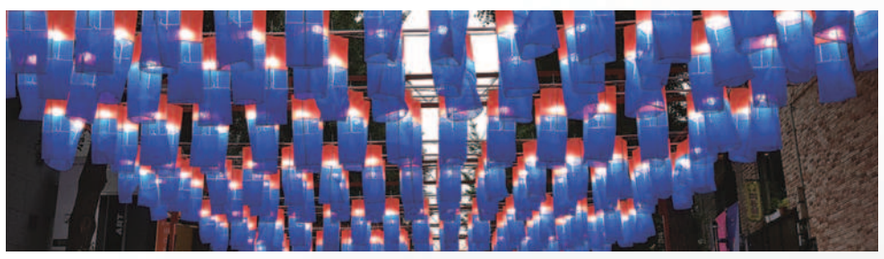
〈미술학자〉

불사용 장엄등 시공 • 임대

보련기획

장엄등을
대여해드립니다

설치에서 철거까지 책임 시공
행사특성에 맞는 다양한 연출
보관 · 사후관리 불필요




보련기획
BORYEON
010-5381-9355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

창백한 푸른 점에서 사는 우리



임종욱의
붓다와 마주한 인생독법

⑯ 인간은 자연보다 위대한가?



그림 · 박구원

별들과 함께 하는 신선의 고장, 남해

내가 남해에 정착한 지도 벌써 7년이 지났다. 오랜 도시 생활을 털어내고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나라 남해로 오니 달라지는 일이 많았다. 워낙 서울이라는 동네가 내겐 지옥과 다를 바 없어 한적하고 넉넉한 농촌으로 내려오면서 상대적으로 기대감은 컸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해도 욕망과 이익에 눈이 먼 종자들이 (많지는 않지만) 사는 세상인 줄 알게 되었다. 그래도 인정 많고 뭔가 나눠주는 데 인색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이 더불어 살아가기에, 잘 왔다는 생각을 의심한 적은 없다.

남해로 와서 나는 사람보다 더 값지고 귀한 존재를 쉽게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자연이었다. 아직 공해라든가 생활폐수, 쓰레기 따위가 이 지역을 갉아먹지는 않아 그야말로 남해는 청정한 해역과 깨끗한 공기를 마음껏 즐기고 마실 수 있다. 그리고 덤으로 주어지는 것이 밤 하늘이다.

나도 고향은 시골이다. 그래도 워낙 어린 시절 고향을 떠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보석처럼 빛나는 별들의 잔치를 넋 놓고 본 기억은 없다. 그리고 도시의 하늘은 인간들의 불빛이 더 휘황해 더러운 오물을 끼얹은 것보다 더 가혹한 상처로 신음하고 있다.

자정이 지나고 어둠이 차곡차곡 누리를 덮을 즈음 나와 본 남해의 하늘은 온갖 별들이 군무(群舞)를 추고 있었다. 처음에는 한동안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섬을 찾아온 나를 별들이 모여 잘 왔다며 환영해주는 기분이었다.

어릴 때부터 하늘에 관심이 많기는 했다. 무엇이 계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천문학은 묘하게 나를 끌어당겼다. 굳이 동기라면 칼 세이건(Carl Sagan, 1934-1996)이 책으로도 내고 영상으로도 만든 저서 〈코스모스(Cosmos)〉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그보다 먼저 읽은 책이 스티븐 와인버그(Steven Weinberg)의 〈처음 3분간(The First Three Minute)〉이니 〈코스모스〉는 기폭제 역할을 했던 듯하다.

어쨌건 책으로나 읽고 브라운관으로만 본 우주(宇宙), 그 거대한 하늘이 남해에는 잔치상처럼 번듯하게 차려져 있었던 것이다. 나는 밤이면 거의 매일 옥상에 올라가, 어떤 때는 몇 시간이고 하늘을 보며 누워있곤 했다. 시력이 안 좋은 나는 처음엔 고배율 망원경을 샀는데, 이것으로는 우주를 관찰할 수 없어 천체 망원경을 장만해야겠다는 통 큰 야망까지 품게 되었다.

그런데 쓸 만한 천체 망원경의 가격이 내 주머니 사정을 가볍게 비웃는다는 사실을 깨닫자 야망은 쉽게 접혔다. 유튜브를 통해 우주에 관한 동영상을 접하는 것으로 만족하지만, 아직도 야망은 내 가슴속에서 스러지지 않았다.

우주란 얼마나 무한히 넓은지 인간이 가진 척도로는 실감하기가 쉽지 않다. 빅뱅(BigBang) 이후 끊임없이 팽창한 우주의 넓이는 대략 반지름이 140억 광년(光年)이라고 한다. 우리가 관측 가능한 가장 멀리서 온 빛이 이 정도 거리이기 때문이라는데, 그 시간 동안 우주는 더욱 빠른 속도로 넓어졌으니, 실제로는 700억 광년도 더 될 것이다. 태양계의 끝과 끝 길이가 1광년도 안 되니, 우주의 무한성은 짐작조차 거부한다.

이 광대한 우주 안에 우리가 사는 작은 땅 지구(地球)는 티끌 만한 존재감도 가지지 못한다. 그리고 그 지구 안에서 제왕인 양 군림하려는 인간은 또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가? 우주로 볼 때 지구는 우리가 보는 원자의 크기만도 못할 터이니, 우주를 알면 알수록 지극히 겸손해진다는 천문학자의 말이 공염불 같지는 않다.

일개 중생인 나도 대자연의 종화 우주 앞에 서면 겸허해지는데, 옛 성현들에게 우주는 어떤 의미였을까? 신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미신(?)은 믿고 싶은 사람이나 믿으라 두고, 성현들의 우주 인식이 꽤나 궁금해지기도 한다.

우주와 인간이 공존하는 불교의 상상공간

지구상에 출현한 문명들은 저마다 이 세상의 구성에 대해 이런저런 상상을 펼쳤다. 눈으로만 세상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시기를 아주 길게 살았으니, 그런 상상의 소산이 과학과 배치되기는 했다. 그래도 눈으로 본 세상이 완전 허구는 아니어서 때로 흥미롭게 살펴볼 부분도 있다.

불교는 우주를 어떻게 인식했을까? 불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했으니, 부처님이 말한 우주는 무엇이었을까? 안타깝지만 부처님은 우주 자체보다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중생(衆生)들의 삶과 깨달음에 설법을 집중했다. 그래서 경전을 열심히 뒤져봐도 그런 궁금증이 시원하게 해소되지는 않는다고 한다.

불교는 우주의 생성 원리를 업(業, Karma)으로 설명한다. 이 업이 사람을 질곡하면서 삼라만상 우주가 전개된다는 것이다. 그 형식을 삼악도(三惡道)와 삼선도(三善道)로 나눠 설명하는데, 지옥과 아귀, 축생이 삼악도이고, 수라, 인(人), 천(天)을 삼선도라고 부른다.

이 업력(業力)이 작동하면서 수미산(須彌山)이 솟게 되고, 주변에 여덟 바다가 펼쳐지며, 바깥 바다에서는 사대주(四大洲)가 자리하는데, 그 중 인간이 사는 세계인 지구는 남쪽 섬부주(贍部洲)에 있다.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와 달, 그리고 별들이 순행한다는 것이다.

이런 귀여운 상상력의 소산이 지금은 허무맹랑할지도 모르겠지만, 은유적으로 이해하면 우주의 실체와 완전히 동떨어졌다고 폄하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수미산 우주가 항존(恒存)하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을 두고 변화한다는 사실이다.

불교 · 우주생성 '업'으로 설명
생멸의 과정 교리에 담아
유교는 우주 사유 여가 없어

우주는 생성하고 소멸한다. 그 변화의 기간을 겁(劫, Kalpa)이라 하고, 네 가지, 즉 성(成), 주(住), 괴(壞), 공(空)의 과정을 밟는다고 한다. 우주가 생성되는 성겁(成劫)과 정적으로 존재하는 주겁(住劫), 그리고 붕괴되는 괴겁(壞劫), 오직 무(無)만 존재하는 공겁(空劫)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런 과정은 한 차례에 그치지 않고 무한히 반복된다고 불교는 인식한다.

이런 사고는 흥미롭게도 현대 천문학의 우주 인식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 우주는 무한히 팽창만 하는 것이 아니다. 앞에서 소개한 책 〈처음 3분간〉은 빅뱅 이후 3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해설한 것인데, 이것은 불교의 '성겁'에 해당된다는 느낌이다. 그리고 팽창을 계속하는 현재는 '주겁'이다. 그런데 천문학은 우주가 팽창하다 언젠가는 수축으로 방향을 틀지도 모른다고 추측한다. 그런 때가 오면 이는 '괴겁'이 아닐까? 그런 뒤 우주는 작은 점, 빅뱅 이전으로 환원된다는데, '공겁'의 시기라 할 수 있겠다.

불교의 사유 체계와 현대 물리학의 이론들에서 유사점을 찾아내는 서적은 꽤 많이 나왔다. 어느 종교처럼 경전을 신주단지 모시듯 맹신해 우주가 6천여 년 전에 창조되었다는 궤변을 불교는 늘어놓지 않는다. 합리적 사유와 반성적 모색을 거쳐 인간의 실존과 우주의 근원을 찾아나간다. 이런 점에서도 불교는 내게 정말 매혹적이다.

자연을 수양의 도구로 인식했던 유교

그렇다면 공자는 이 우주자연을 어떻게 보았을까? 공자의 언행록인 〈논어〉에는 우주에 대한 이렇다 할 발언이 없다. 논어 원문에는 우(宇)와 주(宙)라는 글자조차 나오지 않는다. (물론 우리가 이해하는 '우주'와 공자 시대의 '우주'는 다르다.) 천지(天地)라는 단어도 없고, 다만 천명(天命), 천하(天下)라는 용어만 눈에 띈다.

공자는 사람이 수양을 해서 도(道)를 체득해 완전한 인격을 갖춘 군자(君子), 그리고 더 나아가 성인(聖人)이 되기를 기대했다. 그런 수양의 필요조건으로 산수자연이 거론되는데, 강호가도(江湖歌道)나 풍호무우(風乎舞雩) 등과 같은 자세가 자연을 수양의 도구로 본 예라 할 수 있다.

공자는 어쨌거나 지독한 현실주의자여서 제자들이 현실과는 무관한 질문을 하면 회피하기 일쑤였다. 〈논어〉 선진편(先進篇)에 실린 이런 문답이 대표적이다.

계로가 귀신은 어 게 섬기느냐고 물으니 스승께서 대답하셨다. "산 사람도 제대로 삼기지 못하는데, 어찌 귀신을 섬길 수 있겠느냐." 그러자 계로가 다시 여쭈었다. "감히 죽음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스승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삶도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느냐."(季路問事鬼神 子曰 未能事人 焉能事鬼 曰敢問死 曰未知生 焉知死)

이렇게 귀신이나 죽음 같은 대상에 대해서도 외면했던 공자가 (공자가 몰라서 피한 것은 아니겠지만) 우주와 같은 망망한 세상에 대해 사유할 여가는 없었을 것 같다. 물론 공자도 천재지변이라는 측면에서 천문 현상을 주목하긴 했지만, 인간 중심이기는 마찬가지겠다.

다시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로 돌아가자. 이 10부작 다큐멘터리를 본 사람이라면 결코 잊을 수 없는 학자인 그는 백혈병으로 고작 63살의 생애만 살고 우리와 이별했다. 그는 인류에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겸손을 배울 것을 권하면서 많은 책을 냈지만, 내가 근래 읽고 있는 책은 〈창백한 푸른 점(Pale Blue Dot)〉이다.

미국 나사(NASA)는 태양계 외곽을 탐색하고자 1977년 9월 5일 보이저 1호를 발사했다. 그 탐사선이 목성과 토성, 천왕성, 해왕성 등등을 거치면서 무수한 자료를 보낸 뒤, 칼 세이건은 탐사선의 카메라를 지구 쪽으로 돌려 우리가 사는 유일한 장소, 지구를 찍어보자고 제안했다. 몇 차례 반대가 있었지만, 결국 1990년 2월에 보이저 1호는 카메라를 지구를 향해 돌렸고, 우리들에게 가장 먼 곳에서 본 우리의 지구 사진을 보냈다.

사진 속에서 지구는 눈에 잘 띠지도 않는 '창백한 푸른 점' 일 뿐이었다. 그 바늘의 끝보다도 작은 지구에서 인간은 서로 죽이고 다투고 이간질한다. 나아가 유일한 터전 지구를 괴롭히기까지 한다. 칼 세이건은 이 책에서 이런 명언을 남겼다.

"……지구는 광대한 우주의 무대 속에서 하나의 극히 작은 무대에 지나지 않는다. 이 조그만 점의 한 구석의 일시적 지배자가 되려고 장군이나 황제들이 흐르게 했던 유혈의 강을 생각해 보라. 또 이 점의 어느 한 구석의 주민들이 거의 구별할 수 없는 다른 한 구석의 주민들에게 자행했던 무수한 잔인한 행위들, 그들은 얼마나 빈번하게 오해를 했고, 서로 죽이려고 얼마나 날뛰고, 얼마나 지독하게 서로를 미워했던가 생각해 보라.……"(칼 세이건 저, 현정준 역 〈창백한 푸른 점〉 26-27쪽, 사이언스북스, 2019년판)

〈소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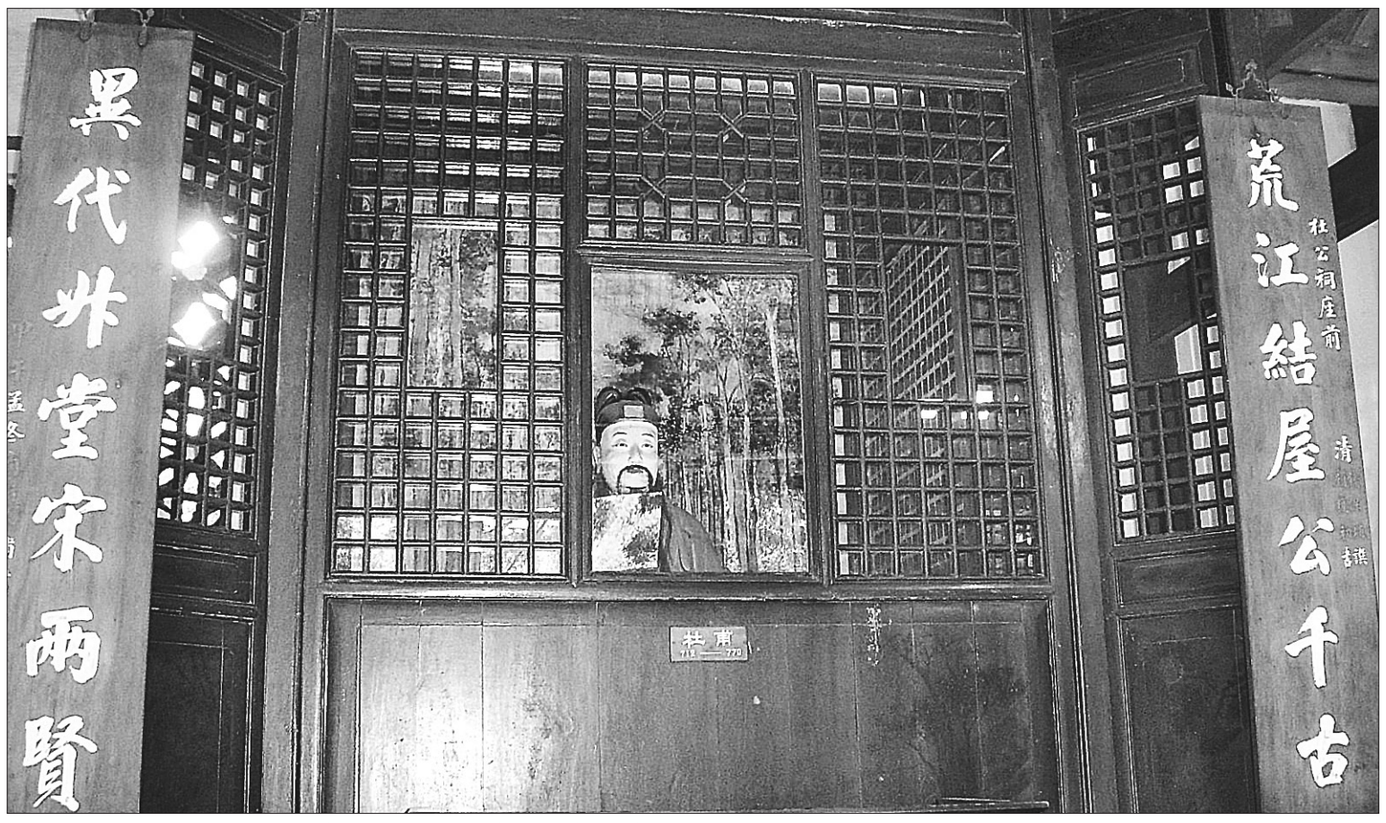


禪사상 詩 통해 세상에 보이다



정운 스님의
禪의 르네상스 이끈 선지식들

⑯ 禪 르네상스 이끈 문인 · 유학자



중국 쓰촨성 성도에 위치한 두보초당. 그는 선에서 삶의 진지함을 찾으려 노력했다.

앞선 연재서 백낙천(白居易, 772~846)을 언급했었다. 낙천은 당대(唐代) 문장가로 젊을 때는 선을 하였고, 나이 들어서는 정토를 신봉했다. 이처럼 낙천과 비슷한 시대에 재가불자 중에는 선과 시 모두 조예가 깊은 이들이 많았다. 곧 두보 · 이하 · 왕유 등인데, 이들은 불교적인 관점에서 많은 선시를 남겼다.

당시(唐詩)는 중국문학사상 최고 수준이요, 문학사에서 찬사를 받는다. 중국의 역사학자이자 문화평론가인 위치우위(余秋雨, 1946~)는 세계적인 작가이다. 중국에서 그의 서적 해적판이 넘쳐날 정도이고, 우리나라에도 그의 책이 몇 권 번역되어 있다. 위치우위는 문화대혁명(1967~1976) 당시 혹독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다른 나라로 망명하지 않았다. 그는 당시를 매우 자랑스러워했는데, 자국에서 당시를 읽어야 한다는 지론을 갖고 있어서다. 이렇게 시가 발달한 즈음, 유학자들도 선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때 발표된 시와 문학에는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개인의 자유가 녹아져 있다. 선과 시의 접점을 찾은 몇 인물을 만나보자.

이하(李賀, 790~816)는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 귀재(鬼才)로 불리었는데, 요절하였다. 그의 시에는 〈능가경〉과의 접목된 사상이 드러나 있다.

두보(杜甫, 712~770)는 안록산의 난을 겪으면서도 선사들과 교류가 있었다. 그의 선시 2편을 보자.

몸은 쌍봉사에 맡기고, 문은 7조의 선을 추구하네.
돛을 내리고 옛날의 생각을 따라 거친 베옷을 입고
부처님의 참된 진리를 추구한다네.

허 씨는 일찍이 오대산에서 불교를 배운 사람으로
그의 고결한 수행은 분주의 석벽곡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네.
나도 일찍이 승찬과 혜가의 선을 배웠지만,
나는 여전히 선적(禪寂)에 집착해 있을 뿐이라네.

전자의 시 구절에서 7조는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가 없다. 또한 후자의 시에도 두보는 선사들과 교류하며 선을 추구했는데, 선의 고요함에 관념 두고 있는 자신을 비판하고 있다. 두보는 선을 통해 삶의 진지함을 찾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왕유(王維, 700~761)는 스스로 '왕마힐(王摩詰)'이라고 자처했는데, 자를 마힐이라 한 것도 〈유마힐경(維摩詰經)〉에서 따왔다. 그는 이 경을 독송하고, 문학 작품 속에 경의 내용을 적용시켰다. 그의 어머니는 대통 신수(大通神秀, 606~706)와 의복(義福)을 30여 년 모신 신심 깊은 불자였고, 왕유 또한 선사들과 교류하며 선사들의 비문을 써주었다. 왕유는 북종 계통의 〈능사사자기〉의 편자인 정각(淨覺, 683~750(?))의 비문을 써주기도 하였고, 남종의 대표 선사인 혜능의 '육조능선사비명(六祖能禪師碑銘)'을 써주었다.



한유의 동상. 그는 배불론자였지만 선을 통해 자신의 유교사상을 펼쳤다.

왕유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 사찰에 다녀 불심이 깊었고, 9세 때부터 시를 지을 정도로 총명했다. 그는 21세에 진사 합격을 시작으로 벼슬길에 들어섰다. 안록산의 난 때 반군 포로가 되어 곤욕을 치렀지만 그의 관료생활은 비교적 평탄해 상서우승(尙書右丞)에 이르렀다. 후에 그의 이름 대신 '왕우승(王右丞)'이라 부르게 된 것도 그의 벼슬 때문이다.

당대 禪 · 詩 조예 깊은 학자 많아
두보 · 이하 · 왕유 · 이고 등 대표적
육조 비문 쓴 왕유 '詩佛'로 칭송
인간 긍정 사상 풍조로 이끌어

그는 31세에 부인과 사별한 후 재혼하지 않고 평생 홀로 살았다. 성품이 고요하고 한적한 것을 좋아했는데 병약한 어머니를 위해 장안에서 멀지 않은 종남산(終南山)에 '망천장(輞川莊)'이라는 별장을 짓고 운치 있는 생활을 즐겼다. 모친이 세상을 떠나자, 별장 망천장을 선사에게 보시하였다.

왕유는 초현실의 세계에서 노닌 인물로서 선이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다. 왕유는 자연을 주제로 한 서정 시인이요, 화가로 한 시대 이름을 날렸다. 그의 작품에는 무심(無生) · 도심(道心) · 공문(空門) · 야선(夜禪) 등 선사상과 부합되는 용어들이 많이 있어 후대에 그를 '시불(詩佛)'이라고 불렀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당대는 인간 중심의 자유를 갈구하는 선이 발달되었다. 이 점은 유교에 영향을 끼쳐 새로운 사상으로 발전되는 시발점이 되었다. 전통적인 사유에 길들여진 지식인들도 불교의 철리(哲理)에 가까운 그들의 합리주의를 근거로 새로운 사상을 정립하기 시작했다. 당시 대표적인 유학자들이 한유 · 유종원 · 이고 등이다.

한유(韓愈, 768~824)는 유명한 논문 〈오원(五原)〉을 남겼다. 오원이란 원도(原道) · 원성(原性) · 원훼(原毁) · 원인(原人) · 원귀(原鬼)이다. 〈오원〉은 모두 근원적인 인간의 이상을 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도(原道)는 인간 본연의 모습을 더듬어 밝힌다는 뜻이며, 원성(原性)은 본질적인 인간성 탐구를 의미한다. 한유는 공자 · 맹자 이후 훈고의 학문으로 떨어진 유학 사상을 인간의 학문으로 재정립시켰다. 이런 토대 위에서 한유는 "인간은 누구라도 학문과 수행을 쌓으면 반드시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유는 선사상을 토대로 자신의 유학사상을 전개했지만, 불교를 비판했던 배불론자이다.

유종원(柳宗元, 779~831)은 한유의 배불론(排佛論)과는 다르게 불교를 존중하고 불사를 기록하거나 승려들의 비문을 많이 남긴 유학자이다.

이고(李翺, ?~844)는 한유의 문인으로 그에게 깊은 영향을 받았다. 이고는 처음에 불교를 비판하려 했으나 경전을 보고 감탄하여 〈복성서(復性書)〉를 남겼다. 그의 사상은 유언불의(儒言佛意)로 유교에 새로운 뜻을 열었다. 〈복성서〉의 내용은 본심 · 본성으로 돌아가는 '반본환원' 사상이다. 그의 이런 사상은 송대 유학의 복성복초설(復性復初說)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한유의 원도(原道)가 철학적이고 이론적인 반면, 이고의 〈복성서〉는 실천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유학의 입장에서 새로운 인간학을 제창하였다는 점이다. 이고는 유학자 신분이지만, 한유와는 정반대로 불교에서 마음의 심요를 찾았다. 선사들과도 인연이 깊은데, 몇 기연(機緣)을 보기로 하자.

이고는 오래전부터 약산 유엄(藥山惟儼, 751~834)의 명성을 듣고 있던 차, 서신을 통해 마을로 내려와 법문해주기를 청했다. 선사가 이고의 간곡한 청을 들어주지 않자, 결국 이고가 약산을 직접 찾아갔다. 마침 이때 약산이 경전을 읽고 있었다. 시자가 달려와 이고의 내방을 알렸지만, 선사는 들은 척도 않고 경전을 읽었다. 기분이 상한 이고는 발길을 돌리면서 선사에게 말했다.

"얼굴을 보니, 천 리 소문만 못하군요!"
"어째서 귀만 소중히 여기고 눈은 천하게 여기십니까?"
이고는 감정을 진정시키고 물었다. "선사님, 도란 무엇입니까?"
선사가 손으로 위를 한번 가리키고, 다시 아래를 가리키며 물었다.
"아시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고개를 들든 수그리든 숨길 것이 없음이요, 구름은 하늘에 있고 물은 병속에 있네.(低頭仰面無藏處 雲在靑天水在甁)"

–〈전당문 336〉

이고는 약산의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그 뜻을 알아채고, 선사에게 예를 올리며 게송을 지어 바쳤다.

"수행하신 풍채는 학과 같고, 천 그루 소나무 아래 두 상자의 경(經)이로다.
내가 와서 도를 물으니 다른 말은 없고, '구름은 하늘에 있고 물은 병에 있다'고 하시네.(鍊得身形似鶴形 千株松下兩函經 我來聞道無餘說 雲在靑天水在甁)"

–〈전당문336〉

이고는 약산을 참문하고 마음을 깨친 후 선사의 유발상좌가 되었다. 한번은 이고가 남전 보원(南泉普願, 748~834)을 찾아가 물었다.

"옛날 어떤 사람이 병속에 병아리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병아리가 점점 커서 마침내 병에서 꺼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병을 깨뜨리지도 않고, 병아리를 다치게 하지 않게 하려면, 어찌해야 합니까? 스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갑자기 남전이 장관을 불렀다. "장관!"
이고는 엉겁결에 "예"하고 답을 했다.
"야, 나왔다."

–〈전등록〉

앞에서 본대로 문인들은 선의 인간중심과 자유사상에 영향을 받아 수많은 선시를 남겼고, 유학자들도 불교를 비판하기 보다는 선의 영향을 받아 유교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즉 당나라 때의 선은 육조(六朝) 이래 귀족사회의 전통과 권위주의 혹은 형식주의에 사로잡혀 있던 문화를 인간 긍정의 사상 풍조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것이 송나라 이후의 문학과 철학의 바탕이 된다.

〈조계종 불학연구소장〉

수 없이 봤지만 대부분의 사찰들이

수 천번 평생쓰는 음향시설을 서투른 지역음향에 시설을 맡김으로 가격도 비싸지만 염불정서와 전혀 맞지 않아 (1)스트레스 (2)성대질환 (3)하자보수로 이중고를 겪습니다.

원톱시스템이란? 시설 전에 간단한 견본으로 법당에서 기존 시설과 비교를 해보실 때 장난감같은 놀라운 소리의 차이를 확인하신 후 시설을 맡기시면 한 번에 하자없는 최고의 시설로 평생해야 되는 염불인생에 후회가 없다는 뜻입니다.

▣ 설악 신흥사 및 토굴까지 일천여곳 형편따라 소리공학 맞춤시공 (방문시 명단제공)

▣ 오직! 마이크 하나만 바꿈에도 **확!** 달라지는 소리체험 후 마이크 구입 가능

▣ 본품은 시중에 없음... 있을시는 일천만원 포상(이 글은 법적증서)

▣ 사찰 전체음향 시설비는 일백구십만원~이백구십만원~삼백구십만원 ▣ 장기할부 가능

▣ 앰프1, 스피커 4개, LG오디오 1개, USB, 무선마이크 종류별로 4개, 유선마이크 1개(스탠드 포함) 완벽시설까지 390만원이면 명산대찰 수억대의 시설보다 염불소리가 확실히 월등함.
※ 각종 마이크, 방송장비 및 방생용 구경!

▣ **상담 구경 조건으로** : 055-343-1191, 010-9471-2026, 010-7740-2026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하이텍사운드전자** 대표 박 공 희(명품소리훈련원 원장)

불기2563년 대한불교대승종

봉 **종도수련 대법회** 행

귀의삼보하옵고,
존경하는 대승종도 여러분! 종단의 위상과 종도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종헌종법의 교육원법 제1조 연수원법 제2조 승니법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기 종도수련 대법회를 봉행하오니 필히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일 시 : **불기 2563(2019)년 09월 30일(월) 13시 – 10월 02일(수) 12시**
◆ 준비물 : 가사, 장삼, 발우, 목탁, 요령, 필기구, 개인 세면도구 등
◆ 장 소 : 서울시 도봉구 도봉산길 89 천년고찰 도봉사 02-954-1113
◆ 접수 및 문의 : 대한불교대승종 총 무 원 **055)253-1074**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장 **010-4518-3247**
◆ 후 원 : 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 · 대승종 중앙 종의회 · 대승종 교구종무원

※ 합당한 사유없이 불참시는 교육원법 제6조에 의거 법계고시 및 종단임직에 제한 될 수 있음을 양지 바랍니다.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장 법기 무여 합장

'못 깨달은 부처'와 '깨달은 중생'



新 불교사자성어

㉛ 실유불성(悉有佛性)

실유불성(悉有佛性), 일체 중생은 누구나 다 불성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불성' 이란 곧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성불할 수 있는 바탕 · 자질 · 속성 · 가능성 등을 말한다. 이것을 ' 불성사상 '이라고 하는데, 중국 · 한국 · 일본 등 대승불교권에서는 성불의 철학적 · 사상적 바탕이 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말이다.

불교에서는 남녀노소 누구나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자질이나 바탕을 갖고 있다고 본다. 실유불성은 대승경전의 하나인 〈열반경〉에 있는 사자성어로, 구체적으로는 '일체중생 실유불성(悉有佛性)' 이다. '일체 중생은 모두 불성을 갖고 있다' 는 뜻이다. '실(悉, 모두)' 자 대신 '개(皆, 모두)' 자를 써서 ' 개유불성 '이라고 하기도 한다.

중생은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 일체중생, 실유불성 ' 사상은 불교사상사(佛敎思想史)에서도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여러 종교 가운데서 오직 불교에만 있는 진리로서 많은 중생들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을 주는 사상이다. 지금은 비록 중생으로서 미혹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본질은 깨달은 부처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누구나 다 불성을 갖고 있다하더라도, 깨닫기 위하여 노력, 수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다음은 〈열반경〉의 내용인데 필자가 조금 문장을 정리한 것이다.

"그대들은 지금까지 듣지 못한 것을 듣게 될 것이다. 어떤 것이 듣지 못한 것인가. 그것은 곧 여래의 비밀한 법장(法藏 · 여래장, 불성)이니라. 즉 일체 중생은 모두 다 불성을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불법승에 차별이 없느니라. 여래의 비밀한 법장은 참으로 영원한 것[常]이고, 참다운 낙[樂]이고, 참다운 나[我]이고, 번뇌에 물들지 않은 참다운 청정[淨]함이니라."

이에 대하여 사자후보살이 의문이 생겨서 부처님께 질문했다.

"세존이시여, 누구에게나 다 불성이 있다면, 굳이 중생들이 도를 닦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중생에게는 누구나 다 불성이 있으나 번뇌에 가려서 볼 수가 없을 뿐이니, 번뇌를 제거하면 불성을 보게 되느니라."

이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면, 불성은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같고 번뇌는 구름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구름이 태양을 가리면 햇빛이 없는 흐린 날이 되지만 구름이 걷히면 태양은 원래의 성질대로 빛을 바깥으로 방출한다. 구름에 가려 태양이 보이지 않는 것은 불성이 있으나 번뇌에 가려 볼 수 없는 것이고, 구름이 걷혀 빛나는 태양이 보이는 것은 번뇌가 제거되어 불성을 보게 되는 것이다.

중국과 한국 선불교에서는 〈열반경〉의 법문을 절대적인 근거로 삼아서 '일체중생' 을 인간에 한정시키지 않고 미물에 까지 확장시켜서, '준동함령 개유불성(蠢動含靈 皆有佛性)' 이라고 하기에 이르렀다. 미물을 비롯한 모든 움직이는 생명체(蠢動含靈)에는 모두 불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아직은 깨달음을 발현시키지 못한 미혹 속에 있는 중생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불성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므로 무시할 수가 없다.

이와 같이 일체중생에게는 모두 불성이 있지만, 정진과 수행을 통하여 그 불성을 개발, 완성시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부처가 될 수 있는 자질이나 바탕을 갖고만 있는 존재에 불과한 것이다. 금광에 원석이 많이 있지만 제련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같다.

이것을 본래성불사상(본래는 깨달은 부처라는 뜻), 본각사상(본래적으로는 깨달아 있다는 말)이라고도 하는데, 간혹은 이 말을 착각하여 노력, 수행도 하지 않고서 '깨달은 부처' 라고 하는 사람, 깨닫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다. 그런 철학이나 진리는 없다.

문제는 올바른 수행을 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비불교적인 수행은 100년을 해도 깨달을 수가 없다. 자기 자신은 분명 백두산으로 간다고 믿고 갔는데 도착해 보니 묘향산 정상인 것과 같다. 일체중생 실유불성이지만 그 불성을 개발하여 완성시키지 못하면 미혹 속에서 살아가는 중생에 지나지 않는다. 부처와 중생의 차이는 불성을 발현시킨 자(부처)와 발현시키지 못한 자(중생)의 차이일 뿐이다. 우리는 '깨닫지 못한 부처' 이다. 그리고 부처는 '깨달은 중생' 이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

바람 불 때 불 붙였기 때문



격절록 강설

㉛ 흠산수권 2

[評唱 2]

雪竇因風吹火 用力不多. 乃竪起拳頭云 "握則為拳 有高有下" 復開云 "開則成掌 無黨無偏" 且道 放開為人好 把定為人好. 開也造車 握也合轍 若謂閉門造車 出門合轍 我也知你向鬼窟裏作活計" 古人為此事 如是故 故如此. 且道 是如何.

설두는 바람이 불 때를 이용해서 불을 붙였기 때문에(因風吹火) 많은 힘을 쓰지 않았다. 그래서 주먹을 세우고 말하기를 "쥐면 주먹이 되니, 높음도 있고 낮음도 있다"고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는 다시 (주먹을) 펴고는 말하기를 "펴면 손바닥이 되니, 편파적인 것도 없고 치우친 것도 없다. 자, 말해보라! 펴는 것이 사람을 위한 것인가, 쥐는 것이 사람을 위한 것인가? 손을 펴고 수레를 만들어도 주먹은 수레 바퀴자국에 맞는다. (하지만) 만약 문을 닫고 수레를 만들어도 문을 나서면 수레 바퀴자국에 맞는다고 한다면 나 역시 그대들이 귀신굴속에서 활발하게 계교부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고 하였던 것이다.

고인이 이 일(此事, 일단대사=일대사인연)을 위한 것이 이와(此) 같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했던 것이다. 자, 말해보라! 이것은 어떤 것인가?

古人同條生則是一 為什麼却如此不同. 諸人無事 試翻覆參詳看. 是什麼道理. 若是箇漢 一覷便知 其或擬議 便隔千山萬水 了沒交涉也.

고인이 같은 가지에서 나왔다면 같아야 할 것인데, 어째서 이와 같이 같지 않은 것인가? 대중은 별일 없으면(無事) 시험 삼아 이를 뒤집어서 참구하고 상세히 살펴보라! 이것이 무슨 도리인가? 만약 이러한 사람(是箇漢)이라면 한 번 보면 바로 알겠지만, 혹 머뭇거리면 바로 천산만수(千山萬水)로 그 간격이 벌어져 전혀 관계없게 될 것이다.

❋인풍취화(因風吹火)와 관련해서 〈전등록〉 제13권 '여주 풍혈 연소 선사' 편에 다음과 같이 전한다.

僧問 "如何是臨機一句" 師曰 "因風吹火 用力不多"

어떤 스님이 물었다.

"어떤 것이 임기일구(臨機一句)입니까?"

풍혈이 말했다.

"바람이 불 때를 이용해 불을 붙이면 힘을 쓰는 것이 많지 않아도 된다."

❋'同條生' 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전한다(〈선문염송집〉 810칙 참조)

(중략) 僧至夏末 再擧前話 請益 頭云 "何不早問" 僧云 "未敢容易" 頭云 "雪峰雖與我同條生 不與我同條死 要識末後句 只這是"

(중략) 어떤 스님이 여름 안거가 끝나는 날에 이르러, 다시 앞의 이야기를 들어 청익을 했다.

암두가 말했다.

"어째서 일찍 묻지 않았는가?"

스님이 말했다.

"(묻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암두가 말했다.

"설봉이 비록 나와 같은 가지에서 났지만, 나와 같이 죽지는 않는다. 말후구를 알고자 하는가? 다만 이것뿐이다."

❋千山萬水(천산만수): 수없이 많은 산과 물이라는 뜻으로, 깊은 산속을 이르는 말. 여기서는 산을 넘고 물을 건널 만큼 그 간격이 벌어진다는 뜻이다.

❋본칙 흠산수권화는 〈전등록〉 17권과 〈선문염송집〉(N. 914)에도 수록되어 있으니 참조하기 바란다.

〈강승욱 법사〉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㉛ 이해의 길 11

無我, 자유와 사랑의 길

실존주의 철학자인 사르트르는 "사물은 본질을 갖추고 있는 '존재(存在)' 이지만, 인간은 본질을 스스로 창조하기 때문에 '무(無)' 다"고 하였다. 쉽게 말하면 의자는 앉을 수 있고 칼은 무언가를 자르며 휴대폰은 전화하는 데 쓴다는 본질이 정해져있지만, 인간은 어제는 나쁜 사람이었지만 오늘은 착한 사람으로 자신의 본질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인간은 정해진 본질(我)이 없기(無) 때문이다. 물론 그는 스스로의 본질을 만들어가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그리고 있지만, 본질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불교의 무아적 사유를 살짝 엿볼 수 있다.

무아란 글자 그대로 자아(自我)가 없다는 뜻이다. 자아란 자기동일성이나 정체성, 본질 등 여러 표현으로 쓰인다. '나' 라는 존재는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동일한 자기의 모습을 유지한다는 뜻이다. 예컨대 이일야가 어제 부산 해운대에 있든, 오늘 서울 종로에 있든 같은 인물이라는 것이다. 가까운 이웃을 낯선 곳에서 우연히 마주치더라도 서로 알아보고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는 너무도 당연한 일인데, 붓다는 심하게 태클을 걸었다. 왜냐하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는 여러 연기적인 조건들이 모여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하나의 의자가 만들어지기까지 나무라는 재료도 있고 나무를 자른 사람의 땀방울, 그리고 나무를 잘 자라게 해준 햇빛과 구름, 비 등 많은 요소들이 연기적으로 얽혀있다. 이처럼 모든 사물은 여러 인연들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무엇' 이라고 고집할만한 실체가 없다는 것이다. 무아는 곧 연기의 공간적 관찰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를 현실과 연결시키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온다. 스마트폰을 인류에 처음 소개한 스티브 잡스는 "우리가 아이패드를 만든 것은 애플이 항상 기술과 인문학의 갈림길에서 고민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였다.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는 스마트폰의 탄생은 기술의 비약적 발전뿐만 아니라 '무아' 라는 인문학적 사유가 결합된 성과물이다. 스마트폰은 그 기능이 아무리 다양하더라도 본질은 '전화를 하는 데 쓰는' 것이다. 텔레비전이나 카메라, 신용카드 등과는 완전히 다른 본질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스마트폰은 '전화를 하는 데 쓰는' 자아(我)를 해체(無)하고 본질이 전혀 다른 존재들을 담았다. 전화기라는 자아에 집착했더라면 결코 이룰 수 없는 성과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무아는 자유롭고 창조적인 사유가 나오는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무아적 사유를 인간에게 적용하면 그 의미는 더욱 커진다. 지금도 나의 자형은 해마다 오래 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산소에 벌초를 하러 온다. 나는 그 이유를 무아에서 찾았다. 자형은 아버지를 장인(我)이 아니라(無) 친부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장인은 '아내의 아버지' 라는 본질을 갖고 사위는 '딸의 남편' 이라는 자아를 갖는다. 연기적 관점에서 아내, 혹은 아내의 아버지가 없다면 장인이라는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매형과 아버지는 '아내의 아버지' , '딸의 남편' 이라는 본질을 해체해버렸다. 그 결과 두 분은 장인과 사위의 관계에서 벗어나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새로운 관계로 질적 변화를 이루었다. 자아에 집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사랑이 깊어지는 관계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자아는 무상과 마찬가지로 사랑이 나오는 원천이다.

그런데 불교에서 부정하는 것은 자아가 아니라 자아에 대한 집착이라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아에 대해 집착을 하면, 자유로운 사유와 사랑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은 식당에서 급식을 하기 때문에 보기 힘들지만 수업시간에 책상은 책을 펼쳐놓고 공부하는 본질을 갖지만, 점심시간에는 밥과 반찬을 차리는 밥상으로 변신을 한다. 일종의 '자아와 무아의 동거' 인 셈이다. 아버지들의 로망인 자식과 친구처럼 술 한 잔 나누는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잠시 자아를 내려놓아야 한다. 어머니들이 아들과 애인처럼 서로 팔짱을 끼고 걷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이것이 사랑과 자유가 나오는 무아의 참 모습이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사)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대학장 / 대학원장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통신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나란다삼장불교대학 ····· 강원 교육

학 장 성 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 (각 6개월 과정)

원서교부 | 2019년 8월 2일 부터 전형방법 | 서류전형, 면접

개강 | 2019년 9월 2일 월요일

교수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 박사님 외

불교예술대학 ····· 범패 · 작법무

교 수 해 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의내용 | 작법무 (바라춤, 나비춤)

원서교부 | 2019년 8월 2일 부터

수업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 6시

개강 | 2019년 9월 3일 화요일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 www.kumgangnet.com | Tel 02)969-2410, 4981 Fax 02)964-2433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단기속성 3개월과정(56기)

본 대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 교육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 교육안내
- 개강일시 : 2019년 9월 5일 (목요일) 오후 3시 (목탁 지참)
- 교육시간 :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후 3시~5시
- 출 강 반 : 서울 본 대학 (위치 : 서울 조계사 근처)
- 통 신 반 : 지방 거주자를 위해 통신교육을 실시함 (교재, 교육자료, 녹음CD 우송)

2. 교육내용
① 송 주 편 (도량석, 조석종성 등)
② 예 경 편 (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단 등)
③ 헌 공 편 (삼보통청, 중단퇴공, 관음, 지장, 신중청, 각종 불공의식 등)
④ 재의식편 (천도재, 49재, 시다림, 기제사, 명절제사 등)
⑤ 시 식 편 (관음시식, 화엄시식, 상용영반, 구병시식, 방생의식 등)

3.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 접수 (우편, 팩스 접수 가능)
-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 지도함
- 필요에 따라 일부 범음범패를 병용해서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함

☎ 02)733-1959 720-1836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pubsa.net FAX : 02)737-5305



세계종교인 "한반도 평화 노력지지"

세계종교인평화회의, 독일서 열려

전 세계종교인들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국내 종교계의 활동을 지지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는 8월 19일부터 24일까지 독일 린다우서 열린 제10차 세계종교인평화회의 총회에 참가했다. 이 자리에는 KCRP 대표회장 김희중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장과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오도철 원불교 교정원장 등 16명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에는 종교자유, 인권, 생태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상정됐으며, 인류공동선에 종교인이 적극 동참키로 했다. 아울러 로힝야 난민, 남수단 내전 등 분쟁 현안 당사국 종교인들이 대화를 나누며 실효성 있는 사태 해결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회 일정에 따라 진행된 아시아지역회의에서 한국종교인평화회의와 북한 조선종교인협의회(KCR)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한 과정을 공유하고, 한반도 평화가 전 지구적 평화의 초석이 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KCRP 대표단은 향후 남북화해에 더욱 기여할 것을 다짐하면서 전쟁 없는 한반도,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활동을 적극 추진키로 결의했다. **윤호섭 기자**



"진실한 불자로 거듭나길"

정읍 내장사, 기해년 수계법회 봉행

정읍 내장사(주지 도완)가 정읍불교대학 재학생과 운주암, 보림사 신도들을 대상으로 기해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8월 24일 수계법회에 동참한 불자들은 전계사 도완 스님으로부터 삼귀의계와 오계, 십선계를 수지하고 진정한 불자로서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수계법회는 도완 스님과 운주암 주지 성락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불자 105명이 동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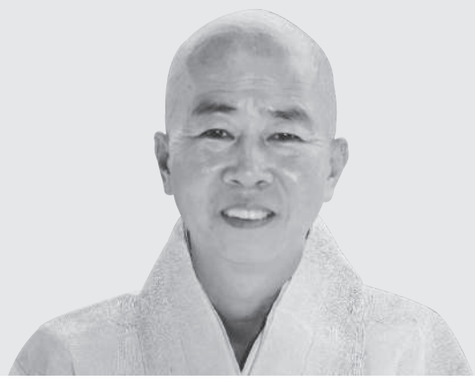
도완 스님은 박수라(법명 상경) 불자 등 수계불자들에게 법명이 적힌 계첩과 기념합장주를 수여하고 "생명의 존엄성과 성실한 삶, 청정한 행, 진실한 언어, 맑은 정신 등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진실한 불자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읍 내장사는 내장사 전통 누각인 정혜루를 일반에 개방하고 탑방객과 등산객들에게 자연 숙성차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이웃 위한 삶이 나 자신 위한 삶"

Interview

이웃을생각하는모임 회장 혜진 스님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김해서 이웃 위한 일일찻집 운영
수익금 장학금 및 성금으로 사용
군포교 · 해외구호에도 자비손길

"모두가 우리의 이웃입니다. 군인, 독거어르신, 학생들 모두 이웃 아닌 분들이 없습니다. 이웃을생각하는모임은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위해 앞으로도 정진할 것입니다."

김해 지역에서 나눔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이웃을생각하는모임 회장 혜진 스님의 말이다. 지난 8월 28일 이웃을생각하는모임(회장 혜진 · 이하 이생모)은 김해에 위치한 카페 달리아에서 이웃돕기 일일찻집 및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생모는 일일찻집에서 나오는 판매 수익금을 지역 내 학생 20명에게 각 50만원씩 총 1000만원을 전달했으며, 김해시에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일일찻집은 5회를 맞았으며 매년 불자들의 나눔을 위한 활동으로 자리 잡고 있다.

혜진 스님은 "일일찻집은 나눔을 위한 구심점이 되고 있다"며 "이생모 소속 사찰 스님들이 나눔에 앞장서며 모자라는 대부분의 후원금을 기탁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불자들도 함께 보시 바라밀 공덕을 쌓는 기회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생모는 일일찻집을 통해 1년 동안 나눔활동을 구체적으로 불자들에게 소개하며 앞으로의 활동과 방향에 대해 널리 알리는 계기로도 삼고 있다. 이생모는 그동안 군부대 복지 후원 및 수계법회를 통해 군포교에 앞장서왔으며, 저소득 가정 초등학생의 급식비를 지원했다. 또 청소년 포교를 위한 캠프 개최, 결손 아동 돕기, 청소년 장학금 지원, 해외 구호 사업 등 다양한 나눔활동을 이어왔다.

혜진 스님은 "많은 스님들이 동참하고 묵묵하게 후원에 동참해 지금까지 활동이 잘 이어지고 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스님은 "모든 생명은 한 가족으로 연결되어 있다"며 나눔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 세상은 각자의 복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알고 보면 모든 존재는 소중한 인연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가는 한 가족입니다. 함께 행복한 세상을 위해 이웃을생각하는모임은 존재합니다."

이생모는 2012년 2월 김해 지역 사찰들이 협력해 창립했다. 창립 후 김해시 19개 초등학교 학생 87명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고 군부대 후원 및 포교를 이어갔다. 군법당 낙성 및 수계법회, 장학금 지급 등 꾸준히 활동을 이어왔으며, 최근 캄보디아 초등학교 후원 사업으로 우물파기 및 교복 지원으로 해외구호에도 앞장서고 있다.

현재 소속 사찰은 △구천암 △금강사 △미타암 △부다정사 △보현사 △은하사 △여여정사 △원명사 △영구암 △영강사 △장유사 △한마음선원 중부경남 지원이다.

혜진 스님은 앞으로 "지역 내 독거 어르신을 위한 활동을 넓혀가며 해외구호 사업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뮤지컬 싯다르타, 오래 공연될 작품"

9월 개봉 뮤지컬 '싯다르타'
총괄한 김면수 대표프로듀서



부처님의 생애를 그린 대형 창작 뮤지컬 '싯다르타'가 9월 5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올림픽공원 내 우리금융아트홀에서 공연된다. 제작사인 엠에스엠시 김면수 대표프로듀서<사진>는 8월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뮤지컬 싯다르타의 불교적 콘텐츠로서의 의미와 가치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기독교를 비롯한 타종교에는 해당 종교를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는 그렇지 못한 현실입니다. 뮤지컬 싯다르타는 '왜 2600년 불교, 1700년 한국불교에는 오늘날에 필요한 대표 콘텐츠가 없는가?'라는 물음에서 시작됐습니다.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뮤지컬을 떠올렸습니다. 이번 '싯다르타'는 뮤지컬이라는 공연 작품이기 이전에 오늘날 우리 불교에 꼭 필요한 불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상급 뮤지컬 배우 25명과 스텝들이 지난 석 달 동안 한마음으로 준비한 뮤지컬 싯다르타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열연과 음악, 무대, 안무 등 감동의 뮤지컬이 될 것이며, 불교 예술 작품의 새로운 전범이 되기에 충분한 작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공연이 불자들은 물론이고 일반 대중에게도 불교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조계종 총무원과 (사)생명나눔실천본부가 후원하는 뮤지컬 싯다르타는 부처님의 생애를 3개의 에피소드 형식으로 그린다. 야소다라를 신부로 맞았던 19세의 그 날, 출가를 결심하고 궁을 나섰던 29세의 그 날, 그리고 고행 끝에 깨달음을 얻은 35세의 그 날이다. 뮤지컬 싯다르타는 부처님의 생애를 다룬 우리나라 최초의 대형 창작 뮤지컬이다. 제작사인 엠에스엠시는 이번 공연을 시작으로 '싯다르타'의 지방 순회공연과 중국, 대만 등 해외공연도 추진 중이다.

김면수 대표프로듀서는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이번 공연을 시작했다. 이유는 싯다르타가 이번 공연에서 끝나는 일회성 공연이 아니라 오랫동안 공연될 작품으로 제작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첫 공연인 서울 공연이 중요하다. 이번 공연이 추후 오랫동안 이어질 공연의 첫 단추이기 때문이다. 불자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뮤지컬 싯다르타의 예매는 인터파크에서 하면 된다. VIP석 12만원, R석 9만원, A석 6만원, B석 4만원이다. 스님, 불자, 단체, 청소년 등 할인관람도 가능하다. 1661-4191. **박재완 기자**

템플스테이 시민에게 할인

금산사, 김제시와 템플스테이 업무협약



조계종 제17교구 김제 금산사는 8월 29일 김제시청 소회의실에서 '김제시민의 템플스테이 참가비 할인'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김제시와 체결했다. 이 자리서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은 "김제시민들의 정신수양과 전통문화를 선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 모두 금산사에서 불교전통문화를 즐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경찰가족 위로한 불교전통문화

부산남부경찰서 경승단… 경찰가족 템플스테이



부산남부경찰서 경승단(경승실장 지원)은 8월 24~25일 문수사 전법회관에서 경찰 및 불자가족을 위한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1박2일간 일제강점기역사관 관람, 발우공양, 108배, 참선, 수계식 등을 체험했다. 템플스테이에는 경승실장 지원 스님과 경승 호명 스님을 비롯해 남부경찰서 이성우 경감 및 경찰가족 30명이 동참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 불교, 생명 수호 위해 거리로

제3회 자살과 교통사고 없는 부산 만들기



부산불교교육대학(학장 범혜)은 8월 25일 서면 영광도서 앞 분수광장에서 '제3회 자살과 교통사고 없는 살기 좋은 부산 만들기 합동 캠페인'과 자살 및 교통사고 사망자를 위한 위령대재를 봉행했다. 또한 부산불교교육대학은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일환으로 교통안전수칙이 적힌 전단지를 시민들에게 전달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영남범패 학인모집

본 원에서는 영남범패의 계승과 보존을 위하여 뜻을 같이 할 제16기 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동참바랍니다.

개강일시 2019년 9월 19일 목요일 오후 3시
교육장소 달전사 (함안군 칠원읍 유원길 778)
수강일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6시
교육기간 6개월 과정
교육내용 상용의식 및 재의식 사물 다루는 법
수강자격 삭발염의한 출가승려에 한 함
수강료 월 10만원 / 교재비 별도
준비물 필기도구 및 녹음기
문의전화 010-3867-8419

사) 대한불교불음원
원장 | 원명 합장

육임 수강생 모집

지금까지의 육임과 다른
새로운 육임을 동방대학원대학교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2학기 수강생 모집

교재 e-book
문의 02)3668-9890, 9871
수강료 50만원
www.dongbang.ac.kr

특별 이벤트
공념학당 6개월 수강 + e-book (30만원) + 동방대학 수강
일백만원 (대할인 수강생 모집 중)

공념학당 | Tel 02-793-7333

제 103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義式(범음 · 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중급과정 (6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정, 법고)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상주권공, 내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칭, 관음시식, 나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 개강일 : 10월 첫째주 월요일
◆ 강의일시 : 매주(월)오후 1시 ~ 4시 30분
◆ 담임교수 : 기봉스님 (무형문화재 50호 전수조교)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102기 강의중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5시~6시30분(90분) 담임교수 원장직강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선동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海東佛教義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번길 45(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02)741-0495~6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 4만원/회 ◆가로 9㎝ :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259호 | A13 | 전면광고

천 겁의 긴 시일 속에서도 부처님 만나기란 아주 어렵다. 최고의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부처님의 말씀과 부처님의 명호을 듣고 부처님께 귀의해야 한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대방광불관경》에서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질병, 간암, 묘터, 유산낙태 조상영가, 교통사고, 이혼수, 직장 승진운
- 스님, 무속인, 일반인, 철학인
- 출장 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명리구성학, 육임학, 성명학

010-4014-8822

범불교조계종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종도모집 및 승려증 발급종단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 찰 행 사 전 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0-9317-6686

「유튜브」에서 **대명스님**을 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의식은 불교의 꽃입니다.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49재,천도재,점안의식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문의 010-3263-6544
010-5530-2388

불 교 용 품 고 가 매 입 전 문

법당철거, 퇴불 정성을 다해 모셔드립니다. 소, 대불 탱화, 개금, 석불, 동불, 특수불 취급, 수미단 제작

이조불교재활용센타

010-9177-7842

모셔드립니다

스님 입적하신 후 모실 곳이 없는 스님 무료로 모셔드립니다.

공주 지장사

010-5363-3755

★책-검색★

①**천기누설운**(運비밀공개)
②**종교의본질**(비교종교)
③**대박재테크운**(運재테크)
④**천기소설예언자**(삶인도)
⑤**기도와명상**(최상수행법)
⑥**자기계발핵심**(성공기술)

위 책이름검색 / 1권 구입해보세요

문의 010-5105-5000

대주스님의 불광기도

☎ 02)963-1148 / 011-741-0867

?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 위주의 교육
2. 수계후공부100%(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함

문의: 054-753-8228, 010-8852-0075

신차·외제차·중고차

#리턴 포인트로 100% 캐시백 받으세요#
(물건을 사면 100%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❶ 찻값에 10%만 내시고 할부 끝날 때까7지 공짜고 타세요.
❷ 1년 지나면 소멸되는 자동차 보험도 100% 캐시백 받으세요.
❸ 삼성, LG 가전제품도 100% 캐시백 받으세요.

010-9469-1256

단원 정통 명리학

- 교육 : 수시접수 | 초급, 중급, 연구(격국)반 접수 | 1년 과정 — 수강료 : 360만원
- 단원 정통 명리학 : 실증철학 정규과정 수강생 접수 — 단원역리학협회 법인 자격증 제도
-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 학문

지현명리연구원 : 역학전문교육처 志晛 : 韓 基子(恩炅)
명리학 / 작명학 / 육효학 / 간지체성론과 육십갑자론(특허)

주 소 서울시 종로구 명륜4가 54-1 3층 | 웹사이트 cafe.daum.net/3332han cafe.naver.com/3332han

단원역리학협회 010-4470-6314

(종)한국불교조계종지도자연합회

귀의 삼보하옵고, 미래 사회를 밝혀나갈
새로운 종단〈**한국불교조계종지도자연합회**〉에서
함께 할 종도님들을 모십니다.

입종 서류 및 기타 문의

총무원 – 산청	경남종무원 – 창원
010-9422-1233	010-4582-3366

국제 붓다 평화봉사단

국내외 활동 자원 봉사자 환영합니다

지구촌 그늘진 곳곳에서 자비심이 가득한 사랑으로
같이 울고 웃으며 땀 흘려 봉사해온 여성 불자 봉사단
입단의 **문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02-733-5665

극락도량

극락도량에서 경전 공부와 기도를 하면서 절에서 사실 신심있는 보살님을 모십니다!

55세 미만

010-6536-0120

사주풀이(모집)

효보당 108 사주비법 완전전수

한손으로 가장 쉽고 빠르게 인생을 푼다

- 왜왔는가. 현재의 궁금점과 대안책
- 과거/현재의 사주와 미래의 대안책

- 스님. 무속인. 철학인. 법사 대상
- 특별반/개인 3개월 과정모집(완전 이수됨)
- 출장 및 개인지도 가능

010-2901-8923

5층 허공사리탑(7m)

사리부도탑(개별양도)

- 경봉스님 달마
- 불교유물 20가지
- 임환경스님 병풍10폭
- 다도 무쇠주전자 200여점
- 일타스님
- 지장보살 6m 입상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2길136 | www.jijangsw.com

지장암 010-8585-4908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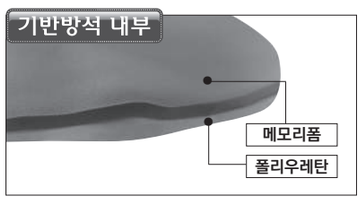
010-5412-8040 법광

세 계 최 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현불샵 TEL 02)2004-8216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사찰건축전문

문화재기능962호

대웅전/요사채/누각
산신각/한옥별장/재실/펜션
(육송 목제 사용)

경북 영주시 풍기읍 금계로10번길
가든아파트 가동 202호 | 이민과(원명)

054-636-2509
010-4300-9104

염불 단기 학습

태화산 마곡사 산내 효심원에서
일현큰스님류의 염불을 지도하오니
관심있으신 스님께서는
수강신청 바랍니다.

- 일시 : 2019년 9월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2-5시(무료강좌)
- 보존회 연락처 : 010-4233-3459
- 장소 : 마곡사 경내(효심원)

주최 : 일현큰스님 문화생 | 주관 : 일현큰스님염불보회

010-4233-3459

인등무료로드립니다

새 제품은 아니고 중고 제품인데 아직은 깨끗합니다. 인등 크기와 기타 문의는 전화 연락 바랍니다.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백 련 암

010-3034-2113

• • •

봉사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사실 분
신심있는 비구니, 보살님
좋은 인연 기다립니다.

• • •

충남 공주 포교당. 산 밑 아늑한 분위기

010-3008-1269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 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 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의 한 종류로,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 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희담석 108염주 세트 40,800원(무료배송) | **구성** : 108염주 + 합장주 | **크기** : 직경 10mm

계좌 안내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02)2004-8216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이창우 역주 | 19,000원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구입 문의 | 02-2004-8216

입금 계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명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 때 꼭 필요해요.



다보명차 (유기농 야생녹차)

최고의 향, 맛, 빛깔, 효능으로 머리 시원, 몸 따뜻
수행 짱! 아랫배 단전에 기운 모여 손발 따뜻!
우수한 제조 비법 100℃ 물에 차잎 생생~ 떫은 맛 NO!



氣 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휴 ≈ 힐링베개 스스로 딱 맞게 조절하는 베개

잠이 스르르~ 저절로.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완전해결!
이완이 스르르 저절로 와선삼매 100% 체험



보디스킨

발목, 장단지, 허벅지, 엉덩이, 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 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세계최고! 다보명차, 슈퍼유산균 효소, 호두기름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 종헌(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구단구궁법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부산 ❷,❸호선 덕천역 2번 출구 20m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98
(구포동 147-3) 3층 전층
전화 010-7415-0803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7㎝: 7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259호 | A14 | 전면광고

잘 길들여진 코끼리는 아무리 무거운 짐을
나를지라도 그 때문에 지치는 일이 없다. 그와
마찬가지로 마음이 잘 닦인 보살은 모든 중생의
무거운 짐을 나를지라도 지치지 않는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보적경》에서

삼보사찰안내

◎ 위치 : 경북
◎ 대지 : 800평
◎ 법당 : 20평
◎ 요사 : 20평
◎ 가액 : 2억 8천

◎ 위치 : 인천
◎ 대지 : 101평
◎ 법당 : 34평
◎ 요사 : 34평
◎ 가액 : 12억

◎ 위치 : 부산
◎ 대지 : 196평
◎ 법당 : 30평
◎ 요사 : 35평
◎ 가액 : 6억 8천

❖ 오랜 전통 믿음과 신용으로 스님들의 가람을 일심으로 정진 불사하오며 만남의 장으로 환영합니다.
❖ 사찰, 포교원을 찾는 스님이 많이 이용하시여 뜻을 이루시고 나날이 발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절대 비밀보장 ●
전국사찰 급히 구합니다.

문의전화 010-6722-2211

사찰안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 부지 : 1648평(대지 927평)
● 대웅전(25평). 지장전(15평). 독성각(5평). 목조건물
● 요사채 : 조립식 건물 25평. 황토방 7평. 5평
● 납골당 5000개 가능
● 가액 : 12억 5천만원

010-5421-1536

사찰안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사찰안내

● 위치: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임
● 건물 : 법당, 산신각 ● 평수 : 470평
● 가액 : 6억 ● 조건: 양도시 모든 기물 포함(불상,불화등기타) ● 주변 주차 시설 양호함 ● 도시가스, 상수도임
●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쪽

010-3128-2399

포교원안내

● 위치 : 포항시 남구. 4층 건물 내 2층(45평). 시설 특A급
● 법당 : 칠보 삼존불(석가, 관음, 지장) 천수천안. 신중단. 영단. 수미단 3단
● 소불 : 550불. 법당, 요사, 공양간, 창고
● 촛대, 향로, 불기, 다기(전체 방자) 등 320개
● 보증금 1,000만원 / 월 35만원
● 시설비 : 4,000만원

010-8424-0042

광진불사

◎ 위치 : 서울시
◎ 대지 : 1000평
◎ 법당 : 50평 외
◎ 요사 : 70평
◎ 매가 : 방문시 상담

◎ 위치 : 서울시
◎ 부지 : 1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60평
◎ 매가 : 11억 5천만원 정

*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 신행상담, 사찰순례,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아름다운 절
● 부지 : 산과 대지 등등. 2,650평
● 가액 : 8억5천 ● 아주 저렴하게 양도함
● 꼭 필요하실분만 연락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010-4357-5386

포교당안내

● 위치 : 창원시 진해구
● 2층. 40평. 방2개. 공양간. 화장실 창고. 베란다. 시설완벽함
● 보증금 500 / 월세 50만원 / 시설비 2500만원
● 몸만 오시면 법회할 수 있음. 금액 조정가능

010-9395-6675

사찰안내

● 위치 : 군산시 옥산면
● 대지 : 420평
● 건물 : 법당 20평. 요사채 40평
● 부속건물 : 삼성각. 관음전
● 석가모니. 아미타불. 미륵석불
● 녹차밭 300평
● 가액 : 1억 8천

010-3906-3711

일본포교당안내

● 위치 : 오사카 쯔루하시와 조선 이찌방 사이. 재래시장 입구. 대각사 포교당
● 스님, 법사 운행하는 자리로써 위치 최고 좋음.
● 한국사찰 운영 관계로 급히 안내합니다.
● 꼭 하실 분만 연락 바랍니다.

010-3545-5060
080-5358-5060
070-8836-5060

현대식 토굴

● 위치 : 경북 영양군 수비면 일월산 자락
● 친환경 현대식 목재건물
● 건평 30평, 대지 밭 1천평
● 앞, 뒤 소나무. 10대 이상 주차 가능. 주차장 완비
● 가액 : 2억 3천(가격 절충 가능)

010-5424-4969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서울 강북 수유역 5분(주변 재래시장)
● 64평(층전체). 도심 포교 최고입지(재기도 많음)
● 3000만원/월150만(주변 시세보다 저렴)
● 시설비 4천 9백 소요(급 지방 이전으로 먼저 계약 하신 분께 7백만에 무조건 양도)
● 도봉산, 삼각산 조망권 최고
● 주차 및 시설 완벽. 직접 오셔서 확인하세요.

02-6053-9797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청암면 청학동길 121-18번지 외
● 한옥 및 대지 매매(지리산 청학동, 단성IC 40분 거리)
● 한옥건평 : 155평, 대지 1,180평 (주위 전, 임야 부지 있음)
● 가액 : 17.5억원(4개동, 분할 매각 가능)

010-3835-7137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구미시 근교 도심사찰
● 부지 : 1,785㎡(540평)
● 건물 : 178평(전통목재 단청)
● 1층 266.7㎡(80평). 종무실. 요사채 2층 201.6㎡(61평). 법당. 주지실
● 요사채(창고) 38.88㎡(약12평) 공양간 77㎡(23평). 산신각 2평
● 가액 : 12억 5천만원

010-6372-8968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청암면 청학동길 15-2 지리산 750고지
● 미륵암 내 빈 독채, 방2개, 응접실1개, 부엌 1개, 욕실 1개
● 지리산 인연 있으면 함께 합시다
● 텃밭. 농사 지으실 분
● 가액 : 보증금 100만 / 월세 20만

011-759-0183

절터안내

● 위치 : 경북 김천 구성면 용호리 835번지 / 836번지
● 836번지 : 약 300평, 835번지 : 임야 약 130평, 총 430평
● 암자 지어서 수행 하실 분 (깨끗한 약수샘물 나옴)
● 사정 상 급양도 3700만원

010-6431-0408

사찰안내

● 위치 : 창원역 15분. 마금산 온천 5분 거리. 신도시 개발지 인접 ● 대웅전(단청완료). 삼성각. 주지상담실(황토방). 요사채. 공양간. 대형 저온창고 대형창고 2개. 차고. 주차장 500평 ● 총면적 : 6,200평
● 사찰 총 불사비용 35억 투자함
● 가액 : 13억(대출금 5억 포함) ● 계약 시 3억 5천 주시면 등기부등본 넘겨줌. 나머지 4억5천은 5년간 연차적으로 불사금으로 완납 가능

010-9647-0723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울산시 중구 다운동 3층 건물 중 2층
● 방2칸. 33평. 칠보 삼존불(지장,아미타,관음) 신중
● 산신.칠성.영단.소불 50불. 인등. 시설 완벽함
● 아파트 단지 내 시장 5분거리 ● 냉장고.세탁기.에어컨.공기청정기 등 집기일체 1700만원
● 보증금 1천 / 월 40만원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 망설이지 마시고 편안하게 연락주십시오

052-222-6888
010-7612-8980

포교원안내

● 위치 : 영등포구 신길역(1/5호선) 5분거리
● 시장인근. 12년 운영 중인 포교원
● 건물 : 3층 중 2층 45평
● 법당 삼불. 지장보살 독립. 산신. 제반시설 완벽
● 가액 : 보증금 1500/70만원 보증금 1000만원 조정가능
● 시설비 답사 후 상담절충

010-3167-1774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 대지 약 80평. 임야 150평 2층 건물
● 1층 요사채. 방2. 거실. 공양간 / 2층 법당
● 부속건물 : 산신각. 조립식 건물(서재. 창고)
● 가액 : 1억 9천(대출 6천)

010-4824-7534

사찰안내

● 위치 : 경기 파주 지역
● 대지 : 90평
● 건평1층. 70평 중 45평. 황토방 편백나무
● 2층 30평. 법당
● 주차편리. 교통편리. 최상시설
● 용도 : 포교. 교육. 사찰. 명상. 쉼터
● 가액 : 4억 7천만원

010-4012-5500

사찰안내

● 위치 : 거제시 중심부
● 대지 : 2103㎡
● 법당 / 요사 : 329.4㎡
● 창고 / 기타 : 약 25평
● 대형 불상 및 석등, 조형물 다수 있음
● 주차장 넓고 경관 좋음
● 가액 : 6억 9천

011-9143-0098

토굴구함

● 정업수행에 적합한 산 속 토굴을 구합니다.
● 임대. 전세. 양도 가능

010-7678-5536

사찰(급)안내

● 위치 : 경주시 시래동. 정남향
● 대지 194평. 건평 43평
● 법당. 칠성. 산신. 용왕. 나반. 방 친견실. 공양간. 샤워실. 화장실
● 외부시설 : 용왕연못. 탑. 남여화장실 등
● 시설일체. 최고입지요건 갖춘 암자
● 가액 : 2억 3천만원(급양도)
● 사전 전화요망

010-5427-3699

사찰안내

● 위치 : 천안. 아산 KTX역에서 5분거리
● 대지 : 121평
● 건물 : 법당 27평. 삼성각. 요사채. 방2개. 거실. 공양간
● 가액 : 2억

010-7217-7578

사찰안내

● 위치 :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219-1
● 대웅전 23평 목조. 산신각 8평 목조
● 요사채 60평 2층. 조립식 방사 15평
● 하천부지 약 40평. 총 1680평
● 가액 : 6억

010-9044-7347
010-8697-8568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청암면 청학동길 121-18번지 외
● 한옥 및 대지 매매(지리산 청학동, 단성IC 40분 거리)
● 한옥건평 : 155평, 대지 1,180평 (주위 전, 임야 부지 있음)
● 가액 : 17.5억원(4개동, 분할 매각 가능)

010-3835-7137

토굴(급)안내

● 위치 : 경남 산청
● 총 412.6평 중 대지 200평(답·도로)
● 방2. 거실. 욕실. 주방. 창고
● 20평 허가되어 있어 건축 가능
● 유실수 100여주 심어져 있음
● 1000여평 국유지 사용가 (현재 텃밭으로 사용 중)
● 가액 : 2억 4천(대출없음)

010-9411-5302

토굴(급)안내

● 위치 : 부산금정구 지하철2분.버스2분 거리
● 골프장옆. 법당.요사.주방50평. 산신각3평
● 대형마트 은행 병원 시장 전부 다 있음
● 오르막 없는 평지에 주차 공간 넉넉함
● 전월세 가능(보3천/월35만, 시설비無)
● 인연 닿는 스님께서 먼저 전월세로 살아 보신 후 양도도 가능 합니다.

010-7121-3030
010-3574-3303

사찰안내

● 위치 :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202-22호
● 대지 28평. 건평 35평
● 2층 법당. 조립식 20평. 칠성. 산신. 영가단. 지장소불 108불
● 집기 일체 양도. 몸만 오세요
● 가액 : 2억 3천만원. 절충가능

010-8900-4874

◑ 입종안내 ◐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 • 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참고사항

①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불교조계종대학림 02)511-1080

불교조계종(총무원) Tel 02)511-2026~7 | Fax 02)511-2028

별장최적지

● 산자 수려한 계룡산자락 멋진 집2채
● 세종시,유성구,공주 모두 20분 거리
● 위치 : 공주시 반포면 하신소1길 56, 58
● 대지 : 200평, 건평 : 약50평
● 1억에 전세 놓습니다.(양도도 가능합니다)

010-4233-3459

토굴안내

● 위치 : 충남(대전-세종 3~40분.IC인접)
● 대지 : 약 200평. 텃밭 200평(문중 소유). 각종 유실수 및 조경수 식재
● 법당 : 컨테이너(삼존불. 각종 탱화 조성)
● 요사 : 약 20평(현대식 올수리). 각종 집기 및 가전제품 구비
● 소임관계로 답사 후 파격절충

010-3977-2123

보물급(불감)매도

● 30년전(일천만원)에 겨우 매입한 것 ● 다급한 사정(파격가격)으로 양도하겠습니다. ● 불교조각장인이 2년에 걸쳐 기도와 심혈로 제작 ● 원통나무 지름 12*높이25cm를 절개하여 작은절 법당 ● 전부(3존불)사천왕까지 안으로 파고드는 기법으로 조각 ● 소지하고 다니는 소유 수호불 법당.보물급(불감) ● 유사 외 국산(조각품)과는 비교 할 수 없음

전국불교(사찰관계거래)전문업소임(공신공인중개사)

010-3382-0555

아름다운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의령군 소재
● 전원주택형 요사채 25평, 법당 33평
● 정자(3m*5m) 원목 산사음악회 무대
● 총대지 300평 (정원조성 잘되어 있음)
● 진주 합천 중간지점(각20분 소요)
● 삼존불, 영단, 신중단, 지장단, 소불(한쪽벽면)
● 몸만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언제등 양도가능

스님 직통 010-2607-7114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 강서구 목동 사거리 시장 옆
● 2층 건물 중 2층. 약 20평 남향 코너
● 특이사항 : 건물주가 협조함
● 가액 : 보증금 200 / 월 50만원 부가세 없음

건물주 010-5381-1419

포교당안내

● 위치 : 경북 포항 오천
● 2층 상가 60평. 거주가능
● 삼존불. 탱화. 시설완비
● 다량 주차가능.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가능
● 보증금 1천 / 월세 20만원
● 시설비 1천만원

010-2857-2811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상북면
● 대지 : 약 100평
● 건물 : 법당 30평. 스님방. 주방. 화장실 있음
● 산신각 : 3평(용왕당 별도 있음)
● 가액 : 6억 5천
● 대출 : 1억 7천

010-9042-7799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감천1동 천마산하 큰길가 버스정류소 옆 2층
● 평수 : 약 60평 (공실이며 시설은 오셔서 하셔야 됩니다)
● 가액 : 3억 7천만원
● 포교원 또는 교회로 최적지

010-3310-7771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회원구 내서읍 (내서IC 3분거리)
● 대지 100평. 법당 25평
● 요사채. 스님친견실. 산신각 대형주차장
● 가액 : 2억 8천만원

010-5550-9725
010-4001-8476

(급)사찰안내

● 위치 : 전남 해남읍에서 5분거리
● 사찰도량 총 1,450평. 법당 20평 목조
● 관음전, 종각, 공양간, 차실, 요사채
● 방이 총 9개. 창고. 외부 화장실. 대형주차장 등
● 가액 : 총 2억 5천만원

010-4628-5699



생활 속의 불법수행
대행 스님과의 신행문답

주인공이란 '참나'라 해도 좋고 '한 물건'이라 해도 좋고, '본래 면목'이라 해도 좋습니다. 일체를 다 싸잡아서 붙인 이름입니다.

현대불교신문(여시아문 刊) | 신국판 | 무선 | 흑백 | 480쪽 | 15,500원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스님 법어

세상 모든 생명에게 바치는 저자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를 담아냈다. 흔히 어렵다고 여겨지는 불교를 친숙하게 받아들이도록 인도한다.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 148×210mm | 287쪽 | 10,000원



신행요전

전 신행요전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스님의『뜻으로 푼 반야심경』과『뜻으로 푼 수경』에 더하여『뜻으로 푼 금강경』을 함께 실어 불자들이 항상 수지 독송할 수 있게 하였다.

(재)한마음선원 | 130×193mm | 361쪽 | 8,000원

구입문의 — 02)2004-8216 • 3만원 미만 택배비 별도 • 농협 053-01-269062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 5권 묶음판매에 동참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묶음판매를 종료합니다.
본 광고 이후 〈불서총판 운주사〉에서 전국서점에 공급합니다.



깨달음의 시작에서 완성까지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석호 지음
218쪽
값 12,000원
깨닫기 위한 3일의 실천과 그 뒤의 삶을 빛나게 하는 지침



금강경이 소설로 - 금강경 장편소설
하늘다이아몬드
석호 지음
292쪽
값 13,000원
물질만능시대-물질을 버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황폐해지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메시지

○ 매순간이 기적이다. 이 사실을 사무쳐 느끼는 자. 나는 그를 깨달은 이 - 붓다라고 부른다. <석호>

보급처 : 불서총판 운주사 ☎ 02) 3672-7181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라이프 플래닝’ 핵심은 불교

〈Life Planning · 인생재무설계〉

재무설계사 조지 킨더, 부디스트도어 인터뷰서 강조

박정현 객원기자

“그는 저술 및 교육 활동을 통해 인간과 문명이 탐욕과 혐오에서 벗어나게 한다. 나아가 사람들이 돈과 인생에 대한 가치를 바로 알게 해 궁극의 자유에 이르게 한다.”

불교 인터넷 매체 부디스트도어(Buddhistdoor)는 재무설계사이자 명상 실천가인 조지 킨더(George Kinder · 사진)를 이렇게 표현했다.

부디스트도어는 8월 27일(현지시간) “지난달 동아시아의 작은 코너(홍콩)에서 그와 흥미진진한 시간을 보냈다”며 킨더와 홍콩에서 보낸 한 달간의 동행기를 소개했다. 킨더는 50년 이상 명상가로 활동했을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는 ‘라이프 플래닝 운동(Life Planning movement)’을 이끈 창시자로 통한다. ‘라이프 플래닝’이란 단순히 고객의 재무목표를 위해 일하는 재무설계사가 아닌, 고객의 삶의 의미와 돈을 결합시킴으로써 인생계획을 설계해주는 작업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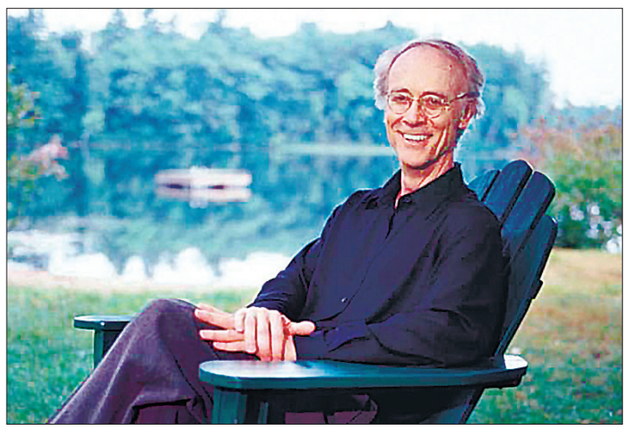
하버드대학을 졸업한 킨더는 지난 30년간 재무설계산업 내에 혁명을 일으켰다. ‘돈’과 ‘인생’을 통합의 가치로 엮는 구조화작업에 처음으로 착수한 인물이다. 가장 최근에는 새로운 형태의 라이프 플래닝 전문가들을 훈련시킨 공을

고객 인생계획 설계 전문가
재무설계서 보살요소 느껴
불교교단에서 불교 가르치며
자유와 같은 삶의 가치 강조

인정받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기조연설을 했다.

그가 강력히 주창하는 라이프 플래닝의 핵심은 다름 아닌 ‘불교’다. “재무설계 과정에 거대한 보살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내 업무는 어드바이저(고문)들에게 고객을 유치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라며 “재무설계사들은 보통 고객의 예산 및 세금 업무, 저축 및 투자 방법 등을 관리한다. 그런데 내가 주장하는 라이프 플래닝의 핵심은 ‘돈 관리’로 힘들어 하는 고객에게 우선 자유와 같은 삶의 가치를 일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출처=부디스트도어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과정을 수행하며 나는 내면에서 물질주의와 영적 실천이 분리되는 것을 보았다. 특히 거대한 보살요소가 있다는 것을 깨우쳤다”며 “우리가 업무를 수행할 때 미덕으로 인식하는 친절, 관대함 등이 불교 전통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10여 년 전 미국의 금융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이 물질에 의해 고통 받는 것을 보면서 물질주의의 치료법이 ‘마음챙김명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그는 “명상은 ‘현재’를 삶의 중심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준다”며 “이로써 사람들은 우주를 물질주의적인 것 이상으로 끊임없이 진화하는 심리적, 정신적 함수로 이해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킨더는 50년 이상 활동한 명상 실천가로도 유명하다. 하와이, 보스턴, 런던 등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며 작은 불교 교단에서 불교를 직접 가르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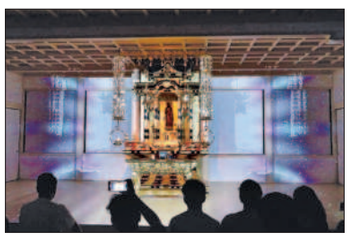
킨더는 “내가 불교를 이해하는 방법 중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해 아주 심오하고 깊게 듣는 것”이라며 “우리는 모두 공동체에 속해있기 때문에 인간 존재뿐만 아니라 사물의 본질에 대해서도 상당히 깊이 귀를 기울인다. 나는 부처의 놀라운 통찰력 중 하나가 ‘덧없음’에 대한 인식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덧없음은 모든 생명체뿐만 아니라 모든 시간과 공간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 자신의 덧없음에 주의를 기울일 때 우리는 우주와 사물의 본질을 배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킨더는 마음챙김명상과 관련해 〈고뇌를 지혜로 바꾸기(Transforming Suffering into Wisdom, 2011)〉라는 책을 썼다. 가장 최근에는 〈황금문명과 명상의 지도(A Golden Civilization and The Map of Mindfulness, 2019)〉를 펴냈다. 국내에서는 〈조지 킨더의 라이프 플래닝〉이라는 저서가 번역, 출간됐다.

현대문화 기술 접목 포교 세계화 나선 日

도쿄 아라카와구 코묘지 외국 유학생 이목 집중



프로젝션 맵핑을 활용한 법회. 사진출처=재팬타임즈

항상 다양한 방법으로 새로운 포교를 시도하는 일본불교계. 도쿄의 모 사찰에서 그간 시도됐던 방법들을 혼합해 외국 유학생들에게 선보이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 뉴스를 8월 23일 일본의 ‘재팬 타임즈’가 보도했다.

8월 22일 도쿄 아라카와구에 소재한 코묘지(光明寺)는 힙합, 현대무용, 프로젝션 맵핑 등을 혼합한 불교문화체험을 세계 각국에서 모인 30명의 학생들을 위해 준비했다. 이 체험행사는 2012년 세계화가 빨라지는 현실에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 개발 청년 포럼(International Development Youth Forum)’에서 기획한 행사 중 하나다.

이번 행사가 진행된 코묘지는 일반적인 사찰과는 달리, 역세권에 소재한 오피스텔을 개조해 만든 현대적인 사찰이다. 프로젝션 맵핑과 현대무용이 혼합된 예불이 먼저 봉행되고, 주지인 오하라 타츠노리 스님의 법문이 있었다. 타츠노리 스님은 “불교의 목적은 모든 종교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모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조화를 이뤄야 하는지 말하는 것이 불교”라고 강조했다.

이후 불교와 일본의 전통문화에서 모티프를 딴 힙합, 무용 공연과 함께 학생들이 직접 이를 체험해 보는 순서가 이어졌다.

4년간 일본에 거주해온 자메이카 출신은 게리 투조 씨는 “내가 지금껏 경험한 전통적인 사찰과는 달리 매우 현대적이어서 조금 회의감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프로젝션 맵핑으로 불교의식을 바라보았을 때 너무나 놀라웠다”고 소감을 말했다.

영국에서 온 비비 린 씨는 “내가 생각했던 사찰과는 매우 달랐지만, 젊은 세대를 끌어들이는 요소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항상 심각하게만 생각했던 종교가 즐겁게 느껴졌다”고 전했다.

조우인 객원기자

태국 행자들, 게임 대회서 우승

“고교생 성장하는 시기, 관심사 탐구할 나이”

2019 콘카엔대학 농카이 박람회에서 열린 비디오 게임대회에서 행자들로 구성된 팀이 우승을 거머쥐어 눈길을 끈다.

이 박람회는 태국 북동부에서 열리는 연례행사로, 올해는 8월 15~18일(현지시간) 4일간 진행됐다. 각종 학술대회와 게임, 전자 스포츠 경기 등이 열린다.

행자들로 구성된 우승팀은 농카이 지역 내 행자들을 위한 고등학교인 바리 사싯 숙사(Balee Sathit Suksa) 소속 3학년생들이다. 이들을 인솔한 해당 학교의 교사는 “행자들이 대회에 나가고 싶어 해서 기회를 줬는데 정말 우승할 줄 몰랐다”고 웃어 보였다.

해당 교사에 따르면, 행자들은 매주 20시간 이상의 종교 수업을 듣는다. 다른 교과 과정 역시 대부분 전통 교육으로 이뤄진다. 그런데 이 중 컴퓨터 수업 시간에 행자들이 처음 비디오 게임 ‘스피드 드리프터(Speed Drifter)’를 접했고, 대회에 나가길 원했다는 것이다.



태국 농카이 지역 내 행자들을 위한 고등학교인 바리 사싯 숙사(Balee Sathit Suksa) 소속 3학년생들이 비디오 게임 대회에서 우승을 거머쥐었다. 사진출처=kotaku.com

물론 행자들이 비디오 게임 대회에 나가는 것에 곱지 않은 시선도 있었다. 불법적인 게임은 아니지만 훗날 스님이 될 행자들이 가사를 입고 토너먼트 게임에 참여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다.

하지만 해당 교사는 “행자들은 아직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성장하는 단계다. 자신을 개발하고 관심사를 탐구하는 나이인 것”이라며 “행자들에게 여러 기회를 주는 것도 우리들의 역할”이라고 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공양물도 유행 탄다… ‘버블티’ 인기

보수 불교도와 젊은 층 논쟁
최근엔 패스트푸드도 늘어나

불전에 올리는 공양물은 전통적인 관례가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대표적인 불교국가인 태국에서 버블티가 새로운 공양물로 인기를 끌어 화제다. 이 독특한 소식을 8월 24일 이탈리아의 인터넷 매체 ‘아시아 뉴스’가 전했다.

보통 사찰에서 공양물로 올리는 것들은 꽃이나 과일, 쌀, 향과 같은 것들이 선호된다. 또 각각에 의미도 전통적으로 전해오기 마련이다. 그러나 최근 태국에선 ‘버블티’라는 음료가 공양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버블티는 타피오카를 주재료로 한 ‘펄’이라고 하는 작은 경단이 들어간 음료수로 대만에서 시작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태국의 유명 음식비평가 파윤붓(Payunbud)은 지난 8월 18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버블티가 거리의 불단에 공양된 사진을 게시했다. 사진 속의 불단에는 버블티뿐만 아니라 유명 프랜차이즈의 커피까지 다양한 음료수가 함께 있었다. 태국 내 파윤붓의 유명세에 힘입어 해당사진은 몇 시간 만에 주요 온라인 매체와 SNS를 통해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공유됐다.



태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버블티 공양. 다양한 버블티와 음료수가 불단 앞에 올려져있다. 사진출처=트위터

보수적인 불교도들은 “신성한 장소에 유행처럼 음료수를 올리는 것은 다소 부적절하다”고 비판하며 “오래된 전통을 부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태국에서는 불단에 붉은색 탄산음료나 과일음료를 불단에 올리는 것이 관례다.

그러나 젊은 층을 중심으로 ‘버블티 공양’을 올리는 것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한 지지자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부처님이) 몇 십 년씩 빨간 음료만 드시게 하는 게 더 심한 일”이라며 어떠한 공양물이든 간에 올리는 정성이 더 중요한 게 아니냐는 논지를 펼쳤다.

버블티 공양 논란은 이제 버블티를 넘어서 다양한 음식물을 공양 올리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 SNS를 통해 게시되는 새로운 공양물들 가운데는 패스트푸드나 최근 가장 잘 팔리는 식음료를 모아 올리는 사진도 등장했다. 조우인 객원기자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황의동 도가마을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분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알갱이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분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우리몸 막힌혈관을 뻥!뻥!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루 2회 공복에
막힌 혈관을 뻥!뻥! 뚫어 젊어지고 건강해지는 혈관관리
혈통으로
맑은물에 희석해서 마십니다
혈관나이를 젊게하여 100세 건강실현
피가 깨끗해지면 정신도 깨어납니다
010-9003-6767 농협 : 010-9003-6767-29

왜 마음챙김 명상인가?

존 카밧진

〈1〉 마음챙김이 필요한 이유

현재에 존재하는 능력 기르다

마음을 챙기라는 말. 스트레스로 삶의 갈피를 찾지 못하는 이들에게 수행자들이 주로 건네는 말이다. 그런데 마음을 챙기라는 건 무슨 뜻일까? 마음을 챙길 순 있는 걸까? 종교적 색채를 배제한 채 서양에서 명상열풍을 주도한 존 카밧진 박사의 설명을 통해 마음챙김을 이해해보자.

정리=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마음챙김
무의식의 속박서 벗어나는 수행
현실을 보다 잘 받아들이게 되고
각자 성장 가능성을 볼 수 있다

마음챙김이란 무엇인가

마음챙김이란 옛 불교에서 행해지던 수행 방법으로, 오늘날의 우리 삶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챙김이 불교 그 자체나 불교 신자가 되는 일과 관련이 있다는 건 아니며, 각성하는 일과 자기 자신 및 세상과 조화롭게 사는 일과 깊은 관련이 있다. 또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탐구하고, 세상에 대한 우리의 관점과 세상 속에서의 우리 위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살아가는 매 순간을 최대한 충실하게 누리는 일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특히 연결감 속에 존재하는 일과 관련이 있다.

불교의 관점에서 볼 때, 보통 의식이 깨어 있는 상태는 극도로 제한적이며 여러 측면에서 각성보다는 꿈의 연장에 더 가깝다. 우리는 명상을 통해 이처럼 무의식적인 꿈 상태에서 깨어날 수 있으며, 그 결과 의식적이며 무의식적인 가능성을 제대로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지난 수천 년간 많은 현자와 요가 수행자, 선불교 지도자들이 이 같은 정신 영역을 체계적으로 탐구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모체나 다름없는 자연을 찬미하기보다는 오히려 통제하고 억제하려는 오늘날 서구인들의 문화적 성향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뭔가를 배웠다. 그들의 집단적 경험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살아 숨 쉬는 존재로서의 우리 자신의 본성과 특히 우리 자신의 마음속 본성을 세심하고 체계적인 자기 관찰을 통해 깊이 고찰함으로써 보다 만족스럽고 조화로우며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 또한 그들의 집단적 경험을 통해 우리는 또 오늘날 서구의 사고와 제도를 지배하고 있는 환원론적이고 물질주의적인 세계관을 보완해줄 새로운 세계관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세계관은 딱히 동양적인 것도 아니며 신비주의적인 것도 아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1846년 미국 메인 주 뉴 잉글랜드에서 우리의 평상시 마음 상태에서 이와 똑같은 문제를 보았으며, 그 불행한 결과들에 대해 아주 열정적인 글을 썼다.

마음챙김은 불교 명상의 핵심으로 불려왔다. 기본적으로 마음챙김은 단순한 개념이다. 그리고 마음챙김의 힘은 수행과 적용에서 나온다. 마음챙김이란 특정한 방식으로 주의를 집중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개인적 판단을 개입시키지 않고 자의적으로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집중하다 보면 더 큰 알아차림과 명석함을 얻게 되고 매 순간의 현실을 보다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며, 그 결과 우리의 삶이 순간 속에서만 펼쳐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매 순간순간 제대로 집중하지 못할 경우,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놓치게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성장 가능성과 변화 가능성이 얼마나 무궁무진한지도 깨닫지 못하게 된다.

현재 순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경우, 우리 마음속 깊이 잠재해 있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살아나 무의식적이고 습관적인 행동들을 하게 되면서 각종 문제들이 발생한다. 그리고 그 문제들은 제대로 해결 못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져, 결국 우리는 덫에 걸린 듯 꼼짝달싹 못하는 상태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더 많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고, 자신의 에너지를 활용해 보다 큰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고 보다 더 건강해질 수 있는 능력까지 잃게 된다.

마음챙김은 우리에게 덫에서 빠져 나와 우리 자신의 지혜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길을 제시해준다. 그 길은 우리 자신의 삶의 질과 방향을 바로잡아주는 길, 그러니까 가족 내에서의 관계를 비롯해 일과의 관계, 보다 큰 세상 및 지구와의 관계, 그리고 특히 한 인간으로서의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바로잡아주는 길이다.

마음챙김에 이르는 열쇠는 불교와 도교와 요가에 뿌리를 두고 있고 에머슨과 소로, 휘트먼 같은 이들의 작품과 미국 원주민들의 지혜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 핵심은 현재 순간을 충실하게 누리고 또 분별력을 갖고 신중하게 계속 현재 순간에 집중함으로써 매 순간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이다. 삶의 가치들을 당연시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태도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순간들 때문에 현재의 순간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우리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의 망(web of life)'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우리 자신의 마음은 물론 그 마음이 우리의 인식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과 이해까지 부족해지게 된다. 또한 한 인간이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서로서로 또 주변 세상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관점들도 제대로 갖지 못하게 된다. 예로부터 영적인 틀 안에서 그 같은 근본적인 탐구가 이루어지는 영역은 종교이지만, 마음챙김은 종교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물론 살아서 존재한다는 아주 신비스런 현상을 이해하고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인정하기 위한 시도라는 측면에서는 가장 근본적인 의미에서의 종교와 관련이 있다.

우리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각종 견해와 편견, 예상과 기대에 사로잡히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집중을 할 때, 가능성들이 열리고 우리 스스로 무의식의 속박에서 벗어날 기회를 갖게 된다.

나는 마음챙김을 간단히 의식 있는 삶을 사는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싶다. 마음챙김을 수행하기 위해 불교를 믿거나 요가를 할 필요는 없다. 사실 불교에 대해 조금 안다면 이해하겠지만,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과 다른 누군가가 되려 하지 말고 당신 자신이 되는 것이다. 불교는 근본적으로 당신 자신의 가장 내밀한 본성과 연결해 그 본성이 당신 자신으로부터 거침없이 흘러나오게 하는 종교이다. 불교는 또 각성을 해 모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는 종교이다. 사실 '붓다'라는 말 자체가 자기 자신의 진정한 본성에 각성한 인물이란 뜻이다.

따라서 마음챙김은 종교적이든 과학적이든 그 어떤 신념이나 전통과도 충돌하지 않으며, 그 어떤 것도, 특히 그 어떤 새로운 신념 체계나 이데올로기도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체계적인 자기관찰, 자기탐구 그리고 사려 깊은 행동을 통해 완전한 당신 존재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게 해주는 실천적인 한 방법일 뿐이다. 마음챙김에는 차갑거나 분석적이거나 매정한 면은 전혀 없다. 마음챙김 수행의 전반적인 흐름은 온화하면서도 감사해 하고 돌봐주는 것이다. 마음챙김을 달리 표현할 수 있는 말은 아마 '정성을 다함', '진심어림' 정도가 될 것이다.

단순하지만 쉽지 않은

마음챙김을 수행하는 일이 단순한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쉽지만은 않다. 마음챙김을 수행하려면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다. 몸에 밴 우리의 무지와 타성 등, 마음챙김을 방해하는 힘들이 워낙 강하고 집요하기 때문이다. 그 힘들은 워낙 강한데다 우리의 의식이 전혀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알아차림 상태에서 우리의 순간들을 포착하고 마음챙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적인 헌신과 일정한 노력이 따라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챙김을 통해 습관적으로 간과하거나 잊고 지내는 삶의 많은 측면들과 연결되기 때문에, 마음챙김은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일이다.

마음챙김은 깨우침과 자유를 주는 일이기도 하다. 깨우침을 준다는 건, 평소 아무 관련도 맺지 못하거나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삶의 영역들을 보다 명료하게 볼 수 있게 해주고, 그 결과 사물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평소 인식하지 못하거나 의식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비통함, 슬픔, 상처, 분노, 두려움 같은 내밀한 감정들을 만날 수도 있다. 또한 마음챙김을 통해 의식 못한 채 후딱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은 기쁨이나 평온함, 행복 같은 감정들을 제대로 느낄 수도 있다. 마음챙김이 자유를 준다는 건, 우리가 마음챙김을 통해 내면적으로 또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방식들로 존재하게 되고, 그 결과 너무도 자주 빠지는 타성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음챙김을 통해 우리는 힘을 얻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주의력을 집중함으로써 우리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창의력, 지성, 상상력, 명석함, 결단력, 선택권, 지혜의 저수지로 향하는 수로들이 활짝 열리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가 사실상 늘 생각 중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우리의 마음속을 끝없이 흘러가는 생각의 개울들 때문에 우리는 거의 잠시도 내적인 평온을 유지하지 못한다. 게다가 뭔가를 하기 위해 내내 뛰어다니지 않고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여지도 거의 없다. 우리의 행동들은 우리 스스로 인식해서라기보다는 떠밀리듯 어쩔 수 없이 행해지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 폭포까지는 아니더라도 빠르게 흐르는 강물처럼 우리 마음속을 흐르는 더없이 평범한 생각과 충동들에 떠밀려서 말이다. 우리는 급류에 휘말려 있으며, 그 급류는 우리 자신을 원치 않는 곳이나 아니면 심지어 어디인지도 모르는 곳들로 끌고 가 결국 우리의 삶 자체를 수몰시켜버린다.

명상을 한다는 건 이 급류로부터 빠져나와 강둑에 앉아 급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뭔가를 배운다는 것이며, 그런 다음 급류 에너지를 잘 활용해 우리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가게 만드는 것이다. 이 모든 일들이 마법처럼 저절로 일어나지는 않는다. 에너지가 필요하다. 현재 순간에 존재하는 능력을 기르는 노력을 우리는 '수행' 또는 '명상 수행'이라 부른다.

이 글은 존 카밧진의 〈왜 마음챙김 명상인가?〉(불광출판사)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동국대학교 융합 가족세우기 상담사 2급과정 모집

가족 간의 얽힘을 풀어내고 삶의 가장 중요한 터전인 가정의 관계를 회복하는 가족상담 치료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삶은 대부분 가족관계 안에서 태어나 가족의 일원으로 살다가 가족의 품에서 생을 마치게 됩니다. 가족은 모습도 닮게 되지만 살아가는 방법과 태도, 말, 주로 쓰는 단어, 습관, 정서, 감정, 먹는 음식까지도 닮게 되고 DNA(몸의 세포)을 통해 얽힘은 유전 상속 대물림 됩니다. 삶 속에서 습득된 모든 것들은 DNA(몸의 저장장치) 세포 하나하나에 저장되어 후손들에게 유전 되고 기록 되는데, 일반적으로 가족생활을 통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족이란 고향이고 희망이고 절망이기도 합니다. 때때로 생각만 해도 행복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이란 밀착된 관계 속에서 다양하고 복잡 미묘한 일들로써 서로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상처나 트라우마가 되어 얽힘을 만들고 평생 동안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융합 가족세우기 프로그램은 가족 구성원 간의 얽힘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며,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고 확인하며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일상적인 생각보다 더 깊은 잠재의식의 상태를 조명하고, 집단상담과 개인상담 형태로 내담자, 촉진자, 대리자들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사람과 관계가 회복되는 불가 사이한 신통력을 가지고 있는 상담 프로그램입니다.

절에서 스님이 운영하시기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추천드립니다.

수강신청

• 융합 가족세우기 2급 156시간 4학기 정원 40~50명 • 집중 워크숍별도 운영 • 가을학기 : 9월 3일 화요일 • 주간반 15~17시. 저녁반 19~21시

동국대 접수처
• 서울 [동국대학교 미래융합대학 홈페이지]에서 지원 할 수 있습니다.
• 찾아오는 길 : 지하철3호선 동대역 하차 6번 출구
• 서울시 중구 필동로1길 30 동국대학교 학술관 교학처
• 02)2260-3728, 3730

부산 접수처
•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 19번길 14호 학마을 명상선원 / 051)754-3375
• 부산 계좌 : 농협 351-1090-3369-93 예금주 : 학 마을 명상선원
• 지하철 남천역 4번, 2번 출구 남천초등학교 앞. 남천성당 뒤 kbs후문에서 좌회전 150m

속성반 부산
• 1년 과정 월1회 3째주 토,일요일 1박 2일 집중수업
• 수강료 : 3백만원
• 부족한 시간 집중워크숍 별도운영 보충 총 170시간
• 속성반 안내 전화 : 010-8634-7851

수강생이 아니라도 누구나 상담자로 참여해 볼 수 있으며 참여 후 자기문제가 해결돼 수강생이 되기도 합니다.

강사소개 정행스님(직강)
• [내면의 고민과 행복] 저자
• 서울동국대학교 미래융합대학(가족세우기)
• 서울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 전공
• 가족세우기 촉진자 경력 10년
• 명상심리상담 경력 / 기 에너지 치료 경력 30년
• 명상심리상담 자격증 등 다수

성명을 통변위주로 공부한다!!
좋은이름연구원에서 구궁성명학으로
29기생 모집을 위한
무 공개강의 료

9월 7일 (토) 11시
(본 강의 : 당일 14시)

여기저기서 공부를 해도 통변이 안 되는 분
철학관이나 작명소 개업을 앞두고 계신 분
돈을 벌어 완벽한 노후를 준비 하실 분

사주의 용신을 보완하고
공망과 태과한 오행을 피하며
납갑을 붙이는 작명법과 통변을
확실히 가르칩니다.

3, 6호선 연신내역 7번 출구 청구성심병원 옆
02)383 8860 | 010 7701 2248
··· goodname114.com ···

현대불교신문
구독안내
02-2004-8200

1 불교의 현대화 —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2 불교의 생활화 — 생활 속의 지혜와 자비로꽃 피는 가르침
3 불교의 세계화 —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 을 검색하세요!
신문을 구독하시면 생활안내 / 불자정보(사찰, 포교당 양도 및 기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행 스님

배움이 끊어진 사람은 망상도 버리지 않고 선함도 구하지 않는다

(지난 호에 이어서)

질문자1(남) 스님, 감사합니다. 아까 처음 질문 올린 대로, 그런 정신병이라든지 암이라든지 이런 난치 불치병 환자들은 큰스님 같은 대선지식을 만나서 그 고리를 풀든지, 아니면 본인이 수행을 열심히 해서 그거를 녹이지 않으면, 한 생을 마감하고도 다음 생에 또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큰스님 그거야 그렇죠. 그런데 길을 가다가 댁 같은 사람만 만나도 고리가 풀어질 거야, 아마. 하하하….

질문자2(남) 저는 올해 초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위암에서 간으로 전이된 말기 암이라고, 손을 쓸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올 7월에 죽음의 문 앞에까지 가서 사경을 헤매었는데, 저도 이 한마음선원을 접한 지는 채 얼마 되지도 않았고, 불교의 법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집사람이 진주 선원에서 천도재를 올렸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스님께서 '숨통은 틔워 놓았다' 고 하셨다고 집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큰스님 뭐를 했다구요?

질문자2(남) 천도재요. 집사람이 천도재를 지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런데 거짓말같이, 진짜 거짓말같이 제가 그 뒷날에 바로 일어나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뭔가 있구나!' 그래, 어떤 절인지 가서 구경이나 한번 하자 싶었습니다. 그래서 단숨에, 중환자인 제가 승용차를 몰고 한 4시간 만에 몰고 본원까지 왔었습니다. 그런데 스님을 친견을 못 하고 내려갈 때는 힘이 좀 빠지더만요. 저희 집안에 친당숙 삼촌들이 한 8명이 젊은 나이에 암으로 다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종손이면서 장손이고, 저 밑으로 한 50여 명이 있습니다. 잘 먹고 잘살 때는 몰랐는데 이제 그 고(苦)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음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게끔 큰스님께서 저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스님 허허허…. 그 순간에 벌써 댁의 마음의 문이 열렸으니 뭐, 저절로 담길 게 아닙니까? 참 고마워요, 생각을 그렇게 해 주니까. 내가 고맙다 할 일은 아니지만, 이 세상 이치가 사람 눈에 보이는 것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허공에 있으니까요.

질문자3(남) 스님! 제가 요즘 둘 아닌 도리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 너만이 할 수 있잖아.' 이렇게 들어갈 때는 참 편한데요, '둘이 아니잖아.' 이랬을 때는 뭔가 편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름대로 관해 본 결과 '아, 제대로 믿지를 못하고 있구나.' 하는 걸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스님, 진정한 믿음의 공덕을 좀 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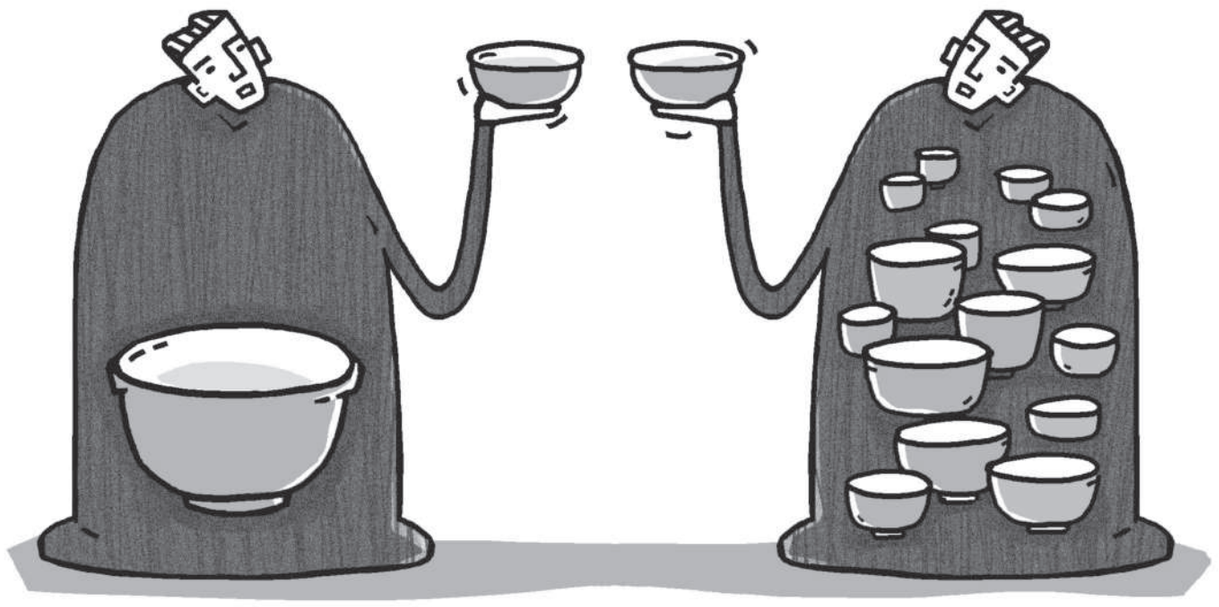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큰스님 '너만이 낫게 할 수 있잖아.' 하는 거는 진짜로 믿으니까 그렇죠? 또 '둘이 아니잖아.' 하는 거는, 즉 말하자면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둘이 아니잖아.' 이 소리가 나오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유전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대대로 유전으로 인해서 그렇게 수백 년을 내려오는 사람들도 있고 수천 년을 내려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잠시 잠깐 만에 그 유전을 해체시킬 수 있는 공부가 바로 이 공부입니다.

어저께가 과거입니다. 어저께가 과거고, 아까 한 시간 전이 과거니까, 우리가 과거다 미래다 또는 현실이다 할 게 없이 그대로 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도 자기가 하는 게 아니죠. 얼른 쉽게 말해서, 내가 목이 말라서 물 한 컵을 먹는다 해도 내가 목이 마른 게 아니라 이 속에서 목이 말라서 달라니까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는 게 아니죠. 내가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듣는 게 아니고, 모든 게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근본에서만이 자기의 모든 걸 리드해 나갈 수 있죠.

그러니까 부처님을 처음에는 '저건 형상이지.' 이렇게 따지시지만 '일체제불의 마음' 그 노래를 가만히 들어 보신다면, 해 보신다면 아실 거예요. 내가 몸이 몽땅 공해서 비었다면 저 부처님과 같다. 부처님과 같으면 모든 게 갖추어져 있다. 모든 게 갖추어져 있으니 못 볼 게 없고 못 할 게 없고 못 건질 게 없고, 모든 게 다 그렇다. 이걸 말로 어떻게 다 하리까.

그러니까 모든 게 이 마음에…, 내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한다거나 또는 말을 잘못한다거나 이러는 원인도 눈 하나가 잘못 보기 때문에 잘못 말을 하고 잘못 생각을 하게 된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에 그냥 공체로 봐라. 공식으로 봐라. 아무리 강도라도 강도가 아닌 사람이 강도를 볼 때는 강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강도면 강도로 봅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이 곱고 텅 빈 사람은 그대로, 악이든지 선이든지 그걸 가리지 않고 불쾌하게 하질 않습니다.

사찰마다 스님네들이 노비를 얻으러 옵니다. 그런데 얻으러 오니까 싫죠. 얻으러 오니까 싫은데 그게 얻으러 오는 게 아니고 '내가 전자에 빚을 졌기 때문에 주는 거다. 갚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 아주 쉽죠. 그러니까 모든 일이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생각을 인의롭게, 섭섭지 않게 잘한다면 그건 모두 보살 케이스에 들어가는 거고 그렇지 못하다면 보살 케이스에 들질 못해요.

일거수일투족을 다 잘하기만 하겠습니까만 "잘하든 못하든 무조건 거기다 놓고 관해라. 거기다 놔 버려라. 네가 공해서 없다면 모든 게 없는 걸 증명할 수 있다. 함이 없이 하는 거니까 네가 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배를 탄 것도 아니고 배를 안 탄 것도 아니고, 내가 과거에 어머니 배 속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내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갈 것도 없다." 이게 모두가 끊어진 상태죠. 예를 들어서 "배움이 끊어진 사람은 한가하기 짝이 없는데, 망상도 버리지 않고 선한 것도 구하지 않는다." 이런 게 있습니다. '선한 것도 구하지 않는다, 악도 버리지 않는다' 이래도 그 가운데서 자기가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런 걸 다 아니까. 저절로 자동적으로 모든 것이 다 둘이 아니게 되죠. 하다못해 날아다니는 새 하나, 벌레 하나라도 다 둘이 아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급하면 새들도 와서 일러 주고, 이런 수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 모두, 날아다니는 새들도 그렇고 짐승들도 직감적으로 다 잘 아는데 사람들은 요기서 요 한 발짝 사이도 몰라요. 그래서 죽지 않습니까, 모두? 날아다니는 새들도 자기가 맞으면 죽는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미리 가는 새도 있고, 미리 탈출하는 짐승도 있지만 사람은 그걸 모르고 죽는다 이거죠. 그것들은 알고도 힘에 겨워서 죽는데, 사람은 피할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그냥 모르고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알게끔 다 해 놨는데 왜 모르고 사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고등 동물이라고 그러죠. 사람이 찢고 찢기면서, 먹고 먹히면서 살아온 것이 얼맙니까? 그걸 생각을 안 하니까 그렇지, 생각을 하면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힌데 나는 지금 뭐가 급하냐. 이 주머니 속에서 내내 수없는 나날을 그냥 그렇게 살겠느냐, 탕탕 털고, 탁탁 털고 나서겠느냐 하는 겁니다.

질문자3(남) 스님, 부처님께서는 크게 불사를 일으키신 왕을 보고 전륜성왕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달마 조사께서는 똑같은 행을 한 왕을 보고 공덕이 없다고 했었고 결국은 스님 자신을 죽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달마 조사님의 둘 아닌 뜻은 무엇입니까?

큰스님 달마 스님이 그걸 똑바로 가르쳐 줬는데도 그걸 모르고 그렇게 죽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죽었는데도 "나는 이렇게 죽지 않았다. 나는 산 것이 없기 때문에 죽을 것도 없었다. 너희들 똑바로 봐라." 하고서 신 한 짝을 주장자에다가 걸고서 보여 줬다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이날까지 그 말씀이 내려오고 있으니 그 왕도 얼마나 한탄을 했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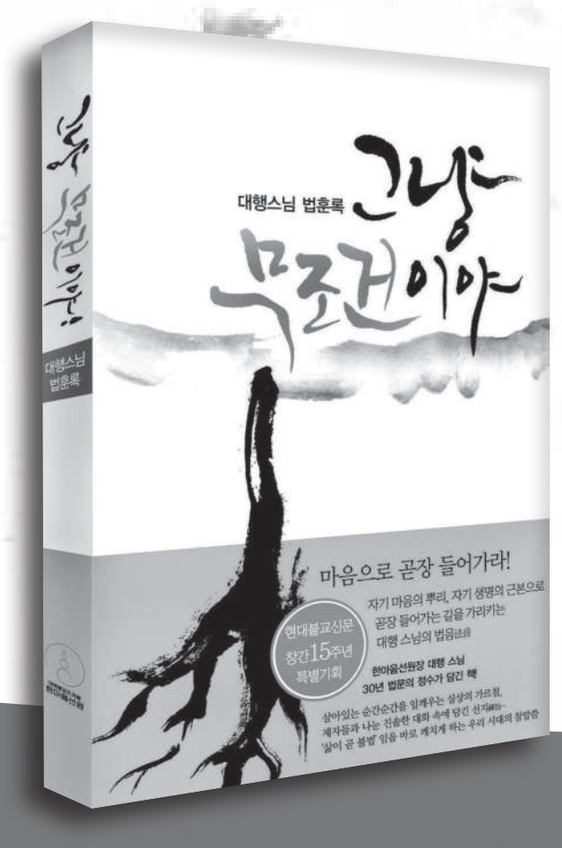
질문자3(남) 그러면 그 왕이 그 스님을 죽인 죄에 대한 업은 없는지요?

큰스님 그거를 뉘우치고 둘 아니게 봤다면 없을 것이고, 둘로 봤다면 그거는 인과성으로 또 흘러 내려가겠죠.

질문자3(남) 지장보살님은 지금도 지옥 문

☞ A18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시대의 참 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

옳고 그름이 둘이 아니니 옳은 것도 놓고 그른 것도 놓으라

☞ A17면에서 계속

고리에서 지옥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현상계를 보면 전혀 보람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지장보살님의 보람은 무엇입니까?

큰스님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아마 지장보살의 보람일 겁니다. 지장보살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마음이자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보살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보살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눈물을 싫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공부하려고 하시는 그 도리가 바로 보살이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얘깁니다. 그걸 항상 둘로 보시지 말고, 따로따로 이렇게 보시지 마세요.

질문자3(남) 예, 스님께서는 이미 다 구족하시고 부족하신 게 없으시고 더 이루실 것도 없으신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신 스님께서 시끄럽고 험악한 이 자리에 그냥 나투어 주고 계신 모습을, 그 마음을 느껴 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도저히 스님의 마음과 제 마음이 공감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스님! 제발 간절히 부탁드리건대 제가 스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을 때까지 역력하게 살아 계신 모습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스님 여러분, 제삼자인 내 마음을 아시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그저 없든지 있든지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항상 진짜로 믿고 '나를 내내 이끌어 왔고, 세세생생에도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은 너뿐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그렇게 한다면 모두가 그렇게 되죠. 이게 '나'라고 하니까 자기만 집어넣은 것인 줄 알고 또 누구 집어넣고 누구 집어넣고 이러죠? 집어넣는 과정에서 그 하나라는 거를 모르기 때문에 누구누구 다 집어넣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다면 복잡해서 못하시죠? 그러니까 자기 하나에다만 해도 그렇게 모두 전부가 된다는 얘기죠. 하나의 마음으로다가 둥글려서 하나로만 해서 모든 걸 집어넣는다면 땅속에서 사는 벌레도 알고 아마 인사를 할 거예요. "나는 이제 알았어. 나는 벌레의 모습을 이제 벗어날 거야." 하고 말이에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자기 몸뚱이를 이끌어 가는 자기 근본을 진짜로 믿고, 어디를 가나, 들어오나 나가나, 어떠한 일을 하든 그 모든 거를 오직 거기다가 맡겨 놓고 해 보세요. 모든 것이 그냥 그대로 공부예요, 그게. 진짜 공부는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 하는 게 아니라 "옳은 것도 거기 놓고 그른 것도 거기 놔라. 옳고 그른 게 모두가 둘이 아니다. 우리가 살아도 함이 없이 사는 거니까 모든 것을 그대로 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서로 토론 삼아 이렇게 하다 보면 더 빠르게 우리가 진행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11시부터 12시 사이에 급한 사람들은 와서 얘길 하고 가시고 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왜 그렇게 얘길 해야 하느냐. 어떤 사람은 그냥 와서 말을 해도 그냥 해결이 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줄창 와도 안 되죠. 왜 그럴까요?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게.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는 병이나 낫겠다' 하는 그런 욕심 때문이죠, 급하니까. 그래서 "급하다는데 어찌 스님은 그렇게 무관심하십니까?" 이런 사람도 어떤 때는 있었어요. 그런데 "급하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냐!" 그랬어요. "급하니까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냐!" 하구요.

그런데 와서 말하는 사람이나 또 생각을 해 주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 순간 찰나죠. 그거를 생각을 잘해야 되겠죠. '얼마나 밉고 곱고도 없느냐. 잘살고 못살고 그거를 평가하지 않느냐. 돈이 적고 많고를 평가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 모두를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 전깃줄이 요만하다면 저쪽에서 가져오는 마음도 전깃줄이 요만하겠죠. 그렇다면 요만한 걸 가져오느냐, 그 전깃줄마저도 안 가져오느냐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불이 안 들어올 수밖에요. 전깃줄을 요만한 거라도 가지고 와야, 마음의 문을 열고 진짜로 그렇게 하라는 대로 하면서 가져와야 이게 이어지면서 불이 들어올 텐데 말이에요. 한 쪽에만 있어도 그것은 불이 안 들어오죠. 한 쪽 줄만 가지고 불이 들어오겠습니까? 두 쪽 다 있어야죠.

그래서 이번에도 저기 가서 그런 얘길 했습니다만, '불교'라고 하는 그 언어 자체는 진리를 말한 것이고 생명과 삶을 말한 것이지, 그것은 종교를 말한 것이 아니다. 진리다, 그냥. 그런데 당신네들은 진리라는 거를, 종교라는 거를 이름을 지어 놓고 '내 종교, 네 종교' 하고 문제를 일으킨다. 잘났든지 못났든지, 애든 어른이든, 늙었든 젊었든 간에 모두, 자기 주처는 자기가 가지고 있어. 어린애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주처를 진짜로 믿는다면 자기의 소리를 자기가 듣고 산다 이거야. 과거 수없이 거듭거듭 지나오는 동안 자기를 형성시킨 자기의 소리를 듣고 산단 얘기예요. 자기 소리를 듣고 자기가 어떡한다 하면 그대로 자기 소리가 그냥 자기 소리죠, 뭐. 처음에는 그것을 듣는다 이러면 배우지만 나중에는 '배우는 것도 또 가르치는 것도 없다, 둘이 아니게 돼서.' 이렇게 되는 이치가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 나라마다 말이 다 각각이고 종교가 다 각각이지만, 내가 그래서 여기 기독교나 가톨릭교 다니던 분이 오시거나 그런다면요, 항상 그래요. "내가 나가지 말라고 그러는 게 아니다. 주님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네 안에 있다. 주처가 항상 자기 한테 있지 자기 빼놓고 뭐가 있느냐?" 이러죠. 자기가 자기를 빼놓으면 이 세상은 어딨고 상대는 모두 어딨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부터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부처님의 어느 제자가 아파서 그냥 일어나지도 못하니까 부처님 뵙기를 아주 소망을 했습니다. 그렇게 소망하는 줄 알고는 부처님께서 그 아픈 사람에게 갔어요. 그 집에 가서 좀 어떠냐고 하면서 들어가니까 일어나려고 하잖아요. 일어나려고 하는데 "일어나지 마라. 껍데기는 아무리 일어나려고 해도 소용이 없다. 그러니 그냥 드러누워 있되 너부터 먼저 알아라. 그래서 내 마음도 네가 알게 되면 너와 나와 둘이 아니니라. 둘이 아닐 것이니 그렇게 해라." 하더랍니다.

알든 모르든 자기 몸뚱이를 이끌어 가는 자기 근본을 진짜로 믿고
어디를 가든, 어떠한 일을 하든 모든 것을 오직 거기 맡겨 놓고 해 보세요.
모든 것이 그냥 그대로 공부예요.

그런 거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껍데기로 이렇게 휘휘 젓고 다니다가 정말 그릇대로, 차원대로 살다가 죽으면 자기 인연 따라서 가는데, 인연 따라 가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번에 독일 수용소에 가서 천도를 시키는데요, 모두 두더지, 쥐 이런 걸로 태어난 사람, 그리고 그다음에는 그 안에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 흙벽 안에서도 나오지 못하는 사람, 또 나와서도 오고 갈 바를 몰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자기가 당하고 살던 그 환상이 눈앞에 벌어져 있으니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 환상들을 다 치워 주니까 그때서야 다 나온 거죠. 그리고 쥐나 두더지나 다람쥐 뭐, 이런 걸로 된 것에다가는 입력을 해서 넣어 줬지요. 꼬리표를 붙이지 않았어도 입력을 해서 넣어 줬으니까 꼭 몸을 벗으면 바로 인도환생이 되죠.

그러니까 쥐들도 다들 알아듣고 얼마나 좋아서 뛰는지 정말이지 실감을 하면서 뭐라고 나는 혼자 중얼거렸느냐 하면요, "여기 온 것이 참, 내가 당신네들한텐 큰 심부름을 했구나. 그런데 내가 한 거는 하나도 없구나." 하고요. 내가 한 것이 없다는 뜻을 아시겠습니까? 함이 없이 한다고 항상 그랬죠. 내가 한 거는 하나도 없구나. '내가'라는 게 뭔가. 내 모습이 내가 아니니까. '내 모습이 아닌 바로 나 자체가 이 모두를 함이 없이 한 거니까, 대단히 좋은 일을 보살 부처님께서 모두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학교에서 종을 울리면 애들이 다 모이죠? 그와 같으니까요. 그래서 큰 보람을 느꼈어요. 내 마음도 참 좋았구요.

그리고 어느 성당인데 이 지하로다가, 그걸 뭐라고 그러나? 땅굴을 파서 왜, 이쪽저쪽으로 굴을 파서 숨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숨었는데 그게 무너지면서 벽 사이에 모두 묻힌 거예요. 그래서 그 굴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다 붙들어 가고 그 굴에 들어간 사람은 붙들어 내오질 않았다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랬는지. 그런데 그것이 있다고도 볼 수 없고 없다고도 볼 수 없겠죠. 하지만 있는 건 있는 건데 어떡합니까.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지구 안에서도 이렇게 수없이 나면 죽고 나면 죽고 나면 죽고, 낳고 또 죽고 낳고 또 죽고 이렇게 끊임없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많은 인파를 개개인으로다가 나오게 한다면 문제가 좀 크지 않은가. 지구는 요만한데 사람들이 많으면 지구 그릇이 무거워서…. 무거운 거는 아니죠. 무겁지는 않은데 정도가 넘어가면 무조건 사람이 그냥 여기서 뭉텅 죽든지, 저기서 뭉텅 죽든지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해서 잘, 내 나름대로, 내가 한 일도 없지만 한 일 없이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뒤의 부처님을 곰곰이 잘 들여다보세요.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오장육부도 전부 비고, 손발이 있는데 걷지 못하고 쓰지 못하니까 손발도 없죠, 머리도 없죠, 전부 없죠. 없으니까 세상 허공에 꽉 차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조금이라도 붙어 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6·25때 그렇게 사람들이 모두 부처님을 놔두고 가고 뭐, 긴 염주 그런 거를 다 팽개치고 가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새삼스럽게 느낀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우스워서 웃다가 하는 말이, 혼잣말이에요, 이게. "만날 조금도 놓치지 않고 예배를 올리고, 조금도 놓치지 않고 목에다 걸고, 조금도 놓치지 않고 다니던 사람들이 어째 다 버리고 갈까." 하구요. "진짜로 저렇게 다 버리고 갈 수만 있다면 저 부처님은 자기하고도 둘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항상 같이 응할 텐데…." 하구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공부라고 하는 것도 딴 사람이 듣기에는 '저 스님은 만날 좌선도 안 시키고 뭐, 뭣도 안 하고 생활 불교로만 가르친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저는 태평하게 그냥 놔두는 겁니다. 태평하게 놔두면 스스로 여러분들이 각자 다, 앉고 싶을 때 앉을 거고, 일어날 때 되면 일어나고, 일할 때 되면 일하고, 누워서 잘 때 되면 잘 거 아닙니까? 그게 다 참선이란 말입니다. 만약에 그게 조금이라도 틀린다면 벌써 이건 참선이 아니죠. 그건 끊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는 오장육부를 다 가지고 있지만, 귀도 가지고 눈도 가지고 코도 가지고 입도 다 가지고 있지만 함이 없이 이끌어 가는 데가 있구나. 함이 없이 하는구나. 함이 없이 사는구나. 그런데 좋은 마음을 쓰라고 하는 마음은 항상 갖게 해 주었구나. 인간이라 갖게 돼 있구나. 나쁜 것 좋은 것은 알게 돼 있구나.' 이거 말이에요. 나쁜 것 좋은 것도 모른다면 짐승과 같죠, 뭐. 그래도 짐승은 인연을 알아서 주인이 죽게 되거나 이런다면 그 식구를 살리기 위해서, 그만큼 받았으면 그만큼 해요. 집이 무너져서 식구가 다 죽을 텐데 쥐가 나와서 소리를 내고 춤을 추니까 바깥에서 무슨 소리냐고, 식구가 다 나와서 구경을 하는 동안에 그 집이 무너져서 식구들을 다 살렸다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하며, 아마 예전에 얘기를 다 했을 거예요.

'나' 하면 나는 없는 겁니다. 나는 나 아닌 나와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함이 없이 모든 거를 하고 있으니까 모두 그놈이 하는 거죠. 그놈이 하는데 그놈이 그놈이 아니라 그놈이 그놈이죠.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다 보면 첫째, 이 공기주머니 안을 벗어날 거고, 공기주머니 안을 벗어나서 자유스럽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에너지로 발생을 해서 진화가 돼서 살든지, 이 지구만이 아니라 여기저기 뭐, 우리가 살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니까 그렇지 우주도 많고 혹성도 좀 많습니까? 별성도 많고요. 그런데 그런 데서부터 우리는 종자가 생겨서 이렇게 인간으로 된 거니까요. 이 공기주머니도 그렇게 해서 내려준 거구요. 우리 생명이 생기니까 그렇게 공기주머니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있을 동안에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같이 또 만납시다.

※위 법문은 99년 9월 5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www.1027beopnan.kr



제3회 10.27법난 문예공모전

2019.6.17(월) - 2019.9.20(금)

「10·27법난」이란?

1980년 10월 계엄사령부의 합동수사본부 합동수사단이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대한불교조계종의 승려 및 불교 관련자를 강제로 연행·수사하고, 포고령 위반 수배자 및 불순분자를 검거한다는 구실로 군·경 합동으로 전국의 사찰 및 암자 등을 수색한 사건을 말합니다.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주관 총무원 사회부 · 불교신문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공모개요
- 공모부문 : 시 · 산문 · 만화
- 공모내용
  - 시 : 2편이상(편당 분량 제한 없음)
  - 산문 : A4, 4장 이상 (종류 : 수필, 기행문, 콩트, 주장글 등)
  - 만화 : 1편(A4, 4컷 또는 8컷)
- 응모기간 : 2019.6.17(월) ~ 9.20 (금)
  ※작품접수(우편 혹은 홈페이지)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결과발표
- 결과발표 : 2019. 10. 4(금), (첫째주 발표)
  불교신문, 1027법난 문예공모전 홈페이지 게시예정

시상
- 시상인원 : 총 40명 내외 (일반 24편, 청소년 16편 등)
- 시상금액 : 총 3,740만원 상당

구분	시상수		부상
	일반부	학생부	
대상	3편 (부문별 각 1편) (총무원장상)	2편 (부문별 각 1편) (동국대학교 총장상)	일반 : 상장 및 상금 300만원 학생 : 상장 및 상금 200만원
최우수상	3편 (부문별 각 1편) (총무원장상)	2편 (부문별 각 1편) (동국대학교 총장상)	일반 : 상장 및 상금 200만원 학생 : 상장 및 상금 100만원
우수상	6편 (부문별 각 2편) (불교신문 사장상)	4편 (부문별 각 2편) (불교신문 사장상)	일반 : 상장 및 상금 100만원 학생 : 상장 및 상금 50만원
장려상	12편 (부문별 각 4편) (불교신문 사장상)	8편 (부문별 각 4편) (불교신문 사장상)	일반 : 상장 및 상금 50만원 학생 : 상장 및 상금 30만원

※ 일반부 : 누구나 응시 가능
(만화부문은 불교적 주제관련 이외 사회, 환경에 관한 주제도 응시가능)
※ 학생부 : 산문, 시만 응시가능. (만화는 응시 할 수 없음)
만화응시시, 일반부로 지원가능
※ 상종 및 시상 내역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접수방법
- 접 수 처 :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신문 (☎02-730-4489)
- 접수방법 : 홈페이지 접수(http://1027beopnan.kr) / 우편(방문) 접수
  - 홈페이지 접수 : 응모하기 메뉴에서 작품 파일 등록
  - 우편·방문 접수 : 03144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67 전법회관 2층 1027법난 문예공모전 담당자 앞
※ 만화의 경우 원본 추가 접수

주의사항
- 모든 응모자는 응모 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 우편으로 제출 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작성 출력하여 제출.
- 홈페이지 접수 시 시 · 산문은 한글파일, 만화는 이미지 파일 첨부할 것
- 기존에 출품되지 않은 신작이어야 하며 순수한 창작물에 한합니다.
- 인적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응모작품이 순수한 창작물이 아닌 모방, 표절, 대리 작성된 작품으로 판명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며 수상 이후에 이같은 사실이 밝혀질 경우 수상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심사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심사를 통해 수상작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수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입상자의 판권 및 저작권 등 제반 권리는 주최측에 귀속됩니다.
- 참가비 없음

문의
공모전 담당자 박수진 : 1027contest@naver.com , 010-6611-4977

현불 논단

아이들과 공부하기



주경 스님
수덕사/동국대감사

반철산행 동행한 불자님 부탁
절 오는 것만도 기특한 아이들
자녀들 위한 영어공부를 맡겨

교과서 아닌 자습서 위주 공부
굳이 학생들에게 필요한가 의문

변별력 가릴 문제를 위한 문제
다른 책으로 공부할 것을 권유
이제는 글쓰기 공부로 이어져

반철산행을 함께 했던 불자님이 자신의 아이들에게 영어공부 시간을 내어줄 수 있느냐고 물어왔다. 흔쾌히 좋다고 답했더니 고1 누나와 중1 동생 남매가 부모님과 함께 절에 왔다.

출가 전에 동생을 가르쳤던 경험이 있고 절에 와서는 동자들이나 신도 자녀들과 함께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지곤 했다. 특히 여행 중에 혼자 공부하여 영어실력을 쌓은 경험이 있고, 신문이며 잡지 등에 20여 년 글을 쓰다 보니 책을 몇 권 내게 된 까닭에 아이들과 함께 영어 공부를 하거나 글쓰기 지도를 하는 일은 흥미롭고 즐거운 시간이곤 했다. 산행 중에 아이들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때 마음에 담았다가 자녀들과 이야기를 해서 함께 절에 온 것이었다.

부모님은 법당에 법회를 가고 아이들과 마주 앉았다. 아이들을 보며 신통하고 기쁜 마음이 들었다. 절에 오는 것만 해도 만만한 일이 아닌데, 스님과 공부하러 가자는 말에 마음을 낸 것이 무척이나 예쁘고 착하게 생각되었다. 차 한 잔 나누며 고등학생이 가져온 영어책을 살펴보았다. 교과서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자습서를 가져왔다. 살펴보니 우리 국민학교 시절 전과처럼 단어와 해석을 비롯하여 다양한 설명들이 있어서 정말 공부하기 쉽게 만들어진 책이었다. 고등학생에게 왜? 이런 자습서가 있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중학교 이후로는 사전과 자료들을 찾아가며 스스로의 힘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고 익혀야 하는데, 고등학생마저도 자습서에 의존하여 공부하고 있다니! 놀라운 생각이 들었다. 물론 자습서도 효용성이 있으니 만들어진 것일 테지만.

편안한 페이지를 펴서 함께 읽어가며 공부를 시작했다. 더듬더듬 읽어가며 우선 끊어 읽는 포인트를 찾아갔다. 동사에서 끊고, 전치사와 접속사에서 끊고, 그렇게 두 단어 세 단어 또는 구와 절이 한 단어처럼 느껴지게 반복해서 읽고. 점점 한 문장이 단지 서너 개의 단어처럼 느껴지게 읽는 연습을 하며 읽어갔다. 처음에 단어공부를 따로 할 필요 없다는 말에 의아해하던 아이가 읽는 연습을 하며 그 의미를 이해해가고 있었다.

그렇게 3주간 영어공부를 함께 했다. 중1 동생은 그냥 누나의 공부를 옆에서 보고 듣기만 하면서도 꾸준히 자리를 함께 했다. 약속한 마지막 시간인 넷째 주에는 아이가 국어공부를 하자고 했다. 가져온 책을 꺼내는데 역시 문제집이었다. 왜 교과서를 가져오지 않느냐고 물으니 교과서는 쉽다고 한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다 같은 문제집을 풀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그 책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한다.

몇 개 표시해둔 틀린 문제들을 읽어보았다. 나에게도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문제들이었다. 그리고 문제 해설에는 제시된 답들이 상당히 유사성이 높아서 정답을 가리기기 쉽지 않을 거라는 친절한(?) 안내문도 써놓았다. 몇 개의 문제를 읽어보다가 책을 덮었다. 그리고 "이 책으로 공부하지 말아라"고 권했다. 또 같은 말을 한다. "다른 아이들도 다 이 책으로 공부해요." 그래도 그 책으로 공부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했다. 그 문제들은 내게 마치 다섯 마리의 얼룩 강아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얼룩무늬가 제일 동그랗게 보이는 강아지를 찾으라는 것처럼 황당하게 느껴졌다. 변별력을 가리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심히 답답했다.

4주가 금방 지나갔고, 아이들이 글쓰기 공부를 같이 해보겠다고 한다. 잠시 쉬어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두 주 쉬고 다시 보기로 했다.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참 새롭고 좋다. 그리고 무척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이다.



천미희의 **환경칼럼**

정리에서 얻은 순환의 힘

지금 우리 집은 난장판이다. 아들의 책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벌써 몇 박스가 지인의 집으로 갔지만 여전히 책들은 넘쳐난다. 옷 정리도 돌입했다. 아들의 옷은 거의 대부분이 아는 형들에게 받아 입었는데 그 옷들은 여전히 새 옷처럼 말끔하다. 그 옷들은 또 아는 동생에게로 다시 전해졌다.

다음은 장난감 차례. 아들의 장난감은 많기도 많다. 정리한다고 꺼내 놓으니 아들은 먼지를 다 털어내기도 전에 가지고 노는 재미에 쏙 빠져 버린다. 추억의 물건이라며 버리기를 거부하는 것들도 있다.

이런 아들을 보면서 어디에 있는 줄 몰랐던 물건들은 애초에 없는 것과 똑같음을 알게 된다. 아직 정리 시작 단계임에도 우리 집의 물건들이 구석에 처박힌 채, 제 역할을 못하고 있었다는 걸 계속 확인하자니 참 씁쓸하다.

늘 우스개로 해왔던 말, "우리 집엔 없는 게 없어. 다만 어디 있는 줄 모를 뿐"에서 이제는 "이게 여기 있었군"을 연발하는 중이다. 집안 구석구석에서 쏟아져 나와 거실을 장악하고 있는 수많은 물건들에 놀라며 내 삶의 '과잉'을 생각하게 된다.

한동안 집안이 지저분하더라도 집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꺼내 먼지를 털고 닦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비로소 반짝반짝 윤을 내며 깨어나는 물건들을 다시 만나는 즐거움도 크거니와, 그 물건들이 어떻게 나에게 왔는지, 또 이제는 어떻게 제 갈 길을 찾아 줄 것인지를 고민하며 내 지난 시간들과 그 물건이 품게 될 미래까지 함께 살아보는 일은 꽤나 흥미롭기 때문이다.

이런 나의 시간들이 '버리기'에서 한걸음 나아가, 물건의 끝없는 '여행'이 되기를 희망한다. 내 것과 남의 것의 분별이 사라지고 어느새 돌고 돌아 내 것이 남의 것이 되고 남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그런 시간들과 공간들이 '버리기'라는 단어에 깃들길 바란다.

우리 집엔 버려진 것을 주워 사용하는 재활용품이 많다. 어느 때인가 '남의 것'이었던 소파, 서랍장, 책꽂이 등이 이제는 또 잠시 '내 것'이 되어 있다. 한때 버려졌으나 나와 인연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들이 있듯 이제 나에게서 떠나가는 것들 역시 그렇게 새로운 인연을 만나 제 역할을 다하면서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물건이 떠나간 자리에 생긴 우리 집의 공간은 새로운 인연들, 그들과 나누는 이야기와 웃음으로 채워질 것이다.

버리기를 시작하고 나서야 나는 오히려 '풍족'을 절감한다. 쓰지도 않으면서 그 물건에 얽매여 있던 내 마음을 본다. 물건을 갖지 않은 무소유가 아니라 물건에 대한 집착이 없는 마음을 물건을 버리고 나누며 연습하는 중이다. 어디 물건뿐이랴. 내게 잠시 머물다 흘러가는 물건들처럼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 · 느낌 · 생각들도 잠시 내게 머물다 사라지는 것일 뿐, 진정한 내 것은 아님을 알아차려야겠다.

물건을 비워내면서, 끝없는 소비를 불러오는 욕심을 같이 비워낼 것이다. 물건이 비워진 자리에 생긴 정갈한 공간처럼 아집을 비워낸 자리에 원만하고 밝은 기운을 채워 살고 싶다. 지구의 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나의 집과 그 공간 안의 나를 말끔히 비워낸다면 지구도 그만큼 정갈하고 밝은 기운을 품은 공간이 될 것이 분명하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기획실장〉

社說

불교평론 20돌, 지성불교 확산 계기

1999년 겨울 불교의 지성화를 기치로 한 불교계 작은 움직임이 있었다. 바로 〈불교평론〉의 발간이었다. 불교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냉철한 지성으로 바라보고자 출발한 〈불교평론〉이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불교평론은 창간 때부터 지원을 아끼지 않은 무산 스님과 불자대중의 원력으로 갖은 어려움에도 그 맥을 이어왔다.

수익을 내는 것은 엄두도 낼 수 없고, 발간 비용을 부담하는 것조차 힘든 불교계 계간지 시장에서 꿋꿋이 책을 펴냈다. 다양한 주제와 불교 안팎의 학자들의 목소리를 묶는 역할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온 건 물론이다. 불교계서 다루기 힘든 '성윤리' '종교폭력' 등 민감한 주제까지 서슴없이 다루며 지성불교의 횃불 역할을 자임했다.

그동안 불교계는 기복불교, 치마불교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이에 안주해 왔다. 시대와 함께 호흡하는 불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불교평론〉이 그동안 걸어왔던 길을 돌아볼 때가 됐다.

불교평론이 20주년을 맞아 '탈종교화'를 주제로 연 심포지엄에서 나온 진단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시대의 흐름은 종교를 하나의 기호상품화 하고 있다. 맹목적인 믿음에서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되기에 선택하는 하나의 생활양식으로 종교의 가치가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불교가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고 변화하기 위해서는 〈불교평론〉이 이끌어온 지성불교의 담론을 확산해야 한다. 부처님은 전법행을 통해 시대의 다양한 문제를 겪고 그 해법을 풀어냈다. 그 가운데 남은 가르침이 바로 불교가 됐다. 불교계가 〈불교평론〉 20주년을 맞아 새로운 지성불교의 불을 당기길 기대한다.

BBS사장 공모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달여 동안 후임 사장 문제로 표류하던 BBS불교방송 사장 선임건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BBS불교방송 사장 후보 추천권을 갖고 있는 (재)대한불교진흥원은 8월 23일 서울 마포구 다보빌딩 재단사무실서 이사회를 열고, 복수 추천된 선상신 · 최윤희 후보가 사퇴함에 따라 차기 사장 후보는 공모를 거쳐 추천키로 했다. 아울러 공모는 본인뿐만 아니라 외부 추천인의 추천으로도 접수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혔다. 보다 많은 인재들이 불교방송 사장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 자격의 문호를 넓히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BBS불교방송 사장 선임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공모가 많았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번에는 공모를 하지 않아 많은 이들이 의문을 품었다. 내용을 알고 보니 진흥원 이각범 이사장의 독단적 전횡으로 불교방송 사장 차기 후보 추천 과정서 별도의 경영계획서도 받지 않고, 사장 후보 선임위원회도 가동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절차상 공정성을 이유로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심지어는 '밀실 야합'이라는 말까지 돌며 따가운 시선들이 많았다. 그 과정을 지켜본 BBS불교방송 재단이사회도 함께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하지만 이제라도 다시 투명성 있게 사장을 공개 채용하기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 어떤 경우라도 원칙을 어겨 가면서 좋은 결실을 본 것은 거의 없다. 물론 진흥원 정관에 공채를 하라는 말은 없다. 하지만 BBS불교방송의 사장은 우리 불교계에서 중책인 만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 투명하게 인재를 선발해야 할 것이다.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참된 경영자를 뽑기 위해 대한불교진흥원과 BBS불교방송 재단이사회 모두 함께 머리를 맞대고 눈과 귀를 크게 열어놓아야 할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 남 지 사 : (051)512-1761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대 구 지 사 : (053)768-800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굴셀건
80ml × 60팩
13만원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無색소, 無방부제, 無화학첨가물로 만들어진 다슬기 엑기스!
껍찔채 가마솥으로 재래식 중탕해 고농축 멸균처리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강화에 좋은 다슬기, 간 기능에 좋은 껍질까지 들어간 2배 엑기스!
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물 맑고 공기 좋은 지리산 일대 국산 야생 느릅나무 껍질(유근피)!
가마솥에 오래 달여 진공포장해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위장을 맑게! 염증은 싹~ 가라앉히는 효과!
100ml × 60팩
6만 5천원
평안할 康
제품문의 : 칠성상회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130,000/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65,000원

탈종공고
• 사찰명 : 칠구정사
• 주 소 : 경남 거제시 동부면 거제남서로 3150-29
• 주 지 : 영공 (속명 : 강한유)
• 승 번 : 2557-1332
위 사찰과 위 본인은
수행 종풍이 맞지 않아 귀종에서
탈종을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4일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법하

신화불사
매물안내
법당 3포 27평(서울) 3,000만원
종각 육모정 8자칸(서울) 1,200만원
사주문 5포. 전면 11자. 측면 10자(서울) 800만원
요사채 ㄱ자. 33평(서울) 3,300만원
대중간 45평(서울) 4,500만원
한옥 ㄱ자. 33평. 재부(서울) 1억 2천(신재)
사찰 문화재 보유 / 1120평(경기) 35억
사찰 문화재 보유 / 1200평(서울) 80억
☎ 010-6545-2020

20년 경험 성지순례자의 도반
YESGOOD.CO.LTD
마하연 여행사
문의 02-365-7747
전화 www. mahayeon.com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 933호



천불천탑 미소의 나라
미얀마



8대 성지순례
인도 11일
사르나트-보드가야
-라즈기르-바이샬리
-쿠시나가르-룸비니
-쉬라바스티-상카시아


남방불교의 핵심
스리랑카
콜롬보-아누라다푸라
-미힌탈레-담불라-시기리야
-플론나루와-담불라-캔디
-콜롬보


4대 성지
중국
아미산 오대산
구화산 보타산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73-3722 팩스 031)573-3723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숙면이 보약입니다.
특허 제10-1337352호
1등 숯침대

숯침대의 효능 효과
① 부항과 뜸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좌욕효과가 탁월합니다.
② 신체의 전자장을 조절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쾌적한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③ 요통환자와 중풍,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에 도움이 되며, 손발이 차고 저리는 분에게도 효과가 있습니다.
④ 숯에는 수많은 공기구멍이 있어 구멍 속으로 공기분자의 흐름에 진통을 일으켜 원적외선 방출합니다.
⑤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여 피로해진 눈과 어깨를 보호, 전자파를 상쇄시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⑥ 강한 원적외선 복사열이 공기 중으로 방출되므로 이불을 덮지 않아도 구들장처럼 뜨겁게 방안 구석구석의 공기를 데워줍니다.
⑦ 냄새 제거, 공기 정화, 습도 조절, 전기요금 절감, 뛰어난 영구 보존.


취급 품목
◆ 숯침대
◆ 숯카우치
◆ 좌훈기
◆ 족욕기
숯침대Q : 3,300,000 → 판매가 2,200,000
숯침대S : 2,200,000 → 판매가 1,480,000
카우치 : 2,670,000 → 판매가 1,780,000
평 상 : 2,220,000 → 판매가 1,480,000
보료Q : 2,190,000 → 판매가 1,460,000
보료S : 1,590,000 → 판매가 1,060,000
주소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작은넙고개1길 78
구입 및 문의 | 031-532-3277. 533-3722. 010-7171-2636. 010-3576-6802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시공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

休 Mandala

‘마음쉼터를 가다’

⑥ 홍천 행복공장 무문관

無門關

대자유 위한 내 안의 감옥



‘철커덕’ 걸어 잠근 문처럼 온갖 바깥 세상으로 열린 마음 또한 일순간 정리가 됐다. 좁은 1.5평의 공간, 하얀 벽 사이로 뚫린 작은 창문 만이 세상과 통하는 길이다. 항상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도, 하루종일 빠져 있던 인터넷도 없다. 심지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조차 없다. 간간히 들리는 새들의 지저귐과 찌르레기 소리만이 동무가 되는 곳이 바로 무문관이었다.

바깥의 문을 걸어 잠그고 마음의 문을 여는 ‘무문관’ (無門關). 무문관에 대한 세간의 관심은 뜨겁다.

선방 수좌 스님들이 용맹정진하는 수행처란 기존의 의미에서 최근에는 재가자들도 동참 가능한 개인수행처로 의미를 확장하고 있다. 제방 선원의 전통적인 무문관이 있지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무문관, 혹은 개인수행처가 다양하게 생겨나고 있다. 매일 매일 쳇바퀴처럼 일상에 매진하던 대중들에게 무문관은 수행을 하는 곳을 넘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을 통해 새롭게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는 곳으로 각광 받고 있는 것이다.

대중들을 위한 무문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 중 가장 유명한 곳이 바로 사단법인 행복공장이 운영하는 행복공장 홍천수련원이다. 행복공장 홍천수련원은 ‘내 안의 감옥’ 이란 다른 이름을 갖고 있다.

행복공장 홍천수련원은 약 330여 평의 부지 위에 관리동과 강당동, 체험동의 3개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체험동에는 32개 독방을 갖추고 있다. 일단 독방에 들어가면 밖에서 문이 잠긴다. 바깥과 연결된 유일한 곳은 숲이 보이는 창문과 작은 음식 반입구가 전부. 프로그램은 가장 대표적인 ‘독방24시간’ 을 비롯해 ‘금강스님의 무문관’, ‘프리존 스테이’, ‘노지향의 유쾌한 감옥’, ‘황 신부의 내안의 감옥’ 등 다양하다. 48시간과 24시간 7박8일과 4박 5일 등 다양하지만 대부분이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교도소와 흡사한 건물 구조

행복공장 홍천수련원을 찾은 첫 인상은 마치 연수원 건물 같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대적인 건물이 주는 인상이 뇌리에 남아 있던 시간은 잠시 뿐이었다. 이른바 수감복인 푸른색 수행복을 입고 수감번호를 부여받고 운영실장의 뒤를 따라 체험동으로 향하자 조금은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왔다.

철문으로 된 건물입구부터 가운데로 난 계단과 마주보게 된 각 방의 구조 등 체험동은 영락없는 교도소였다. 각방의 문에는 작은 배식구가 나 있었고 문고리 마다 자물쇠가 보였다.

교도소와 같은 구조여서 일까. 건물 내부는 적막했다. 인기척이 없었으나 모두 각자의 방에서 수행 중이란 말을 들었다.

기자에게 배정된 곳은 207호였다. 행복공장의 내부시설은 단촐했다. 방문 아래에는 밥이 들어오는 배식구가 있고, 문 옆에는 커튼으로 가려진 작은 화장실이 있다. 그 뒤로는 요가매트와 거울이 없는 세면대가 있으며, 작은 협탁 위에 차를 마실 수 있는 포트와 다기, 그리고 글을 쓸 수 있는 메모장과 펜이 전부였다.

B2면에 계속



INSIDE

B3 조준호의 미얀마 수행처 이야기
빠옥 총림에서 생활 〈6〉

B4 책세상
전순환 역, 〈팔천송반야경〉

B5 문화
입체낭독극 ‘석가탑’

B6 학술
동국대 2019 불교박사학위 논문

“쉼도 정진도 오로지 자신 의지에 달려”

‘홍천 행복공장 무문관 체험기’

B1면에서 계속

메모장과 펜을 가져다 놓은 것은 떠오르는 자신의 감정을 차분히 기록해 보라는 의미 같았다.

신기함도 잠시 무문관에 들어서자 밖에서 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렸다. 성인 남성 기준으로 가로 세걸음, 세로 여섯 걸음 정도의 방에 갖힌 것이다. 평소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기에 부담스럽지는 않았다. 하지만 조용하고 심심한 시간이 계속되자 이내 무료함이 몰려왔다.

이런 무료함을 달래고자,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앞서 수행현장에서 배운 다양한 수행법을 참조해 호흡부터 가다듬었다. 조금씩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지속되고 머릿속은 깨끗해졌다. 문제는 자세, 반나절 가량 앉아 있자 다리에서 저릿한 감각이 올라왔다. 이 저릿한 감각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자연스럽게 내 몸의 감각에 집중이 됐다. 집중 속에서 다른 것들을 잊게 되는 순간, 자유로움이 느껴졌다. 작은 1.5평의 공간은 나를 가두는 감옥이 아닌 나를 해방하는 자유의 공간이 되었다.

적막 속에서 진행되는 정진

방에 앉아 좌선에 빠진지 얼마나 지났을까. 오전 10시를 알리는 괘종 소리와 함께 정신을 차렸다. 천장으로 나있는 스피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금강 스님의 법문이었다. 기자가 찾은 날은 금강 스님과 함께하는 무문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날이었다. 금강 스님은 행복공장 창립 초기부터 지도법사로 대중들을 이끌고 있었다. 현재는 연 2회 7박 8일 일정으로 폐관 수행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금강 스님의 무문관 프로그램은 매일 아침 108배와 법문, 개인 수행과 신청에 따라 개별수행 면담 등으로 구성돼 있다.

스님은 “안이비설신의 육근을 여의고 현재 앉아있는 상태에서 소소영령한 자기 자신이 더 없이 소중한 존재임을 느끼고, 그 자신에게 집중해 보라”고 강조했다.

서산대사의 선가귀감을 토대로 1시간 가량 진행된 금강 스님의 법문은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주었다.

“우리의 무의식 속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있어요. 생활 속에서 이러한 무의식들이 발현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과거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들입니다. 현재의 행동 속에 조금씩 무의식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무의식을 벗겨보세요. 구름을 뚫고 올라서 환한 빛으로 비추듯이 화두를 들다보면 훤하게 모든 것이 내려다 보입니다.”

스님은 홀로 앉아 수행하는 동안 일상생활에서 바깥으로 향했던 일종의 에너지가 자기 자신에게 집중된다며 평소 자기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 썼던 그 힘을 전환하는 것을 강조했다. 스님은 담담한 어조로 또 다른 화두를 건넸다. 죽비 소리와 함께 좌선은 이어졌고, 수련원 체험동은 다시 적막감이 감돌았다.

좌선 후에는 점심공양이 이어졌다. 점심공양은 각 방에 도시락으로 제공됐다. 창문으로 난 숲속의 산새가 동무여서 그럴까. 공양 배식동안 잠깐이나마 접하는 사람냄새가 반가웠다. 채식으로 이뤄진 간소한 식사 후 공양그릇을 내놓는 것으로 오전 일과는 마무리 된다. 이후 3시까지는 자율 정진으로 구성돼 있다.

무문관에서의 하루는 휴식과 정진 모두 수행자의 선택이다. 일정기간 푹 쉬면서 심신을 회복하고 본격적으로 가행정진하는 경우도 많다. 무문관 수행만이 7박 이상의 기간으로 잡혀 있는 것이 그 이유였다.

서울시 공무원들부터 변호사 등 참가자들의 면면은 화려했다. 행복공장 운영진은 업무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종에서 주로 찾는다고 귀띔했다. 무문관 프로그램이지만 불자들의 비중은 60% 수준이며,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일반인 비중이 보다 높다고 했다.

이런 대중화된 무문관 프로그램의 장점은 무엇일까. 미황사 ‘참사람의 향기’를 경험했던 김oo씨는 “조석으로 108배와 초심자를 위한 참선 강의 등이 함께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무문관에서 진행되는 개인 수행의 장점과 보통 진행되는 단체 수행의 장점이 모두 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이어 “다만 본인의 수행의지가 높아야 한다. 단순히 쉼이란 측면에서 무문관을 찾는다면 오히려 호텔 등을 찾는 것이 나을 수 있다. 무문관은 자기성찰과 수행을 위한 공간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스로 가두고 자유를 얻다

행복공장은 명상과 성찰을 위한 개인수행 공간을 만들자는 창립자의 생각에서 시작됐다. 2013년 검사출신 변호사였던 권용석 이사장은 검사 시절 교도소를 드나들며 가졌던 생각을 실천에 옮겼다. 바로 ‘교도소 독방에 들어가 주변과 연락을 끊고 아무 것도 생각하지 않고 쉬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행복공장은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친 이들을 위한 ‘쉼터’를 표방한다. 감옥이 쉼터이자 자유의 감옥이다. 비좁은 공간은 감옥과 같다. 화장실 세면대 등 영락없는 교도소의 독방이다.

권 이사장은 “제주지검 검사로 일할 때 눈코 뜰 새 없이 하루가 지나가고 새벽이 되어서야 퇴근했다. 너무 힘이들어 ‘아, 차라리 감옥에 갇혀 좀 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말했다. 아내인 극단 해의 대표인 노지향 대표와 함께 부부는 행복공장을 지었고 ‘내 안의 감옥’이란 이름을 붙였다.

앞서 얘기한 금강 스님의 무문관 체험 프로그램은 가장 긴 7박 8일간 진행된다. 2014년 이 프로그램이 생겨난 것은 노지향 대표가 미황사 참선 집중수행 ‘참사람의 향기’를 경험하면서 부터다.

금강 스님은 “처음 수련원을 구상할 때 무문관이라는 개념을 조언했다”며 “특히 인도 고엔까 위빠사나 센터가 교도소에서 진행한 단기수행 프로그램의 사례 등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스님은 “수행을 통해 삶의 방향을 전환해 한국사회를 바꿀 사람들을 배출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한다”며 “미황사가 산중사찰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것처럼, 이 곳이 대중들에게 수행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노지향 대표는 행복공장의 의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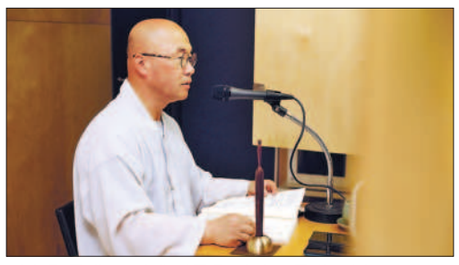
“우리는 가끔 멈춰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해요. 매일 매일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열심히 일하지만 정작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 어떤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지 생각하는 시간은 적잖아요. 이렇게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시간 속에서 돌아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홍천=글 노덕현 기자 · 사진 박재완 기자


행복공장 체험 등에서 좌선하는 참가자의 모습.


배식구로 점심배식하는 모습. 오후엔 불식이다.


행복공장 체험동 전경.


방송을 통해 각 방에 법문을 전하는 금강 스님.



감옥과 같은 형태로 지어진 행복공장 수행실 모습.

무문관 체험 수기

입소 첫날, 창가에 아주 큰 벌레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스태프분께 치워달라 부탁했는데 폐문 이후 무려 또 다른 3마리의 살아 있는 벌레와 맞서야 했습니다. 그것도 특대 1, 대자 1, 중자 1마리 벌레가 나타날 때마다 문을 열고 도와달라 할 수가 없겠다 싶어 스스로 상대하면서 심장이 벌벌 떨리는 끔찍함을 느꼈습니다.

“분별심을 내지 말자. 선악 미추가 어디 있나. 이 또한 나만큼 소중한 한목숨 지닌 생명이다.”

아무리 자신을 타일러 봐도 아찔하고 벌벌 떨리며 혼비백산해지는 순간이 다스려 지지가 않았습니다. 그중 갑각류인 대자 1마리는 변기 쪽 타일 바닥에 쓰레기통으로 눌러 두었는데, 쓰레기통을 들어 올렸을 때 죽은 벌레가 나와도 그걸 평상심으로 마주할 수가 있는지가 저 스스로 세운 일종의 수행척도가 되었습니다.

입소 직전, 직장에서 비상식적인 보직이동을 당한 일이 처음에는 화가 나고 억울한 일이었으나, 수행자의 관점에서 보면 좋은 성장의 기회요, 귀한 인연이 생기는 자리라는 깨달음이 있었고, 그래서 아주 기쁘고 설렌 마음으로 여기 왔습니다.

하지만, 참선 중에 테잎처럼 재생되는 지난 기억들을 보며, 제 마음에 여전히 억울함과 분노가 자리 잡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의식을 확고하게 이번 일을 행운으로 받아들였는데 왜 무의식은 억울함을 풀지 않았을까? 의문을 품은 채 수행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 이번 수행으로 깨닫게 된 것을 엉뚱해 보이는 망상과 잡념의 한 조각에도 다 저의 집착과 욕심, 습이 투영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직장에서의 일에 제 의식과 무의식이 불일치했던 이유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일을 수행자의 관점을 빌어 행운으로 여긴 것은 좋은 처세관을 건진 것뿐이지, 실제로 제가 집착과 탐심을 내려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일을 행운으로 여긴 것 자체에도 또 다른 공명심과 이기심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제 집착과 탐심, 분노와 화를 다 내려 놓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수행자의 관점을 비는 것으로 응급 처방을 삼아 살아야 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무문관에서 금강스님과 역대 조사스님의 지도를 받으며 본래 마음을 잃은 쩨쩨하고 비루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예전보다는 훨씬 배짱 좋게 대장부 마음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 김**씨





대승불교 '지계'하고 있습니까



조준호의
미얀마 수행처 이야기
⑯ 빠옥 총림에서 생활 〈6〉



산 정상에 함께 오른 빠옥총림의 수행자들. 출 · 재가자들이 허물없이 함께 수행한다. 저녀 노을과 함께 빠옥총림 전경이 보인다.

점심을 적게 먹고 노랑색 가사를 입은 스님이 나와 있었다. 당연히 스리랑카 출신 스님인줄 알고 질문 한 가지 하려 했는데 베트남 스님이다. 미얀마의 밤색 가사와 달라 스리랑카의 한 종파로 착각했다. 이 스님은 베트남이 대승권이지만 많은 불교도들이 자신과 같이 대승에 대한 전통적인 믿음을 벗어나 초기불교로 기울어지고 있다고 한다. 자신 또한 법랍 10년이고 대승에 속하지만 옷만 대승이지 마음은 초기불교의 상좌부라고 설명한다. 대승불교는 역사적인 관점이나 철학적인 관점에서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불교라고 한다. 관련한 이런저런 설명을 쉬지 않고 계속 이어나간다.

그러자 나는 화제를 바꾸었다. 인도 유학 시 많은 베트남 출신자들과 만나 많은 대화를 했는데 스님의 영어 발음은 베트남어 발음에 영향 받지 않았다고 하면서 "어디서 영어를 배웠느냐"고 물었다. 스님은 미국에서 20년을 살고 'University of West'를 졸업했다고 한다. 스님의 이름은 '광릉' 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다른 베트남 재가자도 만났는데 그 스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다. 재가자도 초기불교에 관심을 갖는 베트남 불교도들이 대부분이고 대승에 관심은 적다고 말한다. 베트남 불교는 한자문화권이자 같은 중국 선종의 계보를 잇고 있어 한국불교와 비슷한 점이 많다.

공양청을 나와 신발을 신으려니 들어갈 때 보았던 한 소년이 아직까지 서 있다. 지나가는 스님에게 왜 소년이 여기 서 있느냐하니, 무엇을 좀 받으려 한다는 것이다. 순간 줄 것은 귤 하나밖에 없었다. 공양 후 비위가 약간 좋지 않아 방에 들어가 비스켓과 함께 먹으려했는데 선뜻 줄 수밖에 없었다. 숙소로 오면서 얻어먹는 '거지가 다시 거지에게 먹을 것을 주었네' 라며 구걸 소년이 '최후의 거지(last Bhikkhu)' 라는 생각이들었다.

거처로 돌아오니 스페인 요기가 오개(五蓋)에 대해 묻는다. 이에 대해 설명한 후 이제는 내가 침대에 누워서 질문한다. "나는 스페인 생각하면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와 투우가 먼저 생각난다. 당신은 한국이라면 무엇이 생각나는가?"

그러자 그는 "한국음식과 김기덕 감독 그리고 그의 '봄 · 여름 · 가을 · 겨울' "이라고 답했다. 순간 놀랐다. 나 또한 학생들에게 불교 영화를 소개해주기 위해 보았던 영화였다. 스페인의 많은 사람은 김기덕을 기억하고 있으며 그의 영화에 크게 매료되었다는 설명을 해주었다. 영화의 실제 배경이 되었던 한국의 장소를 묻고, 다시 〈돈키호테〉와 투우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갔다. 그는 "문학 학자들은 〈돈키호테〉를 〈서유기〉와 비교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다. 이야기 속에 이야기를 끊임없이 진행시켜 나가는 구성은 근대 소설의 효시로 꼽고 있다"면서 "돈키호테와 마부의 성격 유형에 있어 스페인 사람은 대부분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마부 타입"이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그에게 "너는 어떤 타입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으니 답을 못한다. 곧장 "여기까지 온 것을 보면 돈키호테 타입"이라고 대신 답을 주자 환하게 웃는다.

오후 불식이라 이전에 비스킷 등 이것저것을 챙겨먹다가 시간을 보니 넘겼다. 12시 15분! 오후 좌선의 휴식 시간에 '좌선 보조 기구' 를 사진 찍어 두었다. 하나는 유럽인, 다른 하나는 알고 보니 스리랑카 재가자가 사용 중이다. 스리랑카 요기는 나더러 사용하라하여 일단 볼펜으로 가로 세로 길이를 재 놓았다. 우리나라에 가면 만들어 선방에서 오래 앉기가 힘든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쓸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이다.

오후 좌선을 마치고 만난 한국 스님들이 저녁 노을을 함께 보자고 권해 꾸띠를 지나 산등성이에 올라 강 건너 지는 노을을 구경하였다. 오면서 스님들에게 한국 선방에서 좌선을 위한 좌구가 있는지를 물으니 따로 쓰는 것은 없으나, 세납이 많은 스님의 경우 건강상 또는 연세상의 이유로 의자에 앉는 경우는 있다고 한다.

이어 한국불교의 출가자 감소가 심각한 상황인데 미얀마처럼 출가자와 재가자가 함께 선방 생활을 하여 재가자가 출가자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편이지 않는가를 물었다. 나의 질의에 스님들은 아직 "한국불교 정서상 힘들다" 고 답을 준다. 생각해보니 미얀마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해인사 선방이 한국불교 역사상 처음으로 하루 동안 일반인에 선방을 개방했다는 기사를 일간지 신문에서 본 기억이 난다. 선방 문턱이 높아 특별한 뉴스로 나올 정도이니 어떤 상황인지 짐작이 간다.

이곳에 있는 한국 스님들은 오히려 미얀마처럼

빠옥 등서 만난 대승불교권 스님
국적 떠나 '계율' 문제 공히 지적
상좌부 스님들 '지계' 긍지 높아
출 · 재가 함께 수행… 韓불교 도입을

출가자와 재가자가 같은 선방에서 공부하는 것이 편하고 좋게 느껴진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었을 때 출가자와 재가자가 잦은 마찰이 있지 않을까 우려했다.

양곤의 마하시 선원에 머물 당시 오랫동안 선원의 대중생활을 유심히 살펴 본 한 한국 스님도 비슷한 견해를 피력하였다. 이처럼 많은 대중이 함께하는 곳이면 한국에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대중공사를 붙일 소란이 일어날 터인데, 여기는 서로 없는 듯 큰 소리 한번 나지 않고 조용한 것이 그저 신기하다고 한다. 확실히 북방불교가 남성적이고 전투적인 면이 있다하면 동남아 불교는 여성적이고 부드러운 면이 있다. 대체로 중국 선종 영향의 불교가 긴장과 강단이 있다면 대신 상좌불교는 느긋함과 편안한 여유가 있다. 그것은 염불 소리에서도 나타난다.

오늘은 미얀마 수행처에 빠옥총림의 여섯 째 날(2012년 1월 27일)이다. 3시 30분에 일어나 새벽 좌선 시간을 갖는다. 두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 약 200명 정도의 스님과 재가자들이 마치 개인 처소와 같은 모기장 안에서 소리 없이 좌선한다. 가끔 산 닭 우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다. 선방의 불을 완전히 소등하여 잠을 자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오늘은 어디서인지 잠자는 것 같은 불규칙하고 거친 호흡이 감지된다. 이전에는 나 또한 눈을 완전히 감고 어두운 곳에서 좌선을 하면 더 빨리 집중이 되고 의식이 명료해짐을 느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명료한 것 같지는 않으나 앉고 나면 바로 끝을 알리는 게송을 듣게 된다. 집중이 잘 되어서 시간 개념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 새벽 좌선 시작과 끝은 부처님의 오도송으로 여겨지는 우다나 게송을 시작으로 12연기의 순관(順觀)으로 시작한다. 한국 선방이 죽비로 시작하고 맺는 것과 비교된다.

오전 좌선은 호흡관으로 열을 반복하다가 백까지 세는 것으로 늘려보았다. 빠옥 선사도 우리와 같은 수식관(數息觀)을 이야기한다. 백회를 하는데 놓치거나 잊는 경우는 없다. 오히려 한편으로 다른 생각을 진행시키는 나를 본다. 일상의 의식 상태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가끔 생각에 떨어지거나 빠졌을 경우 호흡을 세는 것을 잊거나 놓쳐 버린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는 가끔 일어난다. 기본적으로 놓치지 않고 잊지 않고 셀 수 있는 만큼 마음이 편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마음이 완전하게 투명하거나 명료하지는 않는다.

오후 참선 후 스페인 요기가 석양을 보러 산에 오르자한다. 전경이 시원하게 펼쳐진 곳에서 그는 여기를 떠나는 것이 슬프다고 했다. 스페인에는 자기 마음공부를 지도해 줄 선생이 없다는 것이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 여기 저기 많은 나라들을 다녀 본 사람이다. 불교를 통해 삶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행의 목적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화엄경〉의 선재동자의 구도 여행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다.

산꼭대기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 다시 중국 본토에서 상좌부 스님으로 출가한 5명의 젊은 스님이 지팡이를 짚고 올라왔다. 그 중 한 스님은 스페인 요기와 잘 아는 사이인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다. 나도 그 중 가장 나이든 스님에게 어디에서 출가하였느냐 물으니, 중국이 아닌 미얀마라 하며, 법랍이 4년 되었다고 한다. 다른 스님들도 비슷하며 운남성과 베이징 등 중국의 다른 지역에서 왔다. 왜 대승불교 승복을 입지 않느냐고 물으니, 이구동성으로 대승불교에 대한 불신과 비판을 했다. 상좌부야말로 계율을 철저하게 지키는 바른 불교이고 대승은 타락한 불교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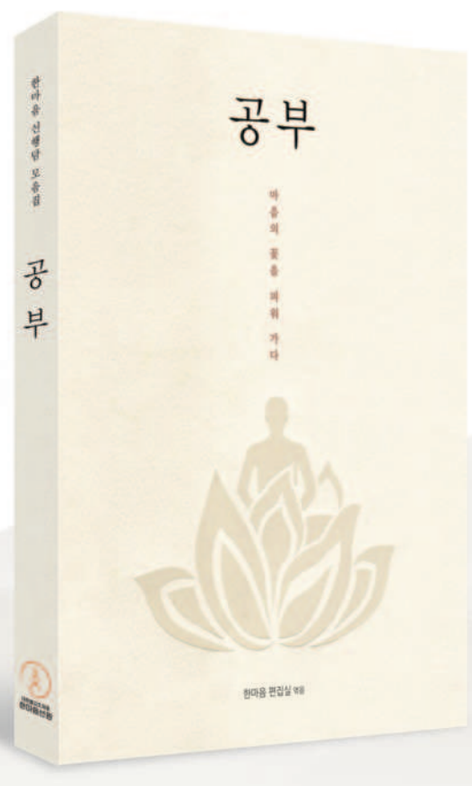
다시 중국에 돌아갈 것이냐고 물으니 중국에서 상좌부 불교 스님으로 지내기는 어려워 그냥 미얀마나 다른 상좌부 나라에서 평생을 지내겠다 한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 인도에서 대승불교가 흥기하면서 기존 불교와 충돌했던 사실과 현장 스님의 〈대당서역기〉나 혜초 스님의 〈왕오천축국전〉이 생각난다. 많은 동아시아 출신의 구법승들이 인도에 도착하여 다시 되돌아가기를 포기하고 인도에서 죽을 때까지 출가생활을 한다는 기록이 그것이다. 이유는 동아시아가 왕에 의한 중앙 통제적인 상황 속에서 불교 승려들의 통제와 관리가 심한데 비해 인도는 출가자로서 누릴 수 있는 자유가 크게 대비되는 점일 것이다. 현재까지도 그와 비슷한 상황을 이 곳 미얀마에서 중국 스님들을 통해 보고 있는 것은 마치 역사를 뛰어넘고 있다는 느낌이다.

이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이곳 상좌부로 출가한 스님들도 다시 한국에 돌아가 출가생활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된다. 양곤에서나 빠옥의 이곳, 어디에서도 공통적인 것은 계율 면에서 대승권의 스님들을 불신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얀마 스님은 미얀마 스님대로, 상좌부로 출가한 한국 스님은 한국 스님대로, 나아가 대승으로 출가하였지만 미얀마 체류기간 동안 이곳 승복을 입은 스님들조차 대승불교권의 문제를 계율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반대로 상좌부계 스님은 자신들이 계율을 잘 지키고 있다는 자부심 넘치는 긍지를 가졌다.

〈동국대 미래융합교육원 외래교수〉

마음의 꽃을 피워 가다 공부



한마음선원 신행 포교지인 〈한마음〉에 실렸던 신행담들 중에서 일부를 선별하여 엮은 책입니다.

《공부》는 마음공부에 관한 책이자 인생 공부에 관한 책입니다.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도반들의 진솔한 이야기,
다시 꺼내 보니 새삼 와 닿는 이야기, 그래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픈 39편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음 편집실 엮음 | 256쪽 | 값 12,000원

판매처
-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16
- 운주사 02-3672-7181
- 한마음선원 본원 무진향 031-470-3118
- 전국 온라인 서점 판매
- 온라인 주문 현불샵 http://www.hyunbulshop.com
  한마음 블로그 『한그루의 숲』 http://blog.naver.com/hanjournal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TEL : 031)470-3100 FAX : 031)470-3116
www.hanmaum.org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8/28~9/3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김원수	청우당	6	팔천송반야경 (산스크리트 원전 완역)	전순환	불광출판사
2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	혜민스님	수오서재	7	금강경 요해	노우스님	운주사
3	요가 디피카	B.K.S.아헹가/현천스님	선요가	8	죽음을 명상하다	조한 할러맥스/이상동, 김정숙	민족사
4	염불수행대전	주세규	비움과소통	9	과학자인 나는 왜 영성을 말하는가	루퍼트 셸드레이크/이창엽	수류책방
5	월인석보, 훈민정음에 날개를 달다	정진원	조계종출판사	10	도해 운명을 바꾸는법	석심전/김진무	불광출판사

산스크리트 완역으로 만난 최초 대승경전



팔천송반야경
전순환 번역/불광 펴냄/3만 5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부처님 열반 이후 초기불교 사상에 혁명성을 더한 대승불교. 그 태동이 담겨진 〈팔천송반야경〉은 〈금강경〉 〈반야심경〉의 기초가 된 경전으로 대승불교의 핵심 사상인 반야바라밀다와 보살 · 공(空)의 개념 및 진의가 모두 밝혀져 있다. 지금까지 〈팔천송반야경〉은 초기 대승불교 반야부(般若部) 최초의 경전이라는 중요성으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연구가 진행돼 왔다. 그중 특히 독일 괴팅겐대학, 미국 웨스트대학, 노르웨이 오슬로대학 등 서구의 여러 학술단체가 〈팔천송반야경〉의 가치에 주목하고 문헌학적 관점서 오래전부터 연구를 거듭했다.

산스크리트를 전공한 언어학자 전순환 박사 역시 〈팔천송반야경〉의 가치를 알아보고, 지난 10년간 철저하면서도 신중한 번역과 연구에 몰두했다. 그 결과물인 이 책은 한국 최초의 원전 완역이며, 세계에서는 에드워드 콘즈의 영어 번역과 가지야마 유이치의 일본어 번역 이후 세 번째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최근 연구성과 및 새롭게 발견된 사본 내용도 포함했다는 점에서는 세계 최초의 현대어 완역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영어와 일어 두 번역서의 부족한 점을 보완했을 뿐만 아니라 번역상 오류도 바로잡은 이 번역서는 〈팔천송반야경〉의 결정판이자, 대승불교의 맥을 잇는 한국불교에 귀중한 사료가 될 것이다.

반야부경전의 첫 번째 경전이자 대승불교 최초기 경전 중 하나인 〈팔천송반야경〉은 대승불교의 핵심 사상인 보살과 공(空)사상의 개념이 담겨 있다. 사상사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2천여 년 전에 성립한 문헌이라는 점에서 언어학의 보고(寶庫)이기도 하다.

독일서 언어학으로 산스크리트를 전공한 전순환 박사는 이 경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10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정밀한 번역과 연구를 해왔다. 이 과정서 언어학자답게 〈팔천송반야경〉의 산스크리트 원전 텍스트 전부를 음절 단위로 쪼개어 어원을 분석하는 방대한 작업을 마쳤다. 여기에는 미트라(Mitra)본, 오기하라(荻原)본, 바이댜(Vaidya)본 등, 현존하는 〈팔천송반야경〉의 산스크리트 사본 3종 모두를 비교 대조한 내용이 포함됐으며, 어원 분석만으로 어휘 사전 한 권이 나올 분량이다. 또한 에드워드 콘즈(Edward Conze)의 영어 번역(1978)과 가지야마 유이치(梶山雄一)의 일본어 번역(1974)도 모두 검토한 후 오류를 찾아내어 수정 보완했다. 뿐만 아니라 1999년 간다라 지역(현 파키스탄 북서부에 위치한 바자우르)의 옛 불교사원 터에서 새롭게 발굴된 〈팔천송반야경〉 사본 일부분도 연구 번역해 추가시켰다. 이처럼 지난하고 방대한 연구 과정을 거쳐 탄생한 책이 〈산스크리트 원전 완역 팔천송반야경〉이다. 대승불교가 발아하는 시기와 맞물려 탄생한 〈팔천송반야경〉에는 이타적 인간상의 표본인 보살의 의의, 그리고 공성(空性)의 담론이 펼쳐진다. 하지만 전순환 박사는 그동안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점을 꼬집는다. 바로 '반야바라밀다' 의 진정한 의미이다. 〈팔천송반야경〉서 수없이 반복되는 '반야바라밀다' 라는 말은 보살과 공, 그 밖의 어떤 단어보다 많이 언급된다. 즉 〈팔천송반야경〉의 핵심 내용은 '반야바라밀다' 에 있다는 뜻이다.

"空 알려면 반야바라밀다 알아야 한다"
10년간 3종의 산스크리트 사본 비교
기존의 영어 · 일어 번역 오류 교정해
세계 최초로 새로 발견된 사본 추가

전순환 박사는 반야에 해당하는 산스크리트어 쁘라즈냐(Prajna)를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한다. "팔천송반야경서 반야를 말할 때는 앞에 단어가 더 붙습니다. 바로 야타부탐(yathabhutam)입니다. 쁘라즈냐와 결합해서 해석하면 '사실 그대로 바라보는 것, 아는 것' 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반야의 뜻이고 다른 말로는 진여지(眞如智)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라밀다는 흔히 완성(perfection)이라고 번역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개념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경지, 상태' 를 가리킵니다. 경전에서는 '극도(極度)' 라고 표현합니다. 반야와 극도를 서로 맞물리면 극도의 진여지, 즉 '범접할 수 없는 경지에 오른 상태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이 되고, 이것이 반야바라밀다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사상도, 보살의 개념도 이 반야바라밀다를 기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같은 반야부경전에 속하는 〈금강경〉 〈반야심경〉을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이 경전들의 출발점이 〈팔천송반야경〉이기 때문에 반야바라밀다와 공의 진의를 알려면 이 책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를 통해 대승불교 이해에 깊이를 더하고, '범접할 수 없는 극도의 경지' 로 한 걸음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팔천송반야경〉은 기원 전후 100년 사이에 성립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어떤 사본이 원형에 가깝고, 그 성립 시기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대승불교가 태동하던 때와 같은 시대에 성립되었고, 최초의 반야부경전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산스크리트어로는 '팔천 개의 게송으로 이루어진 반야경' 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초기 대승경전인 만큼 이 경전을 통해 반야 사상이 움트는 모습과 그 속에 잠재된 공사상을 엿볼 수 있다. 반야부경전 연구의 권위자인 가지야마 유이치와 에드워드 콘즈는 반야경의 발전 단계를 4기로 구분한 후 〈팔천송반야경〉을 1기에 자리매김했고, 모든 반야부경전의 원형으로 보았다. 후대 학자들도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받아들여 반야부경전을 연구하는 기본 문헌으로 〈팔천송반야경〉을 매우 중시한다. 당시 이 경전이 쓰였을 시기의 문자는 기원전 500년 이전부터 쓰였다고 전해지는 브라흐미(Brahmi)이고, 언어는 간다리어를 포함한 중세 인도어인 프라크리트의 여러 방언들 가운데 하나였을 것으로 추론한다. 〈팔천송반야경〉이 반야부경전 뿐만 아니라 후대의 많은 대승경전 및 논서에 영향을 줬다는 점에서, 불교학은 물론 언어학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가치가 높은 문헌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자식 잃은 아비 세조가 부모님께 바친 사부곡



월인석보, 훈민정음에 날개를 달다
정진원 지음/조계종출판사 펴냄/1만 7천원

1446년 훈민정음을 반포한 지 10개월 만인 1447년 7월 칠석에 24권의 대작 〈석보상절〉이 완성된다. 그것을 보고 아버지 세종이 단숨에 노래를 지었으니 바로 600수에 가까운 〈월인천강지곡〉이다. 1446년은 훈민정음이 반포된 해이지만, 세종과 세조에게는 그해 3월 아내와 어머니 소헌왕후를 여읜 해이다. 나이 쉰의 아비와 서른의 아들이 세상이 무너지고 의지할 데 없는 큰 슬픔 속에 오직 바라는 한 가지는 소헌왕후의 극락왕생이었을 것이다. 때마침 그들에게는 출시를 앞둔, 세상을 가르칠 새로운 문자 훈민정음이 있었다. 이 새 문자로 먹고 자는 것도 잊을 만큼 열과 성을 다해 두 부자의 작품이 탄생한 것이다. 그 후 12년이 지난 1459년 세조는 고인이 된 부모님과 요절한 아들 의경세자를 위해 〈월인천강지곡〉의 '월인' 과 〈석보상절〉의 '석보' 를 따서 합한 책 〈월인석보〉를 만든다.

세조 5년, 1459년 집권도 안정적이고 한숨 돌리는 시간, 그는 수양대군 시절 아버지 세종의 명에 따라 만들던 〈석보상절〉을 다시 매만진다. 개인적으로 슬픈 일도 많았지만 이 〈월인석보〉 작업을 할 때에는 식음을 잊고 바쁜 정사서 시간을 쪼개가며 틈을 내어 했다는 기록이 〈월인석보〉 서문에 전한다.

저자 정진원 교수는 〈월인석보〉 스물다섯 권 중 첫 권을 현대국어로 옮기고 다듬어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붙였다. 세조의 절절한 사모곡과 사부곡, 자식 잃은 아비의 슬픔과 왕이 되기 위해 저질렀던 잘못의 참회로 가득한 〈월인석보〉 서문으로부터 석가모니의 과거세 연등불 시절 선혜와 구이 이야기, 불교의 우주관과 세계관, 모계 중심의 사회로 시작되는 인간 세계의 불교식 창세기가 〈월인석보〉 본문에 광대한 스케일로 촘촘히 실려 있다. 그 도저하고 유장하고 사무치는, 15세기까지 이어진 우리 선조의 정수를 담은 불교 이야기 〈월인석보〉는 현재 25권 중 19권이 발견된 상태로, 저자는 전권 번역을 목표로 한다. 저자는 주석을 일일이 풀이하기보다는 본문의 내용을 충실히 전달함으로써 독자들이 유려한 수양대군의 육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세주와 본문을 풀이했다.

최초의 조선 대장경, 조선 최고의 걸작 〈월인석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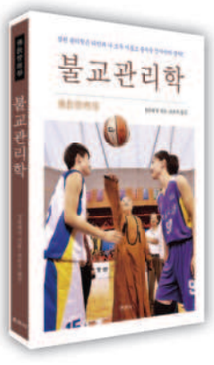
조선은 '유교' 를 국시로 삼고 억불숭유(抑佛崇儒) 정책을 펼쳤다. 심지어 세종은 삼국시대 이래 고려시대 불교를 대표하는 다섯 가지 교종과 아홉 산문에 자리 잡던 선종 5교 9산을 혁파하고 선종과 교종 곧 선교 양종으로 불교를 대폭 축소시킨 주인공이다. 그런 세종이 왕자인 수양대군에게 〈석보상절〉을 짓고 서문을 쓰게 한 사실이 〈월인석보〉 서문에 자세하다.

이 책은 석가모니께서 태어나고 열반에 드실 때까지의 일생과 설법한 경전 내용을 자세히 할 것은 자세히 하고 간략히 할 것은 간략히 편집한 조선시대 최초의 '훈민정음 불경' 이다. 〈월인천강지곡〉은 불교의 진리를 상징하는 달이 하나지만, 지상에 있는 천 개의 강에 똑같이 도장 찍히는 것처럼 부처의 진리가 온 세상에 두루함을 노래한 것이다. 특히 〈석보상절〉 내용을 게송처럼 요약한 것이다. 일반적인 불교 경전의 형식은 부처의 설법 내용을 전한 뒤에 요약한 게송이 이어지는 순서로 되어 있다. 우리의 최초 조선대장경도 그 형식대로 하자면 제목이 '석보+월인' 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수양은 세조가 된 뒤 5년 후인 1459년 아버지 세종의 노래 〈월인천강지곡〉을 앞세우고 아들인 자신이 쓴 〈석보상절〉 산문 순서를 뒤로 하여 '월인+석보' 의 순서로 만든 것이다. 조선식 대장경의 시작이다.

김주일 기자

대만 불광산사 성운대사의 포교 비법!

불교관리학



참된 관리학은 타인과 나 모두 이롭고 즐거운 것이어야 한다!

세간의 각종 관리 가운데 가장 관리하기 어렵고 중요한 관리가 바로 '사람'이다. 타인에게 믿음을 주고, 타인에게 기쁨을 주고, 타인에게 희망을 주고, 타인에게 편리함을 주어야 한다.

성운대사 지음/조은자 옮김/신국판/336쪽/값 16,000원

중국 선종의 중흥조, 마조 선사의 가르침!



마조어록 역주

각종 선종 사서에서 마조선사 및 그 제자들과 관련된 기연어구를 뽑아냄으로써, 중국 선종사에서의 선사와 관련된 거의 모든 기록을 총망라하였다. 원문은 물론이고, 철저하고 꼼꼼한 번역과 주요 한자어에 대한 풀이, 그리고 원문에 버금갈 정도의 방대하고 상세한 주석이 돋보인다.

마조도일 지음/강승욱 역주/신국판 양장/592쪽/값 28,000원



불면증, 즉각 벗어날 수 있다

절망에서 길어 올린, 불면증의 실체와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

생각 하나로 불면증이 사라진다!

"갑자기 잠이 달라졌습니다. 믿을 수 없는 현상입니다. 냉장고에 있는 약들 다 버렸습니다." (-치유 후기 중에서)

김명주 지음/신국판/304쪽/값 15,000원/자유문고

도서출판 운주사 | 자유문고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51년 만에 다시 오르는 오페레타 '석가탑'



신동엽문학 입체낭독극 '석가탑'
9월 6~7일 서울 여행자극장

오페레타 '석가탑' 입체낭독극으로
신동엽 타계 50주년 기념 공연
동국대사범대부속여고 학생들 출연
51년 전 학생들 위해 만든 오페레타
당시 자료 공연일에 책자로 발간


1968년 드라마 센터서 초연된 오페레타 '석가탑' 공연 모습.


입체낭독극 '석가탑'에 출연하는 동국대사범대부속여고 학생들과 연출가 김진곤.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詩 '껍데기는 가라'의 신동엽(1930~1969) 시인이 쓴 오페레타 '석가탑'이 51년 만에 다시 무대에 오른다.

신동엽학회는 신동엽 타계 50주기를 맞아 9월 6일(오후 7시)과 7일(오후 3시, 7시) 서울 여행자극장(한성대입구역 5번 출구)에서 신동엽의 오페레타 '석가탑'을 입체낭독극(낭독극에 춤, 마임, 노래, 가야금 연주 등을 결합) 형식으로 무대에 올린다.

이번 공연에는 신동엽 시인이 8년 동안 국어교사로 재직했던 명성여고(현 동국대사범대학교부속여자고등학교) 학생 10명이 배우로 출연해 의미를 더한다. 연출 김진곤, 조연출 정연재, 예술감독 초원, 작곡과 음악감독 정민아 등이 함께 한다. 이번 공연은 오페레타를 입체낭독극 형태로 옮기면서 음악을 19곡에서 10곡으로 줄이고 노래 번호, 등장인물 등을 일부 수정했다.

오페레타 '석가탑'은 신동엽 시인이 명성여자고등학교 교사 재직시절 작곡가 백병동과 함께 학생들을 위해 만들었다. 1968년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드라마센터에서 문오장의 연출로 초연됐다. 그리고 더 이상 공연되지 않았으며, 대본과 오페레타 악보조차 알려지지 않았다. 신동엽학회 회원인 이대성이 신동엽문학관에 소장되어 있던 필경등사본을 새로 발견해 학술논문을 발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입체낭독극으로 부활하게 됐다. 초연 당시 공연의 배역은 모두 명성여고 학생들이 맡아 신동엽의 취지대로 학생들에 의한 학생들의 공연이 됐다. 하지만 이 사실 역시도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공연에서는 51년 전 초연 때와 마찬가지로 동국대사범대부속여고 학생들이 출연한다. 윤은채, 박지수, 강현지, 반수아, 김세민, 김소현, 윤여울, 김다영, 서민경, 유혜연 학생이 주인공이다.

정우영 신동엽학회장은 "1968년 초연 이후 이제까지 아무도 되돌아보지 않은 작업을 무대에 올리는 것이다"면서 "창작 오페레타 '석가탑'은 한국 문학사와 한국 음악사에서 다시 평가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동엽의 오페레타 '석가탑'은 현진건의 소설 〈무영탑〉에서 온 것으로 불국사 석가탑에 얽힌 전설 아사달과 아사녀 이야기다. 석공 아사달의 예술에 마음을 뺏긴 수리공주와 공주를 사랑하는 도미장군, 남편 아사달을 기다리는 아사녀의 슬픈 이야기다. 오페레타 '석가탑'은 여러 가지로 신동엽을 조명하게 하는 작품 중의 하나다. 서사시 '금강' 발표 이후 참여시인으로서 평가받고 있었던 신동엽이 학생들을 위한, 학생들과 함께 하는 작은 공연을 추진했다는 점이 무엇보다 의미 있는 대목이다. 또한 문학사적인 면에서도 의미는 작지 않다. 현진건의 소설 〈무영탑〉의 줄거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소설과는 다른 결말을 이끌어냈다는 것이 그것이다. 신동엽은 '멀고 먼 바람 소리'라는 부제를 '석가탑'에 병기했다. 그것은 그가 불국사 설화에서부터 200년 이상 닫혀있던 죽은 결말에 활력을 불어넣으려했다고 볼 수 있다. 이대성 신동엽학회 총무이사는 "우리는 이 공연의 경험을 통해서 학생들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삶의 활력을 체득하고 발산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입체낭독극으로 무대에 오르는 '석가탑' 공연이 '멀고 먼 바람 소리'처럼 면면히 이어져 온 아름다운 사람들의 생명력을 끌어들여 내 안의 잠재력을 소중히 돌보는 계기가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동엽학회는 신동엽문학관 소장 필경등사본과 팸플릿, 공연사진 그리고 백병동 작곡가의 육필 악보 등 관련 자료들을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책자로 엮어 공연일에 발간할 예정이다. 신동엽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신동엽학회와 동국대사범대부속여고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공연은 무료다. 관람 희망자는 구글폼을 작성하여 사전예약 또는 당일 잔여석에 한해 현장에서 등록하면 된다. 문의 poet-shin@hanmail.net

해외 유출 고려 문화재를 찾아서

나우회 9회 기획전
'유출된 고려의 아름다움 재현전'
9월 3~30일 월정사성보박물관
10월 2~14일 충남도서관


한봉석 作 목조보살좌상.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산하 전승작가들의 모임인 나우회(회장 한봉석)가 전통문화의 둘레길 만들기 아홉 번째 기획전을 개최한다. 이번엔 '고려'다.

2010년 '극락정토, 미타의 미소' 전을 시작으로 우리 문화재의 소중함과 유출문화재 환수의 필요성을 재현 전시를 통해 알려온 나우회는 9월 3일부터 30일까지 평창 월정사 성보박물관에서 '유출된 고려의 아름다움 재현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김범식, 한봉석, 이연욱 등 8명의 나우회 작가가 참여해 나우회가 2014년부터 매년 이어온 해외 유출문화재를 소재로 재현하거나 다른 시작으로 재구성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의 출품작은 작년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된 '대고려 918-2018, 찬란한 도전' 특별전에 출품된 외국 박물관, 미술관 소장 우리 문화재 중 고려시대 유물을 중심으로 재현한 작품들이다.

△김범식(경북무형문화재 제37호) 대목장의 '팔작집'은 중앙박물관에 소장된 금동불감을 목재로 재현했다. △한봉석(경기도 무형문화재 제49호) 목조각장이 재현한 '목조보살좌상'은 일본 후모사에 봉안된 14세기 금동보살좌상을 나무로 재현했다. △이연욱(경기도 무형문화재 제 57호) 불화장의 아미타팔대보살도는 일본 교토 조코지에 소장된 14세기 아미타팔대보살도를 재현했다. △박명옥(명화페이퍼아트 대표) 종이조각가의 '관(冠)도 내려놓고'는 '유실된 보관'을 '내려놓았다'는 개념으로 상정해 재현했다. △노정용(문화재 조각기능 제1732호) 조각가의 '태조왕건상'은 북한의 국보 문화재인 태조왕건상을 재현했다. △박연규 조각가의 '석조보살좌상'은 일본 대마도 케이운지와 묘우소우지에 소장된 석조보살좌상을 재현했다. △김판기(지강도요 대표)의 작품은 오사카동양도자미술관이 소장한 청자화형반이다. △김성운의 '옥제당초길상문합'은 12세기에 제작된 청자투각당초문사각합을 경옥으로 재현했다.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소장 석문 스님은 "문화재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는 나우회 작가들은 해외 각지에 흩어진 우리 문화재를 찾기 위해 현지를 찾아 실견하고 재현과 재구성 등의 작업을 통해 해외 유출 문화재 환수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알려왔습니다. 이번 전시는 문화재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고 말했다.

나우회는 월정사 전시에 이어 10월 2일부터 14일까지 충남도서관 기획전시실에서 전시를 이어간다. 박재완 기자

학생들이 그린 범어사 풍경

'2019 현대의 지각으로 본 678 범어사' 展
범어사 불교문화테마전시관 9월 3일~12월 31일


안나현 作, 비 내리는 불이문.

범어사성보박물관은 9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범어사 불교문화테마전시관(범어사 지하철역 5번 출구)에서 하반기 테마전시 '2019 현대의 시각으로 본 678 범어사'를 개최한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는 이번 전시는 부산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의 기증 작품으로 열린다. 비오는 날의 고즈넉한 범어사를 자신의 그림세계로 풀어낸 작품 등 다양한 시각으로 그려낸 범어사를 감상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2018년 '범어사를 담다' 展에 이은 테마전시로 수묵, 수채화뿐만 아니라 펜드로잉, 크레파스 등을 이용해 다양하게 그려낸 작품들이 전시된다. 범어사의 역사와 자연을 예비 화가인 학생들의 눈으로 다양하게 해석한 그림들이다. 박재완 기자



선도 · 균여 · 대행… 선지식 조명 '눈길'

동국대 2019년 하반기 불교 박사학위는 (下)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동국대(총장 윤성이)에서 올해 상반기 불교 관련 박사가 16명이 배출됐다. 본지는 2회에 걸쳐 박사학위 논문을 정리해 기재한다. 다만, 저자 요청으로 미공개된 논문들은 제외했다. 〈편집자 주〉

"대행선사, 성불 의미 현대적 구현"

혜교 스님(대학원 불교학과)의 박사학위 논문 '묘공 대행의 '한마음주인공(主人空)' 사상 연구'는 대행 선사의 대표 사상인 '한마음주인공'과 '오공(五共)'의 개념을 중층적 시각으로 체계화하고 있다.

혜교 스님의 한마음주인공의 의미를 대행 선사의 법문을 분석해 15가지로 나눠 고찰했다. 이를 통해 스님은 "대행 선사가 한마음을 믿고 맡겨놓고 지켜보라고 강조한 이유는 중생심으로 살아가지 말고 부처의 삶으로 전환돼야 인간으로 태어나 한 생을 사는 보람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한마음에 대한 믿음을 갖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체험하며 그 법문을 논리적으로 체계화해 높일 수 있어야 '묘공 관법' 수행을 출 · 재가자에게 진정으로 가치 있는 수행론으로 자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마음주인공과 오공의 상호 작용 관계에 대한 부분도 눈길을 끈다. 혜교 스님은 "한마음주인공과 오공은 상호 불가불리의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다"고 봤다.

이에 대해 스님은 "오공은 따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돼 통신한다. 함께 더불어 살고 마음을 내니 하나라 할 것도 없고 둘이라고 할 것도 없는 둥글게 찬 한마음이 됐다"면서 "오공은 한마음주인공에 근원뿌리를 두고 있으면서 한마음을 실현하는 실천원리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스님은 묘공 관법의 체계를 분석하고 한마음주인공 사상을 게송과 평등공법으로 조망하는 등 대행 선사의 핵심 사상들을 총체적으로 살펴냈다. 혜교 스님은 "대행 선사는 불교의 지혜와 깨달음, 해탈 열반이라는 성불의 의미를 현대에 맞는 방식으로 재구현했다"고 강조했다.

'정토종 聖者 선도' 사상 망라

선도(善導, 613 ~ 681)는 당나라 정토종 3조로 정토종이 융성할 수 있게 만든 장본인이다. 혜덕 스님(대학원 불교학과)은 '선도의 정토관 연구'를 통해 정토종 대성자(大聖者)로 불리는 선도의 정토관을 면밀히 분석했다.

혜덕 스님은 선도의 정토사상을 '보신보토(報身報土)의 정토관'이라고 봤다. "일체의 범부가 왕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혜덕 스님은 "선도는 범부를 위한 본원의 칭명염불을 강조하며 단 일성만으로도 왕생이 가능하며, 오역중죄와 정법비방자까지도 왕생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을 교화했다"면서 "선도가 보살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정업을 닦고 계율을 철저히 지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화엄행자의 서원 '보현십원가'

석도 스님(대학원 불교학과)은 '균여의 보현행원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스님은 논문을 통해 고려 광종 대에 활약한 균여(923~973) 스님의 보현행원 사상과 중도 실천을 고찰했다. 또한 이를 통해 균여의 보현행원이 한국 화엄사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살폈다.

석도 스님에 따르면 균여는 많은 저술을 남겼는데 그중 상당수가 화엄학과 관련되며 그 수는 10종 65권에 이른다. 특히 석도 스님은 균여의 저술 중 '보현십원가'를 주목했다.

'보현십원가'는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나타난 보현보살의 십종대원을 사뇌가의 형식을 빌려 지은 것으로 균여는 〈화엄경〉의 보현행원을 대중 포교의 근본 사상으로 삼았다.

석도 스님은 "'보현십원가'는 부처와 중생, 나와 남이 둘이 아닌 무이(無二)의 관계 속에서 대비심을 일으켜 행원을 실천하겠다는 균여의 중도 사상이 잘 나타나 있는 글"이라고 주장했다.

'해인삼매론' 중생 구도 중시

정천 스님(대학원 불교학과)은 박사학위 논문 '명효의 〈해인삼매론〉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신라 명효 스님의 〈해인삼매론〉은 〈화엄경〉 '십지품(十地品)'의 요지인 '해인삼매(海印三昧)'를 논술한 책으로 잘 알려져 있다. 정천 스님은 〈해인삼매론〉의 사상적 배경과 내용, 수행 등을 분석하고 의상의 〈일승법계도〉와도 비교점을 살폈다.

정천 스님은 〈해인삼매론〉을 지은 명효는 도인(圖印) 내 게송의 뜻을 다라니라고 하고, 이를 법(法)과 의(義)로 해석한다고 봤다.

또한 〈해인삼매론〉의 구성은 의상의 〈일상법계도〉와 유사하지만 지향점이 다르다고 봤다. 의상은 〈일상법계도〉에서 '부처해인(佛海印)'을 말했다면 〈해인삼매론〉은 '중생해인(衆生海印)'을 이야기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천 스님은 "의상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말했다면, 명효는 중생이 깨닫는 과정을 중시했다"고 설명했다.

"여래장 사상, 〈능가경〉 근본"

승행 스님(대학원 불교학과)은 '〈능가경〉의 여래장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일반적으로 〈능가경〉은 유식과 여래장사상을 융합한 경전으로 생각하지만, 스님은 "〈능가경〉의 근본과 궁극에는 여래장 사상이 있다"고 논문을 통해 주장하고 있다. 〈능가경〉 '여래무아장'은 〈승만경〉 · 〈보성론〉의 여래장 사상을 정리한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학자들은 '여래장'이 유식사상의 법계일원론에 의해 설해졌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승행 스님은 "이런 주장은 공성에 마음이 미혹된 유가행자의 단멸론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여래장'은 부공의 불법들을 본래 갖추고 있는 무위법이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현대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유식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여래장사상을 보조적으로 설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식사상의 단견을 극복하기 위해 여래장사상을 융합해서 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승기신론' 통해 본 수행 전통

지세한(대학원 불교학과)은 박사학위 논문 '〈대승기신론소〉별기에 나타난 수행차제관 연구'를 통해 인도불교의 수행차제론을 〈대승기신론〉과 원효의 주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선불교의 전승에서 보이는 동아시아의 독자적 수행전통을 고찰했다. 그에 따르면 〈대승기신론〉은 상좌부와 대승불교의 모든 교학과 수행이론들을 섭렵한 것으로, 특히 원효는 〈대승기신론〉에 대한 소(疏)와 별기(別記)를 통해 인도의 성문 · 보살도 수행과 중관, 유식사상을 포용시켰다.

지세훈은 "깨달음을 얻은 이가 중생의 이익을 위해 중생에게 회향하는 이타행, 즉 부주열반 사상이야 말로 원효가 그의 많은 저술에서 한결같이 주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행위의 선악, 결과인가 동기인가

이호경(대학원 불교학과)은 박사학위 논문 '업설의 실정형법적 연구- 동기주의와 결과주의 논의를 중심으로'를 통해 불교의 업설과 현대사회의 실정형법을 동기론과 결과론의 관점으로 비교 · 고찰했다.

저자의 문제 제기는 업(행위)에 따라 나타난 선악의 평가 기준인 동기론과 결과론에 있다. 그는 경전의 사례를 동기론과 결과론으로 분석하고 현대의 실정형법에도 적용해 살폈다.

이호경은 "인간 행위를 지나치게 동기주의적으로 바라본 종래의 관점에서 벗어나 공리를 지향하는 결과주의적 관점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중관학당 '중론' 강독 강좌 종로 법련사 9월 20일 개강

〈중론(中論)〉을 강독하며 중관사상을 배울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공성의 배움터 중관학당(대표 신상환)은 가을 학기 〈중론〉 강독 강좌를 진행한다. 개강은 오는 9월 20일이며 10월 25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7~9시 서울 종로 법련사 2층 강당에서 강의가 진행된다.

강사는 신상환 중관학당 대표가 맡는다. 신상환 대표는 인도 타고르 대학의 인도-티베트학과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티베드 스님 등에게 중관사상을 가르쳤다. 용수의 6대 저작 모음인 〈중관이취육론(中觀理聚六論)〉, 〈티베트 현자의 말씀〉 등을 우리말로 옮긴 역경사이기도 하다.

이번 학기에는 〈중론〉 제24~27품까지 다루며, 1주차에는 1~23품에 대한 복습이 이뤄진다. 또한 인도-티베트 불교의 특징뿐만 아니라 〈중론〉의 산스크리트어 원문과 티베트역, 한역의 특징도 같이 다루어질 예정이다.

〈중론〉 강독 강좌는 선착순 40명이며 수강료는 총 6강 15만원이다. (010)8801-4037 신성민 기자

고려 '대승법계무차별론' 보물된다

문화재청 8월 28일 지정예고
안성 칠장사 대웅전 29일 지정

고려시대 인출된 절첩 형태의 〈재조본 대승법계무차별론 · 사진〉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재조본 대승법계무차별론〉을 비롯해 〈경주부사선생안〉 〈경상도영주제명기〉 등 고려~조선 시대 전적류 총 3건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8월 28일 밝혔다.

〈재조본 대승법계무차별론〉은 1244년(고려 고종 31년)에 판각된 후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인출된 것으로 보이는 불교 경전이다.

본문 글자 끝의 세밀한 획이 비교적 선명하게 찍혀져 있고 제첨(題簽, 표지가 아닌 다른 종이에 제목을 써서 붙임)방식의 '개법장진언(開法藏眞言)'으로 볼 때 고려 말~조선 초기에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대승의 법계에는 차별이 없다는 불교의 교리



를 밝힌 '대승법계무차별론'은 인도의 승려 견혜(堅慧)가 지은 것을 중국 승려 제운반야(提雲般若) 등이 7세기 말에 한역(漢譯)한 재조본 대장경이다.

〈재조본 대승법계무차별론〉은 1권 1첩으로 조성됐으며 서지학적 형태, 본문의 구성 체계와 판각에 참여한 각수(刻手) 등으로 미뤄 거란본 대장경을 교감한 경전을 인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문화재청은 "〈재조본 대승법계무차별론〉은 재조본 대장경 중 절첩(折帖, 병풍처럼 펼쳐서 보는 책) 형태로 전래된 희귀본"이라며 "거란본 대장경의 교감 등을 통해 제작한 해인사 대장경의 완전성과 함께 인출 당시의 먹과 종이, 인출본의 유통, 장황 형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불교사와 서지학적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보물로 지정예고된 〈경주부사선생안〉은 고려시대부터 1910년까지 경주부사를 역임한 인물들을 기록한 전적이며 〈경상도영주제명기〉는 고려~조선 경상도관찰사 부임자 명단의 기록물이다.

한편, 문화재청은 8월 29일 경기도 유형문화재 114호인 칠장사 대웅전을 안성 칠장사 대웅전으로 명칭 변경 후 보물 제2036호로 지정했다.

안성 칠장사 대웅전은 1790년(정조 14년) 중창되고 1828년(순조 28년) 이건된 건물로서, 경기도 권역에 조선 후기 사찰 중심 불전의 건축 상황을 잘 보여주는 역사적 · 학술적 가치가 큰 건축물이다.

신성민 기자

불교학연구회 9월 20일 가을 논문 발표회

불교와 수행을 다양한 시선으로 읽어내는 신진 학자들의 논문발표회가 열린다.

불교학연구회(회장 임승택)는 9월 20일 오후 1시 경북대 인문한국진흥관 학술세미나실에서 가을 논문발표회를 개최한다.

'불교와 수행을 읽는 시선들'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발표회에는 신진학자들의 논문들이 발표된다.

주요 발표 논문은 △'염(念, sati)과 견(見, diṭṭhi)- 지 · 관(止 · 觀) 구분의 기준에 대하여(우동필, 전남대)' △'〈법화경〉에서의 사리불의 위상에 대한 소고- 사리불은 퇴보리심성문인가, 응화성문인가(하영수, 금강대)' △'초기불교 명상수행에서의 실천적 중도 위상의 구현(김근중, 동원과학기술대)' △'육입(saḷāyatana)설을 통해 본 열반(nibbāna)의 실존적 측면에 관한 고찰(이은정, 경북대)' △'쇼펜하우어의 불교관에 대한 비판(윤동주, 경북대)' 등이다.

논평자로는 서현희(서울불교대학원대학), 윤종갑(동아대) 등이 참여한다. 신성민 기자

인생 네비게이션! 제갈량의 지혜 익히고 미래 보는 눈, 慧眼(혜안) 여는 과정에 초대합니다.



원장/주임교수 爽廈(석하) 소 재 학

동양미래학자, 미래예측학 박사 1호
명리학자(석박사과정 공식전공 사주명리학 박사 1호)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명리미래예측전공 교수
KOFS한국동양미래학회 회장, (재)하원정미래학회 회장
국제미래학회 및 국회미래정책연구회 동양미래위원장
ROTC중앙회 부회장 겸 논설위원, KAIST S+ AMP수료
건곤(乾坤)풍수지리학회 회장, 한국풍수문화원 원장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Main biz 충북) 자문위원
Earist University SAP학장 역임, 4차산업혁명포럼 고문
동방대학원 교수/ 발전위원장 역임, 미래예측포럼 고문
한컴그룹 자문, 서울신문STV그룹 고문, GFCA 원장
동양미래예측/ 풍수지리 컨설팅그룹 회장

나갈 때와 물러날 때를 찾는 지혜, 현대사주학 석하명리 마스터, 제9기
동국대 GFCA 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9월 5일 목(木) 개강 및 공개 특강

성공과 실패의 시기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최고위과정
과학화된 역학, 동양미래예측학 '석하명리' 마스터 과정

· 성공하고 싶다면, 자신만의 때(Timing)를 찾아라!
· 보다 행복하고 성공적인, 제2의 인생을 위한 필수 과정
· 慧眼(혜안) 통해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 인생이 바뀝니다.
· 평생 공부해도 답 안 나오는 사주명리학, 왕초보도 1년이면 OK!
· 원리를 알면 공부가 재미있다. 더 이상 스승 찾아 헤맬 필요 없습니다.
· 근거없는 비법 무조건 암기가 아니라 모든 이론 정확한 성립원리 공부
· 인연법, 궁합법 이유 없이 좋아지고 싫어지는 시기 정확히 분석
· 검증 가능한 제대로 된 작명법, 타고난 선천 성격 진로적성 분석법
· 현대사주명리학 최종마스터, 강사 및 진로적성상담사 자격과정 겸비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활용, 어렵지 않게 성공시기 분석



※수업 매주 목(木) 18:30 ~ 21:00

풍수도 논리로 푼다. 공간(空間)의 철학 자연과학 풍수지리(風水地理), 제6기
동국대 GFCA 풍수지리(+관상) 최고위과정
9월 9일 월(月) 개강 및 공개 특강

내 땅 내가 본다. 풍수지리의 제대로 된 맥을 잡는 과정
비법 찾아 평생 허비하며 수만금 들여도 답 없는 풍수지리
이론 따로 실제 따로 아닌, 제대로 된 기본 개념과 원리 위주 수업

〈대한민국 풍수지리 최고의 교수진 직강〉



주임교수 소재학 박사 | 지도교수 정경연 박사 | 담임교수 최병용 박사 | 지도교수 노승우 박사 | 지도교수 세 준 박사 | 지도교수 지종학 박사

· 100세 시대 풍수지리는, 제대로만 배우고 활용한다면 인생을 보다 성공적이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는데 도움이 되는 지혜의 학문
· 부동산 풍수, 양택 풍수, 음택 풍수, 기(氣) 풍수, 생기(生氣) 흐르는 좋은 자리 찾는 법, 살기 수맥 피하고 막는 법 외

※수업 매주 월(月) 18:30 ~ 21:00

2학기 과정 (마스터까지 무료 재수강 가능) GFCA 사무국 www.gfca.kr 02-585-0079 교육상담



대안 스님의
24절기 사찰밥상

⑯ 처서(處暑)
빈자적 · 제피잎풋콩조림 · 버섯강정

구충제 대신하는 건강지킴이

금수암 지킴이 백구 두 마리는 암수 한 쌍이다. 더운 여름을 힘겹게 나더니 선선한 가을바람을 맞이하면서 기운을 차리고 먹성이 좋아졌다. 천고마비의 계절 처서에 때맞추어 결실이 익어간다. 놓았던 일손을 다시 꾸리니 이곳저곳 예초기 소리가 요란하다.

중추가절 성묘를 위한 묘역 단장에 벌써부터 분주한 손길이 많다. '처서가 지나면 모기도 입이 비뚤어진다' 는 속담처럼 파리 · 모기의 성화도 사라져가는 무렵이 된다. 흔하게 하는 말로 모기 턱 떨어진다고 하는데, 모기는 습기만 있으면 태어나는 통에 가을이 다 가도록 사라지지 않기도 한다. 처서에는 특히 비가 내리지 않도록 간절한 농부의 마음이 된다. 벼가 쓰러져서 알곡이 흙에 닿으면 금세 싹이 트기 때문이다. 이산 저산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이즈음에 산초는 여물기 전에 채취해야 한다.

웬만한 산은 숲이 짙어서 나무가 길을 막고 들어서기 어려운 곳이 많다. 자연히 식별하기 어려운 산길에 무언가를 채집하기 위해 나서는 일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차라리 장터에 가서 부탁하는 편이 더 낫겠구나 생각하기 무섭게 속절없이 눈앞에 보이는 게 산초다.

어째 산초만 눈에 띄는지…. 하는 수 없이 보이는 대로 채집하여 소금물에 담가 독성을 중화시킨다. 과거 스님들은 산초산행을 즐겨하셨다고 한다. 한 자루씩 채집한 산초는 씻지도 않고 간장 독에 넣어 1년을 놔두면 산초가 새까맣게 변한다.


빈자적

그걸 다시 맹물에 며칠 우린 다음 양념간장을 만들어 장아찌로 두고 드셨다고 한다.

채식위주인 절집의 음식은 아무래도 구충제가 필요한데, 제피나 산초는 산시올 성분 덕분에 구충효과가 있어서 사시사철 밑반찬으로 상차림에 쓰인다. 많은 분들이 산초와 제피를 같은 식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전혀 다르다.

나뭇잎과 열매조차도 구분이 확실하다. 제피열매는 속인들이 먹는 음식 추어탕에 넣는 것으로 특히 중국음식에 거의 감초처럼 쓰인다. 제피잎장아찌는 가을단풍 든 노란 제피잎을 기름에 튀겨서 양념장에 무쳐놓으면 봄철보다 더 좋다. 또한 풋콩이 흔한 요즘 풋콩조림에 제피잎을 넣어 조리면 쉽게 상하지 않고 두고 먹을 수 있는 밑반찬이 된다.

산초는 풋산초를 장아찌로 만들고 완전히 열매가 익으면 기름을 내려서 양념으로 사용하거나 천식환자들에게 약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사실 산초는 기름 내리기가 무척 어렵다. 웬만한 기름집에서 산초기름은 해주려고 하지도 않는다. 할


제피잎풋콩조림

수없이 들깨와 함께 가지고 가서 기름을 짜달라고 해야 그나마 해준다. 지금도 산초기름은 유용하고 귀하게 쓰인다. 산초기름으로 부침개를 부치면 콩기름으로 만든 것보다 훨씬 풍미가 짙다.

산초장에 찍어먹는 빈자적은 빈대떡의 작은 형태로 예부터 사찰의 불전음식으로 만들어졌다. 노스님은 항상 녹두전은 시골아낙네처럼 크게 부치면 안 된다고 늘 빈자적 이야기를 하셨다. 빈자적의 곁들임 장은 산초장아찌를 건져낸 간장으로 이 간장 자체로 기름기 있는 음식과 궁합이 잘 맞는다. 어디 간장뿐이랴. 제피장아찌 잎을 얹어 먹는 빈자적 역시 뒷맛이 개운한 게 사실이다. 절집의 단백질은 콩류이고 지방질은 아무래도 양념으로 쓰이는 참기름 · 들기름 · 산초기름 · 호두기름 · 땅콩기름 등 기름이 차지한다. 버섯강정도 기름에 튀기지만 입맛을 자극하는 마성이 있다.


버섯강정

빈자적

재료: 불린 녹두 1컵, 고사리 80g, 숙주 100g, 당근 40g, 표고버섯 2개, 청고추 2개, 홍고추 1개, 집간장 · 참기름 · 소금 약간, 부침유(들기름 1T+식용유 1T), 양념간장(집간장 1T · 참깨 ½T · 식초 ½T, 채수물 1T, 청홍고추 다진 것 약간)

1. 녹두는 물에 하룻밤 불려 믹서에 간다.
2. 고사리는 삶아 집간장과 참기름을 넣고 팬에 덖는다.
3. 숙주는 손질하여 삶아 물기를 꼭 짜서 소금, 참기름으로 무친다.
4. 당근은 곱게 채 썰어 소금으로 약하게 간을 해서 덖는다.
5. 표고버섯은 곱게 채 썰어 참기름과 집간장으로 밑간을 한 후 덖는다.
6. 청 · 홍고추도 다져 잔열에 재빨리 덖는다.
7. 볼에 녹두와 재료를 섞어 버무려 반죽을 만든다.
8. 팬에 부침유을 두르고 한 스푼씩 떠서 부어 지져낸다.
9. 채수물에 집간장, 식초, 청 · 홍고추를 넣어 만든 초간장을 곁들여 낸다.

제피잎풋콩조림

재료: 풋콩 2컵, 제피잎 40g, 조림장(채수물 ½컵 · 집간장 1T · 송표간장 3T · 조청 2T)

1. 풋콩은 깨끗이 씻어 물기를 뺀다.
2. 냄비에 조림장과 풋콩을 넣고 은근한 불에서 계속 졸인다.
3. 제피는 다져놓는다.
4. 조림장이 졸아 들고 윤기가 나면 다진 제피잎을 넣고 뒤적거린 후 불을 끈다.

버섯강정

재료: 표고버섯 5개, 새송이버섯 1개, 양송이버섯 5개, 청 · 홍피망 ½개, 견과류(호박씨 · 해바라기씨 10g씩), 식용유 3컵, 전분3 큰술

소스재료: 고추장 1큰술, 간장 1작은술, 조청 1큰술, 매실청 2큰술

반죽만들기: 밀가루 1컵, 물 ⅔컵, 전분 2T, 소금 약간

1. 버섯은 물수건으로 털어서 닦은 다음 자른다.
2. 밀가루와 전분을 섞어 반죽을 양에 맞추어 만들어 놓는다.
3. 청 · 홍고추는 잘게 다지고, 견과류는 굵게 다져 놓는다.
4. 손질한 버섯을 전분 가루에 살짝 굴린 후 반죽 옷을 입혀 2번 튀겨낸다.
5. 고추장소스 재료를 냄비에 넣고 센 불에 올려 끓으면 튀긴 버섯을 넣고 뒤적인다.
6. 버무린 버섯을 접시에 담고 마지막에 다진 고추와 견과류를 뿌린다.



류재환의 건강 100세
② 늙음, 질병, 죽음

호르몬 저하가 노화의 큰 원인

우리가 살아가면서 늙음, 질병, 죽음은 필연적으로 맞이하는 과정이지만, 유한한 삶을 살면서 인간은 인지하고 사고하며 느끼고 여러 가지 감정과 행동으로 표현해가며 살아가게 된다. 불경에서도 세 가지 천사로 나이 듦, 질병, 죽음을 이야기했고 죽음을 통해서 현재의 삶을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권유하고 있다. 의사로서 나는 이런 나이 듦, 질병, 죽음에 대항하여 항상 맞서서 투쟁하는 입장에 서게 된다.

이런 과정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어떤 이는 편안하고 건강하게 행복한 삶을 영위하지만, 다른 이는 조기에 노화되며 질병에 이환되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불행한 삶을 지내기도 한다. 의사 입장에서는 출생 후 성장이 다 이루어진 시점, 즉 노화가 시작하는 시점인 약 20대 초반부터 건강 관리에 들어가야 하며 올바른 식습관, 정신적 건강 상태를 유지하며 건강에 유해한 것을 기피하고 더 나아가 올바른 종교 생활까지 함께한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이라 본다.

이번 주제는 우리가 모르는 인체 내 호르몬 균형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왜 적게 먹어도 뚱뚱할까? 또 어떤 사람은 왜 키가 작을까? 또 어떤 이의 잔잔하고 평화스럽던 마음에 왜 분노가 유발될까? 이 모든 상황은 호르몬이 관여한다. 이처럼 호르몬이 수면의 질 같은 생활 영역부터 미움, 사랑, 도전 정신 같은 정신적 영역까지 관여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미국의 의학자인 랜디 허터 엡스타인(Randi Hutter Epstein)은 호르몬을 사춘기와 성(性), 성장, 대사, 행동, 수면, 스트레스, 기분 변화, 면역계, 투쟁, 도피, 자녀 양육을 통제한다고 주장했으며, 일본의 세계적인 운동선수 주치의이자 의학자인 네고로 히데유키(根來秀行)는 호르몬은 심장을 박동시키고 자발적 호흡을 하며 체온을 조절하고 음식을 소화하는 일련의 생명 유지 기능을 관장하여 인체를 제어하는 거대 시스템의 한 축이라 말하며, 이는 즉 우리 인간의 모든 생명 유지 활동을 지원한다고 하였다.

호르몬은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사슬 모양으로, 혈관을 통해 분비되어 짧게는 몇 분에서 길게는 몇 시간 후 활동을 시작한다. 뇌에서 호르몬이 분비되면 원거리에 있는 고환이나 난소에서 반응이 일어나듯이 원거리로 활동하는 것은 호르몬의 특징 중 하나이다. 어떠한 호르몬도 독자적 활동을 하지 않는 특징이 있으며 우리 인체의 세포, 장기의 기능이 최대한 정상적으로 발휘되어 이상적 상태를 유지할 때 노화와 질병을 제어하게 된다.

하나의 호르몬 기능은 다른 많은 호르몬과 연관되어 있으며 항상 유기적 복합 활동을 하므로 호르몬 밸런스(balance)가 중요한 것이다. 하나

인체 모든 상황에 호르몬이 관여
식생활과 생활습관 등 관리 중요

의 예로서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인 렙틴(leptin)이 있다. 인체에 에너지 저장량이 감소하면 렙틴 수준이 낮아져 공복감을 느끼게 된다. 그런데 공복감이 있을 때 계속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으면 렙틴이 위험 수준으로 계속 유지되며 다른 호르몬 작용을 방해하여 결과적으로 생식 기능, 대사 기능, 면역계 기능이 악화되고, 이는 과도한 다이어트(체중 감량) 시 여성의 경우 월경이 멈추고, 골량 감소 및 골다공증이 나타나며 인체 저항력 감소에 의한 질병 유병률이 증가하게 된다.

또 호르몬에 영향을 주는 것은 혈관이다. 호르몬은 혈액으로 운반되기 때문에 혈액의 흐름이 정체되면 당연히 호르몬 밸런스도 무너지고 호르몬의 작용 및 다른 호르몬 간에 유기적인 협조에 의한 기능에 이상이 발생한다.

우리가 주목할 호르몬에는 성장호르몬과 성호르몬이 있다. 이 호르몬의 특이 사항은 나이가 들면서 드라마틱(dramatic)하게 분비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20대 초반에는 분비량이 최대이나 50대에는 절반으로 감소한다. 이 두 호르몬은 항노화(anti-aging) 호르몬이며 특히 성장호르몬은 손상된 세포 복원에 관여하므로 분비량 감소 시 피로가 누적되고 체력이 급격하게 쇠약해진다. 네고로 히데유키는 노화 현상 중 수면의 깊이가 얕아지는 것, 우울한 감정이 드는 것도 항노화 호르몬의 작용 감소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끝으로 항노화 호르몬인 성장호르몬, 성호르몬, 멜라토닌, 도파민과 전체 호르몬 균형을 위한 건강 습관으로 7시간 수면과 수면의 질 높이기, 적당한 공복 느끼기, 좋은 스트레스 받기(운동, 성취감), 적당한 활동과 운동, 규칙적인 햇볕 쬐기, 올바른 종교 생활, 명상과 복식호흡, 마지막으로 항노화 호르몬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한다. 첫째 성장 호르몬은 우리몸에서 손상된 세포를 보수한다. 예를들면 내장과 기관 피부 근육 뼈 즉 전신세포를 재생보수하며 더 나아가 면역세포재생에도 기여한다. 그리고 중요한 뇌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역할도 한다.

그럼 이런 성장 호르몬 감소를 줄이는 방법은 질 좋은 수면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외 강조한 바와 같이 적당한 절식 즉 약간의 공복상태 유지와 운동 취미활동 등 좋은 스트레스를 갖는 것 등은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두 번째 여성 남성 성 호르몬으로 여성호르몬은 30대부터 급격히 감소하고 폐경 후에는 고갈되므로 평소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등이 풍부한 균형잡힌 식단이 중요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힘든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이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논리적 사고력 리더십능력을 관장하므로 중년 이후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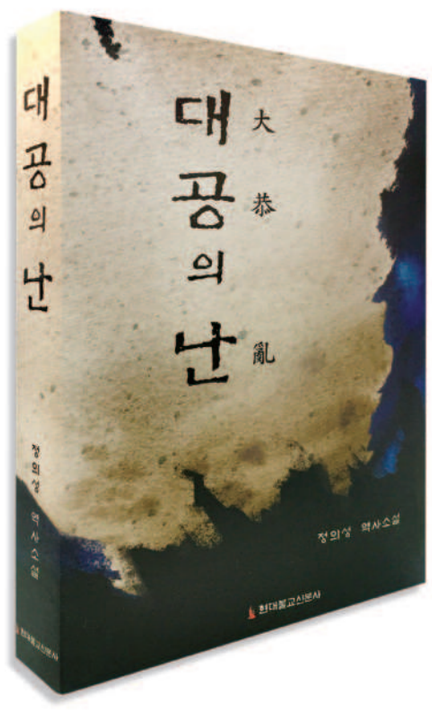
전국병원불자연합회장(경희대 동서의학대학원 주임교수)

"운명의 화살은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법이 없더라"

불법이 꽃을 피웠던 통일신라,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더욱 밝게 열리듯이
법멸의 월식 기간이 있었으니,
그 시대를 건너야 했던 왕과 여왕,
화랑과 고승들, 그리고 천하제일을 다투는 검객들의
사랑과 운명이 밤하늘과 별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작가 정의성 (鄭義成)

신라의 김대성 공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지었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그 멋들어진 효성이 천이백 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남아있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부처님께 이 책을 지어 바쳐
부모님의 행복을 빌고자 합니다.



대공의 난
정의성 역사소설 | 신국판 | 704쪽 | 값 22,000원
현대불교신문사

현실을 꿈처럼 재해석하게 하는 불교적 환타지,
무협소설 같은 속도와 긴장,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지혜와 술수의 맞대결…

이 소설은 통일신라시대 중기에 일어난 대공의 난을 다루고 있다.
모름지기 소설은 첫째,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작가 정의성의 〈대공의 난〉은 그 첫째를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암흑의 시기를 통과하는 청춘 남녀들의 사랑과 비극이 폭염 속의 단비 같고, 장마 속의 햇살 같은 신들린 작가의 손에 의해 반전에 반정을 거듭하며 절묘하게 펼쳐진다.
〈삼국사기〉,〈삼국유사〉가 갖는 비통일적인 특성들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결합, 재창조되어 역사 속의 인물들을 더욱 생생하게 눈 앞에 되살려냄으로써 특별한 재미와 함께 인생사의 오묘한 이치를 사유하게 된다.
역사에 대한 깊은 연구와 방대한 자료조사, 검술과 진법에 대한 작가의 해박한 지식과 갈고 닦은 내공이 작품 속에 녹아 있어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박진감을 선사하면서, 영화나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펼쳐진다.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 02)2004-8216

한국불교대표방송 BTN 대표이사 서성우

"가정에 수호신을 모셔 주십시요"

달마대사께서는 부처님 다음으로 불교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시며 선을 대표하는 인물이시고 깨달음의 징표이십니다.

중국 소림사 한국본부 문화원 운영위원장겸 미술원 원장이신 청곡 이한동 화백님의 작품으로 한점 한점마다 수호신이 되어 집안을 지켜줄 것이며 그림에서 발산하는 기운은 가정을 평화롭게하고 가족의 건강과 모든 어려운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며 만사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7



8



9



남인도의 대바라문국의 셋째 왕자로 태어나신 달마는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부터 28대 조사가 되시는 분으로 인도에서 일어난 대승불교의 씨앗을 중국으로 가지고 와서 중국 선종의 초 조사가 되시는 분이시다, 양나라 무제와 결별하고 갈대 한가닥을 타고 양자강을 건너 숭산 소림사에 은거하며 9년 동안의 면벽좌선으로 크게 깨우침을 얻어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내리고 중국 선종을 크게 부흥시키신 분이시다.

10



11



12



달마의 모습은 원래 왕자로 태어나 귀하고 잘생긴 모습이었으나 어느날 한 마을을 지나다가 어디선가 고약한 냄새가 풍겨나고 마을 사람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 근원을 찾아보니 어마어마하게 큰 뱀이 죽어 썩어가고 있어 달마가 자기 육신을 벗어놓고 뱀속으로 들어가 뱀의 몸을 움직여 깊은 바다속에 버리고 돌아와 보니 그사이 험상궂게 생긴 신선이 지나다가 달마의 몸을 발견하고 자기 몸을 벗어 놓고 달마의 몸을 가지고 가버린것이다. 하는수 없이 그 몸속으로 들어간 것이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달마의 모습인 것이다.

규격 : 54x120Cm 가격 : 100,000원, 2점 이상주문시 90,000원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TEL.02)2004-8216~4 /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